## 서울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Policy Suggestions for Invigorating the Youth Entrepreneurship in Seoul

#### 김묵한 김범식



## 서울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Policy Suggestions for Invigorating the Youth Entrepreneurship in Seoul

#### 2012



#### ▮연구진 ▮

연구책임 김 묵 한 •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연 구 원 김 범 식 •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임 현 규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장 윤 희 •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I.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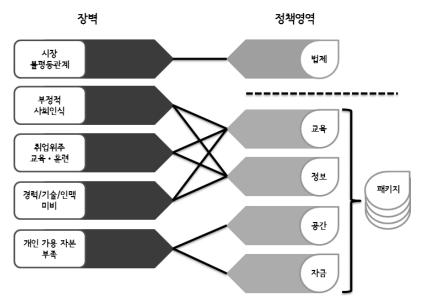
- ○청년실업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청년실업의 대 책 중 하나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비록 OECD 평균보다 낮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10% 대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실업의 구조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
- ○서울시 청년층의 취업난은 전국에 비해서도 열악한 편이며 이는 대학 교육 의 중심지이자 고용 기회가 높은 대도시로서 서울에 청년층을 이끄는 유인 이 존재하기 때문
  - -서울은 2010년 기준으로 1979~1992년에 태어난 에코세대의 23%인 223만 명이 집적한 에코세대의 국내 최대 집적지
  - -에코세대는 2013년을 기점으로 20~35세인 세대로 청년기를 지나고 있으며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에 비해 고학력, 전문가 지향 특징을 보여 서울로의 집적을 설명
- ○서울시는 창업 생태계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청년창업의 지원을 위해 독자 적인 공공지원 창업 생태계의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차츰 한계를 노정하는 단계에 도달
  - -최근 들어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서 서울시 기존 청년창업 지원체계는 이제 수량적 지원에 치우친 폐쇄적 인 체계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민관 양쪽에서 표출
  -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조응하는 공공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 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행정적 대비 는 아직 미비한 상태

-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의 발전은 새로운 개방적, 협력적 창업 형태인 '소셜(Social)' 창업이 창업의 주요한 경로로 등장하면서 가능해졌다는 평가 —이러한 새로운 창업 형태에 대한 이해나 정책적 수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정책방안 및 수단으로 확립된 사례는 극소수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층 고용과 창업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소셜 창업 방식 및 형태의 주요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함의가 있는 주요 경향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

#### Ⅱ. 서울시 청년창업 특성과 문제점

- ○청년창업은 창업 자체가 가진 어려움에 더해 청년층이 가진 역량의 제한이 장벽으로 작용하여 보다 어려운 상황
  - -시장 불평등 관계: 금융 대출, 시장 판매에서 청년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진입비용은 낮으나 경쟁은 치열한 산업에서 창업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
  - -부정적 사회인식: 청년의 주변인들은 창업의 조건이나 기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만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 -취업 위주의 교육과 훈련 : 통상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은 보통 취업을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창업에 필요한 태도나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은 충분치 않은 현실
  - -경력, 기술, 인맥의 미비 : 창업에 직업 혹은 창업 경험이 중요하나 청년 층은 이런 경험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여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 연줄망, 숙련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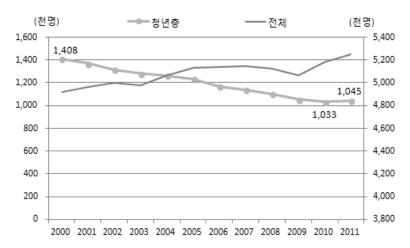
-개인 가용 자본 미비 : 초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한 예비창업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나 청년은 자체 저축도 많지 않은데다 신용도 높지 않아 외부 금융을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림 1〉 청년창업의 장벽과 주요 정책영역

- ○따라서 청년창업 관련 정책은 이러한 장벽의 무게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크게 다음의 5가지 정책영역에서 시행되는 추세
  - -법제: 흔히 국내에서 동반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 불평등 관계의 해소에서는 다른 정책 영역보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간주되며,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주효
  - -교육과 정보: 부정적 사회인식의 개선, 취업이 아닌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경력, 기술, 인맥의 습득과 배양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은 크게 교육과 정보 정책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청년창업의 장벽
  - -공간과 자금 : 청년층의 창업에서 부족한 자본은 직간접적 자금 지원과

- 저렴한 공간의 제공 등을 통해 공간과 자금 정책영역에서 보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
- -패키지: 특히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책의 시행보다는 교육, 정보, 공간, 자금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하다는 인식이 확산
-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난 반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 감소
  - -경제활동인구수는 신용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과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8~2009년 일시적 감소 외에는 전체적으로 증가세였던 반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일정 비율로 감소
  - -2010년까지 10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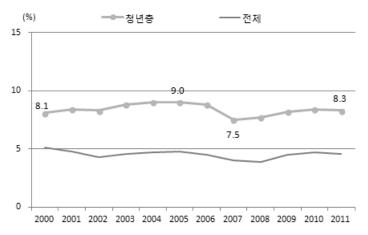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그림 2〉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추이(2000~2011)

- ○전체 실업률 평균은 2000년 5%가 넘었으나 이후 4% 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8% 대를 기록하고 있음
  - -전체 실업률은 2008년 최저인 3.9%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오르기시작하여 2011년 기준 4.6%를 기록

- -청년층 실업률은 이보다 약 3~4%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가장 높았을 때가 9.0%인 2004년, 가장 낮았을 때가 7.5%인 2007년으로 나타나 그 격차는 1.5% 수준임
- -2007년까지 조금씩 낮아지던 청년층 실업률은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하 여 2011년엔 8.3%로 2000년 초반과 비슷한 수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그림 3〉 서울시 실업률 추이(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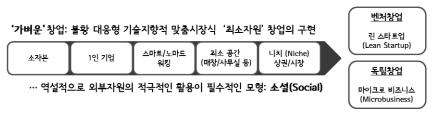
- ○관련하여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경력직 채용 확산이 국내 고용시 장의 특징으로 정착한 데에서 청년층 취업 감소의 원인을 찾는 논의 존재 -1996년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경력직 채용은 전체 고용의 34.8%에 그쳤 으나 2011년에는 그 2배가 넘는 81.5%를 기록
- ○수적으로도 경력직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신규채용은 답보상태 이며, 서울의 경우에도 경력직 채용이 채용 증가의 주요 동력
  - -채용은 전국적으로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서울의 채용은 2009년(165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201만 명)까지 다시 반등하는 형세를 보이는 차이가 존재

- -전국적으로 신규채용은 지난 5년간 매년 110만 명 정도에 그친 반면, 경력직 채용은 2007년 351만 명에서 2011년에는 484만 명으로 증가
- -서울의 신규 채용은 2007년 50만 명에서 2010년 40만 명을 저점으로 하여 2011년에는 44만 명까지 회복하는 추세
- -반면 서울의 경력자 채용은 2007년 139만 명에서 2009년 123만 명까지 하락했으나 2010년 이미 2007년 수준을 넘어서 2011년에는 156만 명을 기록
- 청년층의 신설법인수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1,090개(53.8%)가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엔 다시 전년 대비 294개(9.4%) 감소
  - -2008년 11.2%였던 청년층 신설법인수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났던 2010년 14.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 12.6%로 1.9% 감소
- ○청년층의 법인 설립은 정체 중이나, 장년층 및 노년층의 법인 설립은 증가 추세
  - -청년층 신설법인 비중은 2010년을 제외하면 4% 대로 큰 변화가 없음
  - -가장 큰 비중을 보인 연령대는 40~49세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59세도 20%가 넘는 비중을 보여, 전체적으로 장년층이 신설 법인의 절반 이상을 설립
- ○청년층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에 비해 빠르게 감소
  -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보면,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자영업자 비중은 2001년 28.0%에서 2006년 26.5%, 2011년 23.1%로 10년 새 4.9% 감소
  - -청년층은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데 이어 자영업자 비중도 절반 가까이 감소
    - · 청년층 자영업자 비중은 2001년 11.3%였으나, 2006년 8.8%, 2011년 6.5%로 전체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폭보다 가파르게 하락
- ○청년패널조사 분석을 통해 밝혀진 청년층 고용여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취업정보의 부족 및 고용과 수요 간의 불일치

- -적절한 인력공급 및 직업교육훈련 등의 고용정책 시행으로 구인과 구직 가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방안이 요청
- ○서울시 청년층의 지난 5개년간 연차별 평균 증가율 상위 산업은 다양한 업 종에 분포하나 서비스업이 대부분
  - -이중 가장 높은 평균증가율을 보인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출판업 및 영 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서울시 청년층의 지난 5개년간 연차별 평균 증가율 상위 직업 역시 다양한 직업군에 분포하나 산업의 증가세와 상응하는 추세 관찰
  - -이들 직업 중 서울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능수준과 종사자 규모를 감안했을 때,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및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고려

#### Ⅲ. 새로운 창업방식으로서 소셜 창업의 등장과 확산

- ○최근 청년창업을 포함한 창업 일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추세는 이른바 '가벼운' 창업
  - -외부에서 전략적 제휴나 아웃소싱으로 핵심역량 외의 자원 조달이 가능 한 경우에 핵심역량에 집중해 창업하는 '가벼운' 창업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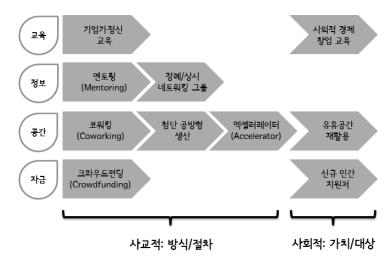
(그림 4) 가벼운 창업과 소셜 창업

- '가벼운 창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업생태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개념으로 '소셜(Social)'의 필요성이 대두
  - '가벼운' 창업은 정의상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없으면 작동하기 어려운 체계
  - -같이, 함께하는 창업이라는 측면에서의 '소설'은 '가벼운' 창업의 조건이 자 결과로서 불가분의 관계로 부상
- ○이러한 측면에서 소셜 창업이란 사교적, 사회적인 축을 따라 기존 창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창업 방식으로 정의
  - -사교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절차, 사회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 주체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창업을 변화시키는 창업의 첨단 추세

〈표 1〉소셜 창업 10대 경향 개관

부문	경향	정의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자 인성, 창조성, 도전 정신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
业书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사회적기업, 현동조합 등 회사 외 기관의 창업 지원
저니	멘토링 (Mentoring)	창업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도제적, 쌍방향 학습 방식
정보	정례/상시 네트워킹 그룹	투자자, 예비창업자, 지원처 등의 정보교류 및 인력 매칭의 장
	코워킹 (Coworking)	프리랜서, 전문가,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공동 사무 및 협업 공간
77	첨단 공방형 생산	디지털 제작 장비를 써 소규모로 저렴하게 시제품 생산을 구현하는 공방
공간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투자자, 성공 창업자 등과의 만남을 통한 초기 창업자 단기집중 보육 프로그램
	유휴공간 재활용	빈 건물, 공실, 여유 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하는 사업방식
자금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규모 투자를 모으는 십시일반형 투자방식
사급	신규 민간 지원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서, 민간 창업지원 재단 등 새로운 민간 창업지원 주체

-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소셜 창업 지원 기관, 기업 및 소셜 창업 기업 대 상 인터뷰 실시를 통해 10개의 소셜 창업 경향 도출
  - -산학연, 민관 부문을 통틀어 총 30여 사례 기관 및 기업을 방문 인터뷰하였으며, 이 외에도 자문회의, 전화인터뷰 등 부가 조사도 실시
  - -교육, 정보, 공간, 자금의 4개 청년창업 정책분야와 소셜 창업 방식의 사교적, 사회적 구분에 따라 10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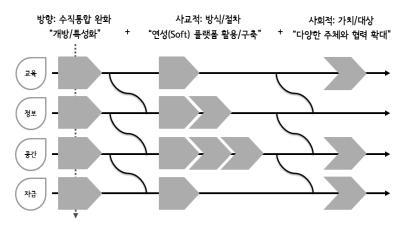
〈그림 5〉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류

#### Ⅳ. 소셜 창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나 최근 새로운 패러다 임의 도입을 통한 변신을 꾀하여야 하는 단계
  - -서울시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은 대형, 다업종 인큐베이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정보, 공간, 자금 정책의 수직통합 패키지가 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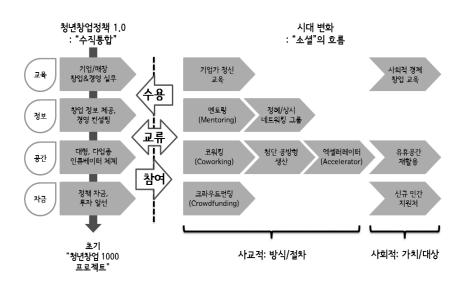
-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던 2009년의 상황과 달리 민간에서의 청년창업 생 태계가 점차 성숙해지는 추세
- -폐쇄적인 '온실' 생태계 구축을 넘어 서울시의 자원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창업 생태계의 강력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대형 인큐베이터 중심 양적 지원 확대 우려, 다업종 지원으로 인한 업종 특화 미비 우려 등 변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서울시 청년창업에서 민간의 역량은 강화되는 추세이나 다소 산발적
  - -소설 창업의 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중심의 창업 저변은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서울시 창업생태계가 자리 잡아가는 추세
  - -다만 현재 초기 단계로 서울시 청년창업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은 부족하여 다소 산발적으로 사안별 시도에 집중하는 데 그치는 상황
- ○소셜 창업 방식의 접목을 통한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개선 가능
  - '가벼운 창업'의 확산은 핵심역량을 갖춘 개인이 '소셜 창업'을 통해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능
  - -마찬가지로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수직통합 모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셜 창업 방식과의 접목이 필요
  - -이는 민관협동을 전제로 하는바 궁극적으로는 현재 다소 산발적인 초기 단계의 서울시 민간 청년창업 생태계의 성숙에도 기여하는 방향
- ○서울시 청년창업정책은 수직통합을 목표로 하였던 청년창업정책 1.0에서 혼성조합(Mix-and-Match)을 기치로 하는 '청년창업정책 2.0'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청년창업정책 2.0'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서 벗어나 개방적인 창업지원 구조를 설립하는 데 초점
  - -따라서 서울시는 청년창업 생태계의 건설자라는 책무를 내려놓고 강력한 참여자로서 청년창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중요

-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 간의 조합을 가능 하게 도와주는 매개자 역할이 서울시의 새로운 주요 역할로 주목
- -참여자들이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설립 혹은 구성 또한 전통적인 서울시의 정책적 옵션으로 재검토할 필요
- ○특성화 측면에서는 벤처뿐만 아니라 독립 창업 생태계의 발전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전망
  - 투자 유지를 전제로 하는 벤처 창업과 기술 창업에서는 민관협력 강화를기조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부문의 선택적인 지원을 제한적으로 고려
  - -상대적으로 민간 창업 생태계의 성숙도가 높은 벤처/기술창업은 직접적 인 지원보다 서울시가 창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방 향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 반면 개인이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 독립 창업과 생계 창업 은 현재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역할이 뚜렷
  - -정부 지원의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업종 고도화/전환 등의 정책 적 보완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수직통합 완화는 방식/절차에서 소셜 창업의 '사 교적' 측면, 가치/대상에서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는 데서 출발
  - -수직통합의 완화에는 단순한 공간의 분화나 관리조직 개편 이전에 개방/ 특성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
  - -사교적 방식/절차의 도입은 건물, 시설 등의 강성(Hard) 플랫폼 외에 SNS와 연동되는 정례 네트워킹 등의 연성(Soft) 플랫폼 운영이 핵심
  - -또한 사회적 가치/대상의 도입은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민관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데에서 시작



〈그림 6〉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방향

-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개별 정책 영역은 수용, 교류, 참여의 3가지 방식 으로 새로운 소셜 창업과 접목되어 개선 가능
  - -청년창업 정책 1.0의 즉각적인 해체보다는 현재 구축한 인프라와 자원을 기반으로 소셜 창업의 방식을 도입하여 개선하는 방안 모색



〈그림 7〉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개선방안 개요

#### -교육, 정보, 공간, 자금의 정책 부문별로 구분된 10개 소셜 창업 경향의 정책적 접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도출

#### 〈표 2〉 기존 청년창업 부문으로의 소셜 창업 방식 도입 방안

부문	경향	정책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 현재 기업가정신 교육 수행 기관과의 실무-정신교육 연계 프로그램	
业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의 강의 및 입주 공간 제공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의 내부화 추진	
	멘토링 (Mentoring)	·외부 멘토 풀(Pool)을 활용한 개방형 테마 멘토링 이벤트	
정보	정례/상시 네트워킹 그룹	·이미 활성화된 청년창업 관련 네트워킹 그룹에 공공 대표로서 참여 ·서울시 지원 예비창업자-투자자 정례 매칭모임의 신설 및 운영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 운영 시 민관 창업 운영협의회 운영 ·상시적인 창업지원 도구로서 창업 관련 온라인 소셜미디어의 활용	
	코워킹 (Coworking)	·기존 창업공간 일부를 코워킹 공간으로 전환 ·서울시내 코워킹 공간 공유-정산 카드 시스템 구축	
공간	첨단 공방형 생산	・시제품 생산 등 기능과 연계하여 기존 창업공간 시설에 도입	
5선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졸업기업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장려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엑셀러레이터 공동 협력 프로그램 육성	
	유휴공간 재활용	·기존 창업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의 단기 공유방안 시행 ·예비 창업자의 상시적 입주 방식 도입	
717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시제품 제작, 장비 구매 등 소규모 펀딩 시 크라우드펀딩 활용 장려 ·크라우드펀딩 활용 단기 워크숍 시행	
자금 	신규 민간 지원처	· 졸업기업 대상 민간 청년창업 프로그램 연계 알선 · 중장기적으로 민간 청년창업 프로그램과의 상생적 협력 관계 구축	

# 목차

제1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6
1. 연구방법	6
2. 연구범위	6
제2장 서울시 청년창업 특성과 문제점	11
제1절 청년창업의 정의와 정책영역	11
1. 청년창업의 정의	11
2. 청년창업의 정책영역	13
제2절 서울시 청년층 고용 및 청년창업 현황	16
1. 서울시 청년층 고용 현황	16
2. 청년창업 현황	38
제3절 미래 유망 업종 및 직업 탐색	47
1. 고용구조 현황 분석	47
2. 청년층 고용여건 분석	56
3. 미래 창출 가능 직업 탐색	62
제3장 새로운 창업방식으로서 소셜 창업의 등장과 확산	71
제1절 소셜 창업의 배경과 개념	·····71
1. 소셜 창업의 배경	·····71
2. 소셜 창업의 개념	73

제2절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75
1.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개요 ······75
2.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 교육 부문 ······77
3.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 정보 부문83
4.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 공간 부문87
5.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 자금 부문105
제4장 소셜 창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115
제1절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 현황과 문제점115
1.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현황115
2.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118
3.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123
제2절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 개선방향125
1.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변화 요청125
2. 수직통합에서 혼성조합으로 : 청년창업정책 2.0126
제3절 소셜 창업 방식을 통한 청년창업 정책 개선방안130
1. 교육 부문130
2. 정보 부문131
3. 공간 부문135
4. 자금 부문138
참고문헌143
부 록151
영문요약169

# 표목차

〈표 2-1〉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추이(2000~2011) ······18
〈표 2-2〉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19
〈표 2-3〉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추이(2000~2011) ·······20
〈표 2-4〉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21
〈표 2-5〉서울시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1) ·······22
〈표 2-6〉서울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추이(2000~2011) ······23
〈표 2-7〉서울시 고용률 추이(2000~2011) ·······24
〈표 2-8〉 서울시 청년층의 고용률 격차 추이(2000~2011) ·······25
〈표 2-9〉 서울시 취업자수 추이(2000~2011) ·······26
〈표 2-10〉서울시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26
〈표 2-11〉 서울시 실업자수 추이(2000~2011) ·······27
〈표 2-12〉서울시 실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28
〈표 2-13〉 서울시 실업률 추이(2000~2011)29
〈표 2-14〉서울시 청년층의 실업률 격차 추이(2000~2011) ······30
〈표 2-15〉서울시 청년층 취업자 감소 요인 분해(2000~2011) ······35
〈표 2-16〉전국 및 서울의 경력직 채용비중 추이(2007~2011) ······37
〈표 2-17〉전국 및 서울의 경력별 채용 추이(2007~2011) ·······37
〈표 2-18〉청년층의 자발적 이직 비중 추이(2007~2012) ······38
〈표 2-19〉 서울시 신설법인수 추이(2003~2011) ······39
〈표 2-20〉 서울시 청년층 신설법인수 추이(2008~2011) ······39
〈표 2-21〉 서울시 신설법인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8~2011) ·······40
〈표 2-22〉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3~2011) ·······41
〈표 2-23〉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수 비중 추이(2003~2011) ·······42
〈표 2-24〉 전국 청년층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8~2011) ·······43

〈표 2-25〉 전국 청년층 산업별 신설법인수 비중 추이(2008~2011) ·······44
〈표 2-26〉 CEO 연령별 신설법인 추세(2008~2011) ···································
〈표 2-27〉 청년층 자영업자 추세47
〈표 2-28〉 산업별 고용규모(2008~2012)
〈표 2-29〉서울시 산업별 고용규모(2008~2012)
〈표 2-30〉서울시 청년층(15~29세) 산업별 고용규모(2008~2012)51
〈표 2-31〉 직업별 고용규모(2008~2012)53
〈표 2-32〉서울시 직업별 고용규모(2008~2012)54
〈표 2-33〉서울시 청년층(15~29세) 직업별 고용규모(2008~2012)55
〈표 2-34〉청년패널조사의 표본 ······56
〈표 2-35〉중·고등·대학(원)생이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57
〈표 2-36〉 성별 구직시도 및 실패 횟수 ······57
〈표 2-37〉중·고등·대학(원)생의 여건 분석 및 시사점 ······58
(표 2-38) 미취업자의 비구직사유58
〈표 2-39〉 미취업자의 취업준비 시 겪는 애로사항59
〈표 2-40〉 미취업자의 희망직업
〈표 2-41〉미취업자의 희망임금 유형
〈표 2-42〉미취업자의 희망회사 유형61
〈표 2-43〉미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61
(표 2-44) 미취업자의 여건 분석 및 시사점62
〈표 2-45〉분야별 신생 및 이색 직업
〈표 3-1〉소셜 창업 10대 경향 개관76
〈표 3-2〉서울시 주요 코워킹 공간 개요 ······89

〈표 3-3〉미국 내 주요 엑셀러레이터 기업(2012) ······97

〈표 3-4〉엑셀러레이터와 창업보육센터의 비교	98
〈표 3-5〉 중기청 한국형 엑셀러레이터 지정 기업	<b>)</b> 9
〈표 3-6〉 크라우드펀딩의 분류 및 사례 ······10	)7
〈표 3-7〉국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업체 ······11	10
〈표 4-1〉서울시 대상별 일자리 예산(2012)11	17
〈표 4-2〉서울시 운영 창업지원센터 현황 ······11	18
〈표 4-3〉서울시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내용 ······12	21
〈표 4-4〉서울시 창업지원 과정 ······12	21
〈표 4-5〉서울시 청년창업지원 모집분야 및 업종 ······12	21
〈표 4-6〉서울시 청년창업 활동비 지급 내용12	22

# 그림목차

〈그림 1-1〉연구 흐름도8
〈그림 2-1〉청년창업의 장벽과 주요 정책영역15
〈그림 2-2〉서울시 경제활동인구조사 현황 도해17
〈그림 2-3〉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추이(2000~2011)18
〈그림 2-4〉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19
〈그림 2-5〉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추이(2000~2011)20
〈그림 2-6〉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21
〈그림 2-7〉서울시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1)22
〈그림 2-8〉서울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추이(2000~2011)23
〈그림 2-9〉서울시 고용률 추이(2000~2011)24
〈그림 2-10〉서울시 청년층의 고용률 격차 추이(2000~2011)25
〈그림 2-11〉서울시 취업자수 추이(2000~2011)26
〈그림 2-12〉서울시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27
〈그림 2-13〉서울시 실업자수 추이(2000~2011)28
〈그림 2-14〉서울시 실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29
〈그림 2-15〉서울시 실업률 추이(2000~2011)
〈그림 2-16〉서울시 청년층의 실업률 격차 추이(2000~2011)31
〈그림 2-17〉서울시 신설법인수 추이(2003~2011)39
〈그림 2-18〉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3~2011)41
〈그림 2-19〉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수 비중 추이(2003~2011)43
〈그림 2-20〉 전국 청년층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8~2011) $$ $$ $$ $$ $$ $$ $$ $$ $$ $$
〈그림 2-21〉 전국 청년층 산업별 신설법인수 비중 추이(2008~2011)45
〈그림 3-1〉가벼운 창업과 소셜 창업71
〈그림 3-2〉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류

〈그림 3-3〉학생창업멘토링 디딤돌83
〈그림 3-4〉고벤처포럼, 소셜벤처포럼, 사회적 기업가 포럼 ······86
〈그림 3-5〉위즈돔(Wisdome) (http://wisdo.me/)
〈그림 3-6〉온오프믹스(OnOffMix) (http://www.onoffmix.com/) ·······87
〈그림 3-7〉서울시내 코워킹 공간 위치88
〈그림 3-8〉서울시내 코워킹 공간 사례 ······88
〈그림 3-9〉서울시내 첨단 공방형 생산 공간 위치95
〈그림 3-10〉서울시내 첨단 공방형 생산 공간 사례%
〈그림 3-11〉서울시내 주요 엑셀러레이터 위치 ······99
〈그림 3-12〉국내 민간 창업지원 생태계 조감도100
〈그림 3-13〉불광동 사회혁신파크와 도곡역 여성창업플라자 ·······105
〈그림 3-14〉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조 ······108
〈그림 4-1〉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발전과정116
〈그림 4-2〉서울시내 창업지원센터 현황 ······118
〈그림 4-3〉서울시 창업지원 업무체계119
〈그림 4-4〉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역별 현황 ······122
〈그림 4-5〉서울시 창업모니터링 프로그램 체계123
〈그림 4-6〉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개요 ······124
〈그림 4-7〉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방향 ······127
〈그림 4-8〉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개선방안 개요 ······129

#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제 집 정 연구개요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청년실업이 전 세계적인 문제(ILO, 2013; OECD, 2012)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청년실업의 대책 중 하나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정책적 우선순 위를 부여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청년실업률인 16.2% 보다 낮은 9.6%를 기록!)
  - -비록 OECD 평균보다 낮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10% 대를 유지하고 있 어 청년실업의 구조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
  - -한국에서 청년실업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를 전후해서였으나 실제 청년창업 정책은 200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전 후하여 본격적으로 등장
- 0서울시 청년층의 취업난은 전국에 비해서도 열악한 편이며 이는 대학 교육 의 중심지이자 고용 기회가 높은 대도시로서 서울에 청년층을 이끄는 유인

<sup>1)</sup> OECD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 청년의 기준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5~29세가 아닌 15~24세임.

- 이 존재하기 때문
- -2011년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 4.6%를 훨씬 상회하며 이는 전국 청년실업률보다도 약 1% 높은 수치
- -서울은 2010년 기준으로 1979~1992년에 태어난 에코세대의 23%인 223 만 명이 집적한 에코세대의 국내 최대 집적지(통계청. 2012b)
- -에코세대는 2013년을 기점으로 20~35세인 세대로 청년기를 지나고 있으며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에 비해 고학력, 전문가 지향 특징을 보여 서울로의 집적을 설명
- ○서울시는 창업 생태계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청년창업의 지원을 위해 독자 적인 공공지원 창업 생태계의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차츰 한계를 노정하는 단계에 도달
  - -2009년 지자체 최초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공식화하였고 이후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이 프로젝트를 모 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
  - -기본적인 사업내용은 매년 1,000개의 청년창업 예비팀 지원을 목표로 서울시 독자적인 지원 체계를 완비하는 것
  - -하지만 최근 들어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해당 사업은 이제 수량적 지원에 치우친 폐쇄적인 체계에 머 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민관 양쪽에서 표출
  -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조응하는 공공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 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행정적 대비 는 아직 미비한 상태
-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의 발전은 새로운 개방적, 협력적 창업 형태인 '소셜(Social)' 창업이 창업의 주요한 경로로 등장하면서 가능해졌다는 평가 —이러한 새로운 창업 형태에 대한 이해나 정책적 수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정책방안 및 수단으로 확립된 사례는 극소수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층 고용과 창업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소셜 창업 방식 및 형태의 주요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함의가 있는 주요 경향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

#### 2. 연구목적

- ○서울시 청년실업의 구조화 경향 심화, 이에 따른 기존 청년창업 정책 패러 다임의 한계 노정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근 민간 청년창업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성공 적인 창업 전략으로 떠오른 소셜 창업을 활용한 정책 대안의 발굴과 효과 적인 기존 청년창업 정책과의 접목 방안 수립이 필요
  - -그러나 소셜 창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나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셜 창업은 산발적인 사례로 막연하게 지칭되고 있을 뿐 정책적으로 유의미 한 경향이나 정형화된 특성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청년창업 및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에서 부상하는 소셜 창업의 경향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소셜 창업을 통한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 이를 위해 첫째로 서울시 청년층 고용과 청년창업의 주요 특성 분석을통해 서울시 청년창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 -둘째로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새로운 창업 방식인 소셜 창업 의 배경과 의의를 개념화하여 현재 주요한 소셜 창업의 경향을 도출
  - -셋째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셜 창업을 통한 기존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안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1.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청년창업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새로운 형태의 창업 사례 문헌조사를 통해 청년창업의 주요 이슈와 추세를 파악하여 이론적 틀을 정립
- ○통계분석
  - -정부공식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와 여타 기관 자료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등)를 활용해 서울시 청년층의 실업, 고용 및 창업 행태 분석
- o자문회의
  - -청년층 창업관련 전문가, 정책 담당자 및 민간 창업 사업자 등과의 자문 회의 개최
- ○사례연구 및 심층인터뷰
  - -새로 등장하는 창업 사례와 관련된 기관 및 업체(씨즈, D.Camp, 벤처스 퀘어, 청년허브 등) 사례연구 및 방문을 통한 심층인터뷰 실시
- ㅇ공동연구
  - -서울시 산업 및 직업 추세 분석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 고용정보 원과, 민간 창업 지원 생태계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업체인 벤처스퀘 어와의 의견교환 및 원고위탁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 2. 연구범위

○기존의 유사 연구는 산업별 창업 혹은 청년창업 일반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방안에 한정

- -현황 및 추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창업방식의 청년층 적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김안국 외, 2010; 양현봉·박종복, 2011: 박동 외, 2010)
- ㅇ이 연구는 새로 등장하는 창업 방식인 소셜 창업에 기반을 둔 청년창업 지 원수단 발굴에 보다 중점을 두어 기존의 유사 연구와 차별화
  - -창업에서 개인의 부담과 위험을 사회적, 사교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경감 해줄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자발적, 자생적 창업 방식 등장
  - -개인의 역량, 공공의 지원이라는 기존 창업 정책 구도에서 실행공동체 혹은 산업생태계를 통한 협력이라는 제3의 정책 방향 고려 가능
- ㅇ이에 따라 이 연구는 연구개요-서울시 청년실업 및 창업 현황-청년창업의 신경향분석-활용방안의 총 4장으로 구성
  - -제1장은 연구개요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논의
  - -제2장은 청년창업의 정의와 관련 개념을 논의하고 서울시 청년실업 및 청년창업의 주요 동향과 추이, 그리고 미래 유망 업종과 산업을 분석
  - -제3장은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청년창업 방식인 소셜 창업의 개념을 논의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10개의 주요 신경향을 추출
  - -제4장은 기존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셜 창업과의 접목을 꾀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

연구개요					
연구배경 및 목	적	연구방법 및 범위			
서 <del>울</del> 시	청년층 고용	- 및 청년창	업 현황		
청년창업 개념 정의	청년층 고용과 청년창업 동향 및 추이 분석		미래 유망 업종 및 직종 분석		
	청년창업 신	· 년경향 분석			
소셜 창업 개념 정의		소셜 창업 10개 주요 경향 도출			
소셜 창업 방식 <del>활용</del> 방안 제안					
서울시 기존 청년창업 정책 개관 및 평가	향후 서울시 정책 방		소셜 창업 방식을 통한 서울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제시		

〈그림 1-1〉 연구 흐름도

# 제2장 서울시 청년창업 특성과 문제점

제1절 청년창업의 정의와 정책영역 제2절 서울시 청년층 고용 및 청년창업 현황 제3절 미래 유망 업종 및 직업 탐색

# 제 2 장 서울시 청년창업 특성과 문제점

#### 제1절 청년창업의 정의와 정책영역

#### 1. 청년창업의 정의

#### 1) '청년'의 정의

- ○한국 법제상 '청년'은 통상적으로 29세 이하인 젊은이를 지칭
  - -대표적인 청년창업 관련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에서 청년의 연령 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
  - -서울시도 유사하게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 한 조례'에서 이를 18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
- ○실제 사업 시행 시 '청년'의 정의는 39세 이하까지를 포괄하는 경우가 다수
  - -중앙정부의 청년전용창업 자금 지원 등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 청년의 자격은 만 39세 이하
  - -서울시의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등에서도 청년을 20~30대로 규정
- ○최근 청년의 정의를 30대 중반까지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대두
  - -올해 4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공공기관 3% 고용의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 한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30대 미취업자의

-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2)
- -최근 논란은 있으나 30대 역차별론을 수용하여 청년의 나이 제한 상한선을 만 34세로 늘리는 개정안이 마련3)
- ○국제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이와 반대로 보다 낮은 연령층, 즉 15세 이상 24세 미만
  - -OECD, ILO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청년의 정의는 15~24세이며, EuroStat 등의 국제 통계에서도 청년통계 작성 시 이 나이대가 청년의 기준(OECD, 2012; ILO, 2013)
-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법령상의 청년 정의를 따라 15~29세의 젊 은이를 청년으로 정의
  - -다만 부분적으로 국제 비교에서는 통계상의 호환 문제로 국제 기준인 15~24세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 불가피

#### 2) '창업'의 정의

- ○'창업'은 법제상으로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의미
  - -대표적인 창업 관련법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은 새로운 중 소기업의 설립으로 규정
- ○통상적으로 창업은 기업설립뿐만 아니라 가게나 매장의 '개장'을 포함(이 신모, 2011)
  - -회사가 아니라 자영업 형태의 사업체, 즉 가게, 지점, 분점 혹은 프랜차 이즈 매장의 개장까지를 광의의 창업으로 통칭
  - -최근에는 회사가 아닌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의 인가나 설립까지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추세

<sup>2)</sup> 조윤호, 201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0대 역차별' 논란", 미디어오늘 2013.05.05.

<sup>3)</sup> 이지훈·홍선표, 2013, "'역차별논란' 청년고용촉진법, 나이제한 29세 → 34세로 확대", 한국경 제신문 2013.07.02.

- ○창직(創職)은 법정개념이라기보다 '혁신적인 창업'을 '직업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개념화하는 조어
  - -창업진흥원의 '청년 창직 인턴제'와 같이 창업과 직업을 연결하려는 취 지의 사업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 ㅇ이 연구에서의 창업은 기업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체 의 개장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
  - -흔히 자영업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점, 도소매업 등은 사업체의 개장을 제외하고 창업 논의를 전개하기가 곤란

#### 2. 청년창업의 정책영역

#### 1) 청년 실업의 문제와 청년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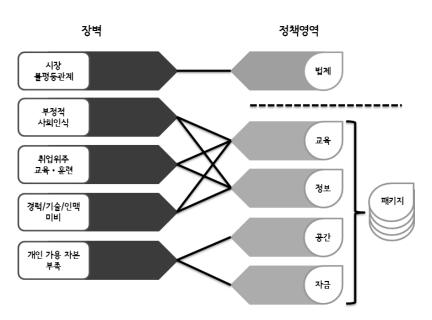
- ○장기화. 구조화된 청년실업은 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선택을 제약(박 동, 2013; 양현봉·박종복, 2011)
  - -청년 시기의 경력 단절은 최근 경력직 우대 추세와 함께 청년세대 빈곤 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 -이어 청년층의 자기실현, 사회화, 삶의 질 추구 등이 제약되면서 그 반대 급부가 사회문제로 표출
- ○또한, 장기화, 구조화된 청년실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쇠락의 주원인 으로 기능(이신모, 2011)
  - -고학력자의 실업예비군화와 하향 취업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인력자 워의 누수 현상을 유발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저하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이 상실되어 장기 적인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상존
- ○청년창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청년실업난 해소의 가장 구체적인 대안 중의 하나

-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만능 해법이 없어 단일 정책에 천착하기 보다 가능한 대응정책을 모두 구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합의 존재 (ILO, 2013; OECD, 2012)
- -청년창업은 청년취업의 대안이라기보다 기존 청년취업의 활성화로 해결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영역을 일부 담보

#### 2) 청년창업의 장벽과 주요 정책영역

- 청년창업은 창업 자체가 가진 어려움에 더해 청년층이 가진 역량의 제한이 장벽으로 작용하여 보다 어려운 상황(OECD, 2012)
  - -시장 불평등 관계: 금융 대출, 시장 판매에서 청년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진입비용은 낮으나 경쟁은 치열한 산업에서 창업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
  - -부정적 사회인식 : 청년의 주변인들은 창업의 조건이나 기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만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 -취업 위주의 교육과 훈련 : 통상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은 보통 취업을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창업에 필요한 태도나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은 충분치 않은 현실
  - -경력, 기술, 인맥의 미비: 창업에 직업 혹은 창업 경험이 중요하나 청년 층은 이런 경험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여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 연줄망, 숙련이 부족
  - -개인 가용 자본 미비 : 초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한 예비창업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나 청년은 자체 저축도 많지 않은데다 신용도 높지 않아 외부 금융을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청년창업 관련 정책은 이러한 장벽의 무게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크게 다음의 5가지 정책영역에서 시행되는 추세

- -법제: 흔히 국내에서 동반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 불평등 관계의 해 소에서는 다른 정책 영역보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 으로 간주되며,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주효
- -교육과 정보 : 부정적 사회인식의 개선, 취업이 아닌 창업에 필요한 교육 과 훈련, 경력, 기술, 인맥의 습득과 배양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은 크게 교육과 정보 정책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청년창업의 장벽
- -공간과 자금 : 청년층의 창업에서 부족한 자본은 직간접적 자금 지원과 저렴한 공간의 제공 등을 통해 공간과 자금 정책영역에서 보완하는 정책 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
- -패키지:특히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책의 시행보다 교육, 정보, 공간, 자금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는 인식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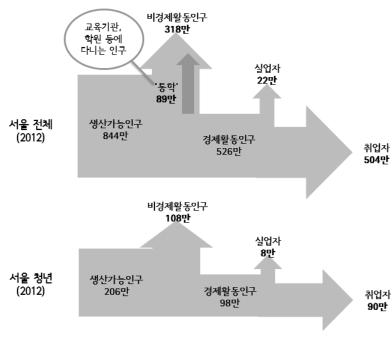
〈그림 2-1〉 청년창업의 장벽과 주요 정책영역

# 제2절 서울시 청년층 고용 및 청년창업 현황

# 1. 서울시 청년층 고용 현황

### 1) 경제활동인구의 개념

- ○서울시의 청년층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 지표들을 분석
  -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전체
  - '경제활동인구'는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
    -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14~15세 이상의 인구 중 학생 주부 환자 등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인구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 '고용률' 혹은 취업인구 비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 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
- ○청년층은 앞 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 15~29 세 사이를 청년으로 구분하여 분석
- ○이상의 내용을 서울시 2012년 기준으로 도해한 것이 다음의 <그림 2-2>
  - -서울 전체로 보았을 때 생산가능인구 844만 명에서 비경제활동인구 318 만 명을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는 526만 명이며, 다시 여기서 실업자 22 만 명을 제외한 504만 명이 서울시 취업자
  - 서울 청년층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생산가능인구 206만 명에서 비경제활동인구 108만 명을 제외한 98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이며,다시 여기서 실업자 22만 명을 제외한 90만 명이 서울시 청년 취업자



〈그림 2-2〉서울시 경제활동인구조사 현황 도해

- ㅇ서울시의 청년층 고용 현황의 간략한 도해를 살펴보기만 해도 청년실업의 문제가 단적으로 표출
  - -서울시 청년실업자는 8.2만 명 정도로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 보험연 금업 종사자 전체(약 8.6만 명)와 유사한 규모
  - -무엇보다 고용예비군 격인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를 초과하는 청년층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상당수의 청년이 교육기관이나 학원 등을 다니는 시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때문
  - -만약에 현재 44% 정도인 고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다고 해도 최소 13만 명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기업에서 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이 함께 추진되어도 달성이 곤란한 수준

## 2)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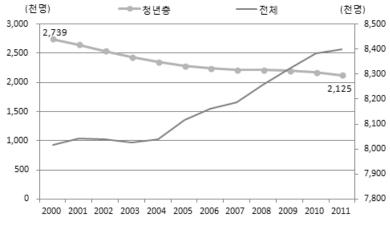
### (1) 생산가능인구

- ○서울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03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이 중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연속으로 감소
- ○15세 이상 전체 인구는 8,015천 명에서 8,339천 명으로 4.04%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2,739천 명에서 2.125천 명으로 28.89% 감소

(표 2-1)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추이(2000~2011)

(단위 : 천 명)

연령계층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8,015	8,042	8,038	8,027	8,039	8,115
청년층	2,739	2,644	2,533	2,429	2,350	2,283
연령계층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8,161	8,187	8,258	8,322	8,384	8,399
	2,239	2,211	2,210	2,195	2,167	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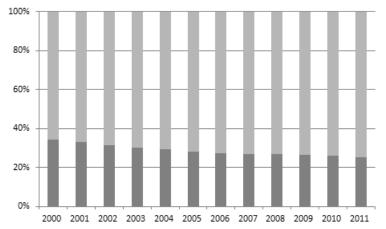
〈그림 2-3〉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추이(2000~2011)

- ○청년층의 감소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 시 감소
  - -2000년 34.2%에서 2011년 25.3%로 8.9%나 감소
  - -2000년 이후로 2011년까지 한 번의 증가 없이 계속 감소

(표 2-2)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4.2	32.9	31,5	30.3	29.2	28.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7.4	27.0	26.8	26.4	25.8	25.3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그림 2-4〉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 (2) 경제활동인구

-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난 반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 감소
  - -경제활동인구수는 신용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과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8~2009년 일시적 감소 외에는 전체적으로 증가세였 던 반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일정 비율로

####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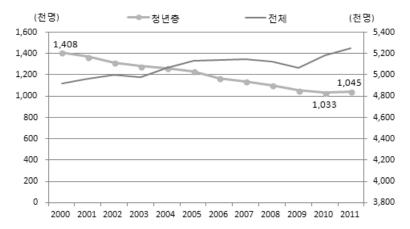
-2010년까지 10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반등

(표 2-3)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추이(2000~2011)

(단위: 천명)

연령계층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4,917	4,965	4,999	4,981	5,068	5,135
청년층	1,408	1,370	1,314	1,281	1,263	1,235
연령계층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5,138	5,148	5,122	5,064	5,180	5,252
청년층	1,166	1,138	1,102	1,053	1,033	1,045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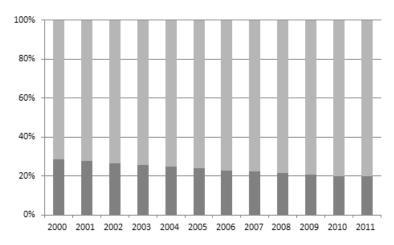
〈그림 2-5〉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추이(2000~2011)

- ○청년층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부터 2011년 까지 꾸준히 감소
  - -2011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다소 늘어났으나,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이보다 높아 실질적 비중은 감소

(표 2-4)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8.6	27.6	26.3	25.7	24.9	24.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2.7	22.1	21.5	20.8	19.9	19.9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그림 2-6〉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 (3)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은 청년층과 전체 평균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큰 차이를 기록
  - -청년층이 15세에서 29세 사이로, 학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
-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11년간 큰 변화가 없음
  - ─평균적으로 60%를 넘었으며, 최소가 2009년의 60.8%, 최대가 2005년의 63.3%로, 격차는 2.5%에 불과
- ○반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보다 변화의 폭이 큼
  - -2005년까지 비교적 증가추세였으나, 2005년 54.1%로 최대값을 보인 후,

### 2010년까지 계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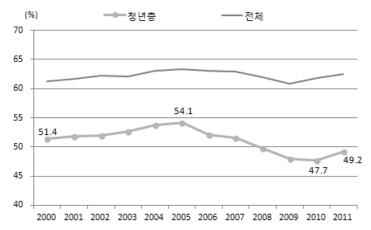
- -2011년에는 다시 반등하였으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6.4%
- ○참고로 서울시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4%가량 높은 것 으로 나타남

(표 2-5)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1)

(단위:%)

연령계층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61.3	61.7	62.2	62.1	63.0	63,3
청년층	51.4	51.8	51.9	52.7	53.8	54.1
연령계층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63.0	62.9	62.0	60.8	61.8	62,5
청년층	52.1	51.5	49.8	48.0	47.7	49.2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그림 2-7〉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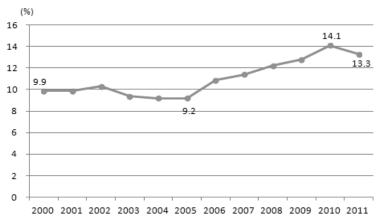
○청년층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 또한 2005년까지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6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0년 최대 14.1%의 차이 를 보임

- -2011년에는 전년(14.1%) 대비 격차가 다소 줄어든 13.3%였음
- -2005년이 9.2%로 차이가 가장 작았음

(표 2-6)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추이(2000~201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9.9	9.9	10.3	9.4	9.2	9.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9	11.4	12.2	12.8	14.1	13,3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그림 2-8〉서울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추이(2000~2011)

### (4)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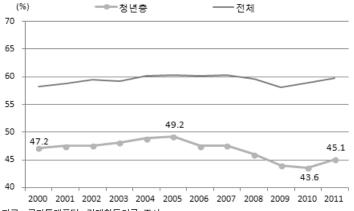
- ○실제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와 비슷한 패턴으로,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까지 주로 증가하다 2010년까지 감소 후 2011년 에 반등
  - -전체 고용률은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 상승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청년층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점은 43.6%인 2010년이었으며, 가장 높았 던 시점은 49.2%인 2005년
  - -최대값과 최소값의 격차는 5.6%

〈표 2-7〉 서울시 고용률 추이(2000~2011)

연령계층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58.2	58.8	59.5	59.2	60.1	60,3
청년층	47.2	47.5	47.6	48.1	48.9	49.2
연령계층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60.1	60.3	59.6	58.1	58.9	59.7
청년층	47.5	47.6	46.0	44.0	43,6	45.1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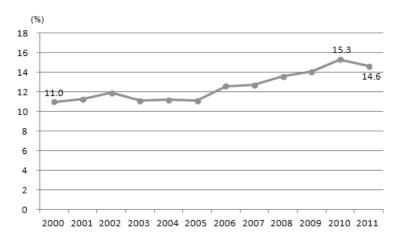
〈그림 2-9〉 서울시 고용률 추이(2000~2011)

- ○전체 고용률과 청년층 고용률은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 평균보다 10% 이상 떨어짐
  - -고용률 격차 역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졌다가 2011년 소폭 감소
  - -차이가 가장 컸던 때는 15.3%인 2010년이었으며, 가장 작았던 때는 11.0%인 2000년

(표 2-8) 서울시 청년층의 고용률 격차 추이(2000~201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1.0	11,3	11.9	11,1	11.2	11,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2,6	12.7	13.6	14.1	15.3	14.6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그림 2-10〉 서울시 청년층의 고용률 격차 추이(2000~2011)

### (5)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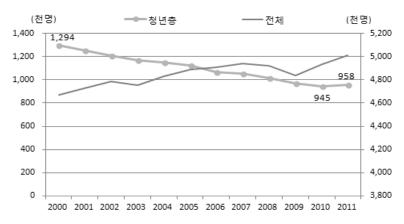
- ○서울시 전체 취업자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이나, 청년층 취업자수는 뚜렷한 감소세
  - -전체 취업자수는 2003년과 2008년, 2009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2년 간을 비롯해 증가세인 반면, 청년층 취업자수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11년에 소폭 증가
  - -2000~2011년 사이 청년층의 취업자수 감소율은 최대 26.0%

#### 〈표 2-9〉 서울시 취업자수 추이(2000~2011)

(단위 : 천 명)

연령계층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4,668	4,727	4,783	4,753	4,831	4,890
청년층	1,294	1,255	1,206	1,167	1,149	1,124
연령계층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4,906	4,940	4,922	4,835	4,936	5,012
청년층	1,063	1,053	1,017	967	945	958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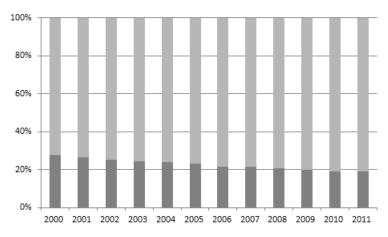
〈그림 2-11〉 서울시 취업자수 추이(2000~2011)

- ○취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7.7%에서 2011년 19.1%로 지속적으로 감소
  - -같은 기간에 8.6%나 하락

(표 2-10) 서울시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7.7	26.5	25.2	24.6	23.8	23.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1.7	21.3	20.7	20.0	19.1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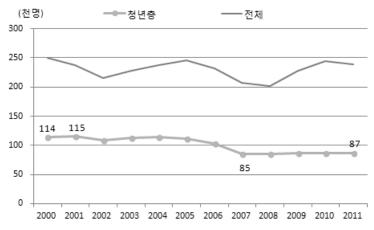
〈그림 2-12〉 서울시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 ○서울시 전체 실업자수는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자수는 2007 년 이후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
  - -서울시 전체 실업자수는 2000년 가장 많은 250천 명이었으며, 2008년 201천 명까지 떨어졌으나, 증감을 거듭하여 2011년 기준으로 4.4% 감소한 239천 명을 기록
  - -서울시의 청년층 실업자수는 2007년까지 대체로 감소세였으나, 이후로 2011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상태

〈표 2-11〉 서울시 실업자수 추이(2000~2011)

(단위 : 천 명)

연령계층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250	237	216	228	237	246
청년층	114	115	109	113	114	111
연령계층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32	207	201	228	244	239
청년층	103	85	85	87	87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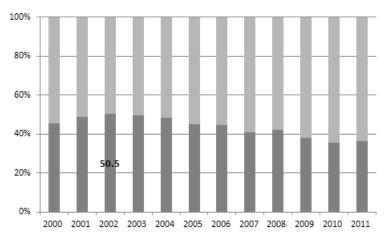
〈그림 2-13〉 서울시 실업자수 추이(2000~2011)

- ○서울시 전체 실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었으나 2009 년 이후 30% 대까지 떨어진 상황
  - -청년층 실업자수는 2002년에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5%에 달하였으나,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
  - -2009년엔 38.2%로 2000년대 들어 처음 30% 대로 떨어졌으며, 2010년에 는 가장 적은 35.7%를 기록해 최고점 대비 14.1%가 감소함
  - -2011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한 36.4%를 차지

(표 2-12) 서울시 실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5.6	48.5	50,5	49.6	48.1	45.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4.4	41.1	42.3	38.2	35.7	36.4



〈그림 2-14〉 서울시 실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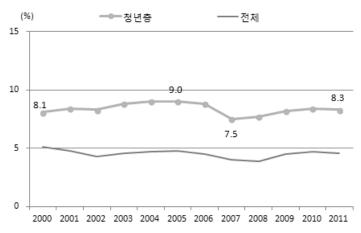
〈표 2-13〉 서울시 실업률 추이(2000~2011)

(단위:%)

연령계층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5.1	4.8	4.3	4.6	4.7	4.8
청년층	8.1	8.4	8.3	8.8	9.0	9.0
연령계층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4.5	4.0	3.9	4.5	4.7	4.6
청년층	8.8	7.5	7.7	8.2	8.4	8.3

- ○전체 실업률 평균은 2000년 5%가 넘었으나 이후 4% 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8% 대를 기록하고 있음
  - -전체 실업률은 2008년 최저인 3.9%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2011년 기준 4.6%를 기록
  - -청년층 실업률은 이보다 약 3~4%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가장 높았을 때가 9.0%인 2004년, 가장 낮았을 때가 7.5%인 2007년으로 나타나 그 격차는 1.5% 수준임

-2007년까지 조금씩 낮아지던 청년층 실업률은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하 여 2011년에 8.3%로 2000년 초반과 비슷한 수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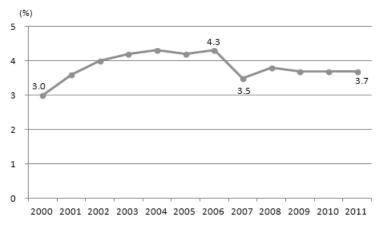
〈그림 2-15〉 서울시 실업률 추이(2000~2011)

- ○전체 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의 격차는 3~4% 정도로, 청년층 실업률이 평 균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남
  - -격차가 가장 크지 않았던 시점은 2000년으로 3.0% 정도였으나, 2006년엔 4.3%까지 벌어짐
  - -2007년 이후의 실업률 격차는 큰 변화 없이 3.7% 선을 유지

(표 2-14) 서울시 청년층의 실업률 격차 추이(2000~2011)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0	3.6	4.0	4.2	4.3	4.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3	3,5	3.8	3.7	3.7	3.7



〈그림 2-16〉 서울시 청년층의 실업률 격차 추이(2000~2011)

### 3) 서울시 청년층 취업자 감소요인 분해

-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본 결과, 경제 전반에 걸쳐 활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선,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와 비중 또한 낮아짐
  -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였으며, 청년층과 전체 평균 경제활 동참가율의 격차가 심화됨
- 청년취업자 함수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요인 을 찾아낼 수 있음
  - -취업자수는 청년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의 세 가지 지표 간의 함수로, 생산가능인구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등 각각의 요인을 분해해 분석함으로써 청년취업자 감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알아낼 수 있음4)

<sup>4)</sup> 노동부(2009)의 요인분해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 〈OECD 청년실업률 국가 비교〉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수준
  - 2011년 기준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인 16.2%보다 낮은 9.6%
  - OECD 34개 국가 중 6개 국가(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

#### 〈청년실업률〉

(단위:%)

국가	2009	2010	2011
호주	11,5	11,5	11,3
오스트리아	10,0	8,8	8.3
벨기에	21,9	22,4	18.7
캐나다	15,2	14,8	14,1
칠레	22,6	18,6	17.5
체코	16,6	18,3	18.0
덴마크	11,8	14,0	14.2
에스토니아	26,8	32,0	21.6
핀란드	21,6	20,3	18.9
프랑스	23,2	22,9	22.1
독일	11,0	9.7	8.5
그리스	25,8	32,9	44.4
헝가리	26,5	26,6	26.1
아이슬란드	16,0	16,2	14.6
아일랜드	25,9	28,7	30.3
이스라엘	14.6	13,7	11.6
이탈리아	25,4	27.9	29.1
일본	9,1	9,2	8.0
한국	9,8	9,8	9.6
룩셈부르크	17,2	14,2	16.8
멕시코	10,0	9.4	9.8
네덜란드	7,7	8.7	7.7
뉴질랜드	16,6	17,1	17.3
노르웨이	9,2	9,3	8.6
폴란드	20,7	23,7	25.8
포르투갈	20,0	22,3	30.1
슬로바키아	27,3	33,6	33,2
슬로베니아	13,6	14,7	15,7
스페인	37,9	41,6	46.4
스웨덴	24.8	25,2	22,9
스위스	8.4	7,8	7.7
터키	25,3	21,7	18.4
영국	19,0	19,3	20.0
미국	17,6	18,4	17.3
OECD 전체	16,7	16,7	16,2

자료: OECD Statistics

#### 〈세계대도시권 청년실업률 비교〉

- 기준: 국제적으로 청년실업의 기준 연령은 15~24세
  - 국내 청년실업 기준은 15~29세인 반면, OECD 등 국제기구의 청년실업 기준 은 15~24세
  - 국제 비교를 위해 15~24세를 기준으로 국내 통계를 재가공하여 비교
- 비교 단위: 국제 도시 비교는 고란하지만 대도시권 수준의 통계 구득은 가능
  - 국가 단위 청년실업통계는 구득이 용이하나 도시별 청년실업 통계는 구득이 곤란
  - 대도시권 수준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청년실업통계의 공간적 범위 한계
  - 비교는 수도권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병기
- 결과:전반적으로 대도시권이 국가 첫년실업률을 상회하는 추세
  - 대도시권의 청년실업률은 대도시권이 속한 국가 청년실업률을 상회
    - 프랑스를 제외하면 비교 대상 국가 전체에서 같은 추세 관측
    - 서울도 서울만으로는 낮지만, 수도권 대상일 경우 같은 추세
  -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취업 기회가 대도시권 청년실업률이 높은 주요 원인 • 취업 기회가 많아 실업 상태를 견디며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층 집적
  - 통계상 서울의 청년실업률이 한국보다 낮은 원인은 대학과 대학생의 집적
    - 대학생은 별도의 구직 활동이 없는 경우 실업률 통계에서 배제
    -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 대에 달하고. 서울에 전체 대학과 대학원의 약 29% 밀집

#### 〈국가-대도시권 청년실업률 비교(2011)〉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十八		17.3			23.0
	LA	시카고	뉴욕	런던	일드프랑스*
대도시권	23.1	24.4	22.0	24.2	19.2

국가	캐나다	이탈리아	터키	한:	국
五八	14.1	29.1	16.7	9.	6
	토론토	라지오**	이스탄불	서울	수도권
대도시권	16.0	33.7	18.2	8.6	10.1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EuroStat, OECD Statistics, Toronto Region Board of Trade(2013) Toronto as a Global City 등

\* 파리 광역권, \*\* 로마 광역권

- ○청년취업자수 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분해할 수 있음
  - -청년취업자수(E)는 청년생산가능인구(P)와 청년경제활동참가율 $(\frac{L}{P})$ , 취업률 $(\frac{E}{L})$ 의 곱으로 표현 가능
  - -이는 청년생산가능인구(P)와 고용률 $(\frac{E}{P})$ 의 곱과도 같음

$$E = P \times \frac{L}{P} \times \frac{E}{L}$$
$$= P \times \frac{E}{P}$$

E: 청년취업자수

P : 청년생산가능인구

L : 청년경제활동인구

 $\frac{L}{P}$ : 경제활동참가율

 $\frac{E}{L}$ : 취업률

 $\frac{E}{P}$ : 고용률

-위의 식을 증가율의 함수로 변환하면 청년 취업자 증가율은 청년생산가 능인구 증가율과 청년경제활동참가율 증가율, 청년취업률 증가율의 세지표 각각의 합으로 바꿀 수 있음

$$\begin{split} \dot{E} &= \dot{P} + \left(\frac{\dot{L}}{P}\right) + \left(\frac{\dot{E}}{L}\right) \\ &= \dot{P} + \left(\frac{\dot{E}}{P}\right) \end{split}$$

· E : 청년취업자수증가율

 $\stackrel{\cdot}{P}$  : 청년생산가능인구증가율

 $\frac{L}{P}$ : 청년경제활동참가율증가율

 $\frac{E}{L}$ : 청년취업률증가율

 $\frac{E}{P}$ : 청년고용률증가율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 요인을 모두 분해하면 <표 2-15>와 같음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12년 동안의 증가율을 분석

〈표 2-15〉 서울시 청년층 취업자 감소 요인 분해(2000~2011)

(단위:%)

연도	취업자수 증가율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율	취업률 증가율	고용률 증가율
2000	3,025	-1,969	2,390	2,586	5.094
2001	-3.014	-3,468	0.778	-0.324	0.471
2002	-3,904	-4.198	0.193	0.191	0,307
2003	-3,234	-4.106	1,541	-0.741	0.909
2004	-1,542	-3,252	2,087	-0.139	1,767
2005	-2.176	-2,851	0.558	0.042	0,695
2006	-5.427	-1.927	-3,697	0.169	-3,569
2007	-0.941	-1,251	-1.152	1,497	0.314
2008	-3,419	-0.045	-3,301	-0.264	-3.375
2009	-4.916	-0,679	-3,614	-0.492	-4.267
2010	-2,275	-1,276	-0.625	-0.383	-1.012
2011	1,376	-1,938	3,145	0,212	3,379

- ○청년취업자수는 2000년에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음 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감소율이 가장 컸던 해는 -5.4%인 2006년이었으며, 이후에도 감소세가

- 이어졌으나 10년 만인 2011년에 증가세로 전환
- ○청년취업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분해 요인 추세를 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외에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 부진, 기업 고용 축소 등의 다른 요인이 시간에 따라 중첩되는 양상
  -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은 2000~2011년 모두 마이너스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청년취업자수 감소의 지속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2000대 초반의 주요 요인일 뿐 200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청년취업자수 감소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경제활 동참가율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경향
  - -이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저해하는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암시
  -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는 기업들이 실제 고용을 축소하여 취업률 자체도 감소하는 추세도 관찰
  - -2011년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청년취업자수 감소의 단독 요인으로 다시 등장하여 청년고용의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
- ○관련하여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경력직 채용 확산이 국내 고용시 장의 특징으로 정착한 데에서 청년층 취업 감소의 원인을 찾는 논의 존재
  - -1996년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경력직 채용은 전체 고용의 34.8%에 그쳤 으나 2011년에는 그 2배가 넘는 81.5%를 기록
- ○최근 5년간 경력직 채용 추이는 전국, 서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 ─전국 경력직 채용 비중은 2007년 75.7%에서 2010년 80%를 넘어 2011년에는 81.5%로 증가
  - -같은 기간 서울의 경력직 채용 비중은 전국 비중을 하회하기는 하였으 나, 73.2%에서 77.9%로 증가

(표 2-16) 전국 및 서울의 경력직 채용비중 추이(2007~2011)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75.7	77.5	76.5	80.8	81.5
 서울	73,2	74.5	74.6	78.0	77.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에서 계산

- ○수적으로도 경력직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신규채용은 답보상태 이며, 서울의 경우에도 경력직 채용이 채용 증가의 주요 동력
  - -채용은 전국적으로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서울의 채용은 2009년(165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201만 명)까지 다시 반등하는 형 세를 보이는 차이가 존재
  - 전국적으로 신규채용은 지난 5년간 매년 110만 명 정도에 그친 반면, 경 력직 채용은 2007년 351만 명에서 2011년에는 484만 명으로 증가
  - -서울의 신규채용은 2007년 50만 명에서 2010년 40만 명을 저점으로 하 여 2011년에는 44만 명까지 회복하는 추세
  - 반면 서울의 경력자 채용은 2007년 139만 명에서 2009년 123만 명까지 하 락했으나 2010년 이미 2007년 수준을 넘어서 2011년에는 156만 명을 기록

(표 2-17) 전국 및 서울의 경력별 채용 추이(2007~2011)

(단위 : 명)

전국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규	1,128,250	1,091,065	1,218,518	1,073,470	1,102,668
경력	3,514,011	3,747,801	3,958,532	4,527,923	4,844,292
전체	4,642,261	4,838,866	5,177,050	5,601,393	5,946,960
서울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신규	2007 507,338	2008 422,620	2009 418,708	2010 402,213	2011 443,37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이와 더불어 청년층에서도 경력 경로의 다양화를 위한 자발적 이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청년층(15~29세)에서 이직경험자 중 자발적 이직5) 비중은 2004년 55.4% 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61.4%를 기록

(표 2-18)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 비중 추이(2007~2012)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발적 이직 비중	55.4	57.8	58.7	59.4	59.6	59.4	60.3	59.4	61.4

자료: 통계청, 청년층부가조사 각 연도에서 계산

### 2. 청년창업 현황

### 1) 신설법인 동향

### (1) 서울시 전 산업 신설법인수

- ○서울시의 연도별 신설법인수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최근 상승세
  - -2003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2008년 최저인 18,133개를 기록한 후 2011년까지 3년 연속 상승
  - -2011년에는 22,486개로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 2003년의 22,448개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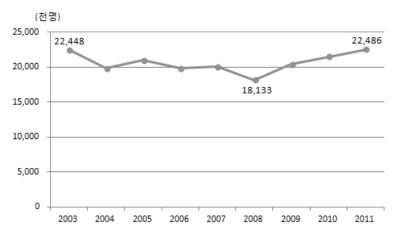
<sup>5)</sup> 정우진(2012)을 참고하여 전체 이직 사유 중에서 '근로 여건 불만족', '전망이 없어서',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이직한 경우를 여타 개인/가족적 이유,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과 구분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정의

〈표 2-19〉 서울시 신설법인수 추이(2003~2011)

(단위: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2,448	19,847	20,939	19,801	20,063	18,133	20,401	21,480	22,486

자료: 국가통계포털, 신설법인 동향



자료: 국가통계포털, 신설법인 동향

〈그림 2-17〉 서울시 신설법인수 추이(2003~2011)

○ 청년층 신설법인수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1,090개(53.8%)가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94개(9.4%) 감소 -연령별 신설법인수는 2008년부터 집계하기 시작

(표 2-20) 서울시 청년층 신설법인수 추이(2008~2011)

(단위:개)

2008	2009	2010	2011
2,027	2,417	3,117	2,823

- ○청년층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
  - -2008년 11.2%였던 청년층 신설법인수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났던 2010년 14.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12.6%로 1.9% 감소

〈표 2-21〉서울시 신설법인 중 청년층 비중 추이(2008~2011)

2008	2009	2010	2011
11,2	11.8	14.5	12.6

자료: 국가통계포털, 신설법인 동향

### (2)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수

- ○지역별, 산업별 신설법인수는 2003년부터 집계되었으나, 2008년에는 3월 부터 집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1~2월의 두 달간 결측이 발생
  - -따라서 서울시 전 산업의 지역별 신설법인수는 2003~2011년의 9년간 자료가 존재하나, 서울시 세부 산업별 신설법인수는 2003~2007년의 5년, 2009~2011년의 3년을 합한 8년치 자료만 존재
- ○산업은 크게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전기, 가스, 수 도사업', '서비스업'의 4개 산업으로 구성
  - -건설업은 2000~2007년의 8년간 명칭은 '건설 및 설비업'이며, 2008~ 2011년의 4년간 명칭은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 -2000~2007년 사이에는 '기타' 산업으로 분류된 항목이 있었으나 2008년 이후 분류 목록에서 제외
    - · 이는 표준산업 분류가 8차에서 9차로 개정되며 산업명이 바뀌었기 때 무으로, 2008년 1, 2월의 데이터가 없는 이유와도 일치
-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은 2003~2010년 사이 매해 신설법인수가 100개를 넘지 못했으나 2011년 153개로 증가
  - -2007년 27개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
-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2003년까지 4.066개나 되었으나, 2004년 1.66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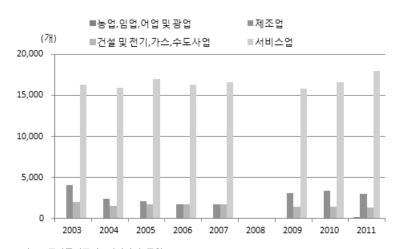
(40.9%)나 급감한 이후 2007년에는 1,715개까지 떨어짐

-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2010년에는 최대치인 3.369개의 신설법인이 생겨남
- -그러나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84개가 줄어든 2.985개 가 생겨나는데 그침

(표 2-22)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3~2011)

(단위:개)

산업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43	21	37	26	27
제조업	4,066	2,402	2,128	1,717	1,715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2,045	1,553	1,747	1,714	1,766
서비스업	16,294	15,871	17,027	16,344	16,555
산업	2008	2009	2010	2011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	80	95	153	
제조업	-	3,081	3,369	2,985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	1,402	1,462	1,368	
서비스업	-	15,838	16,554	17,980	



자료: 국가통계포털, 신설법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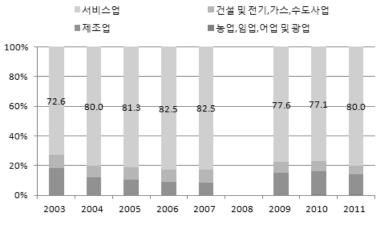
〈그림 2-18〉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3~2011)

-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은 2003년 이후 신설법인수가 지속 감소
  - -2010년 전년대비 60개가 늘어났으나 다음해인 2011년 다시 감소세 전환
  - -2011년에는 2003년 대비 33.1%가 감소한 1,368개
- ○서비스업은 신설법인수가 유일하게 2003년보다 증가한 산업으로, 2007년 까지 증감을 거듭하였으나, 2009년부터 2년 연속 증가
  - -2009년 최저인 15,838개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최대인 17,980개 의 신설법인이 생성
- ○신설법인수 비중은 4대 산업 중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크며,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산업은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없음
  - -서비스업 다음으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 사업도 5% 이상의 비중을 차지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 비중은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
  - -그러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인 2.9% 증가
- ○제조업은 2003~2007년 사이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나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소 회복되는 추세

### 〈표 2-23〉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수 비중 추이(2003~2011)

(단위:%)

산업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0.2	0.1	0.2	0.1	0.1
제조업	18.1	12.1	10.2	8.7	8.5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9.1	7.8	8.3	8.7	8.8
서비스업	72.6	80.0	81.3	82.5	82.5
산업	2008	2009	2010	2011	
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2008	2009	2010	2011	
	2008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2008 - - -	0.4	0.4	0.7	



〈그림 2-19〉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수 비중 추이(2003~2011)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의 신설법인수 비중은 2003~2007년 사이 크 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추세였으나 200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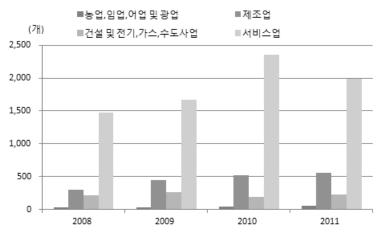
### (3) 청년층 신설법인수

- ○청년층의 산업별 신설법인수는 전국 단위 자료만 조사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 연도 대상
- ○청년층의 신설법인수 역시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제조업,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순

(표 2-24) 전국 청년층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8~2011)

(단위:개)

산업	2008	2009	2010	2011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37	31	43	53
제조업	301	453	524	562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217	261	198	225
서비스업	1,472	1,672	2,352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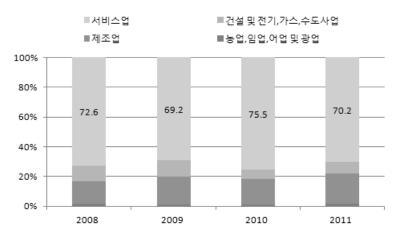
〈그림 2-20〉 전국 청년층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8~2011)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880개(59.8%)나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69개(15.7%)가 감소
- ○제조업의 신설법인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301개에서 2011년 562개로 86.7%나 급증
-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의 신설법인수는 증감을 거듭하며 비슷한 수 준 유지

(표 2-25) 전국 청년층 산업별 신설법인수 비중 추이(2008~2011)

(단위:개)

산업	2008	2009	2010	2011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8	1,3	1.4	1.9
제조업	14.8	18.7	16,8	19.9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7	10,8	6.4	8.0
서비스업	72.6	69.2	75.5	70,2



〈그림 2-21〉 전국 청년층 산업별 신설법인수 비중 추이(2008~2011)

- ○청년층 신설법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역시 서비스업으로, 2004년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
  - -2005년이 75.5%로 가장 높았으며, 2004년이 69.2%로 가장 낮음
  - -서비스업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5.3% 하락
- ○제조업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1% 증가
-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은 2009~20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 였으나 이후 다시 반등

## 2) CEO 연령별 신설법인 추세

- 청년층의 법인 설립은 정체 중이나, 장년층 및 노년층의 법인 설립은 증가 추세
  - -청년층 신설법인 비중은 2010년을 제외하면 4% 대로 큰 변화가 없음
  - -가장 큰 비중을 보인 연령대는 40~49세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59세도 20%가 넘는 비중을 보여, 전체적으로 장년층이 신설 법인의 절반 이상을 설립

	20	2008		2009		2010		2011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30세 미만	2,027	4.0	2,417	4.3	3,117	5,2	2,823	4.3	
30~39세	13,751	27	14,993	26.4	15,401	25.5	15,842	24.3	
40~49세	21,478	42.2	23,252	40.9	24,254	40.2	26,116	40.1	
50~59세	10,446	20,6	12,409	21.8	13,633	22.6	15,687	24.1	
60세 이상	3,115	6.1	3,698	6.5	3,823	6.4	4,583	7	
기타	38	0.1	61	0.1	84	0.1	59	0.1	
총계	50,855	100	56,830	100	60,312	100	65,110	100	

-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법인 설립 역시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로, 2011년 기준 7.0%의 비중을 차지하여, 청년층보다 높게 나타남
  - · 40~49세의 신설법인 비중이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조금씩 낮아지는 반면, 50~59세의 신설법인 비중은 3년 연속 증가하며 높아지는 추세

## 3) 청년층 자영업자 추세

- ○청년층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 대비 빠르게 감소
  -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보면,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자영업자 비중은 2001년 28.0%에서 2006년 26.5%, 2011년 23.1%로 10년 새 4.9% 감소
  - -청년층은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데 이어 자영업자 비중도 절반 가까이 감소
    - · 청년층 자영업자 비중은 2001년 11.3%에서 2006년 8.8%, 2011년 6.5% 로 전체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폭보다 가파르게 하락

#### 〈표 2-27〉 청년층 자영업자 추세

(단위 : 명. %)

		2001년		200	6년	2011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취업자	21,572,377	-	23,150,829	-	24,244,234	-
전체	자영업자	6,050,519	28	6,134,469	26.5	5,593,574	23.1
신세 -	-고용주	1,553,965	25.7	1,632,015	26.6	1,505,359	26.9
	-자영자	4,496,554	74.3	4,502,454	73.4	4,088,215	73.1
	취업자	7,751,706	-	7,114,315	-	6,597,035	-
워너소	자영업자	877,123	11,3	627,174	8.8	425,884	6.5
청년층	-고용주	258,427	29.5	189,283	30.2	143,537	33.7
	-자영자	618,696	70.5	437,891	69.8	282,347	66.3

자료 : 정재호(2012)

# 제3절 미래 유망 업종 및 직업 탐색

### 1. 고용구조 현황 분석6

○서울시의 고용구조 추세 및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에서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수행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분석

## 1) 산업별 종사자 규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08 년에서 2012년까지 수행한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 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차별 평균 증가율 상위 20개 산업은 다음의 <표 2-28>과 같음(이하, 전체 산업별 종사자 규모는 부록표 참조)

주: 1) 자영업자의 비중은 취업자에 대한 비중이고, 고용주와 자영자의 비중은 자영업자에 대한 각각의 비중임 2) 청년층의 경우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교육 서비스업 자영자는 자영자에서 제외한 수치임

<sup>6)</sup> 이 절은 공동연구 위탁원고인 박가열(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 ○다음의 <표 2-28>에 제시되듯이, 2008년부터 이후 5년간 평균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임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 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다양한 업종 에 걸쳐 분포
- ○다음으로, 서울시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차별 평균 증가율 상위 20개 산업은 다음의 <표 2-28>과 같음

〈표 2-28〉 산업별 고용규모(2008~2012)

(단위 : 명, %)

순위	분류 코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1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305,996	454,110	559,571	684,618	711,129	18.4
2	70	임업	9,814	15,740	17,830	22,935	18,312	11.6
3	69	연구개발업	100,719	120,957	125,451	152,749	166,179	11.6
4	7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1,122	16,497	13,925	16,781	19,061	10.8
5	58	임대업;부동산 제외	53,984	62,280	69,684	72,411	80,080	9.3
6	3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23,040	143,835	176,607	169,789	184,209	9.2
7	99	전문서비스업	302,379	301,629	354,794	379,946	442,777	8.9
8	1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4,440	97,844	98,538	118,403	121,943	8.5
9	75	창고 및 운 <del>송</del> 관련 서비스업	165,727	174,738	191,819	228,640	230,640	7.8
10	3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0,508	199,600	203,984	229,512	279,766	7.7
11	66	출판업	231,492	242,170	263,654	295,661	313,073	7.2
12	86	보건업	661,198	692,535	741,562	802,105	874,405	6.7
13	94	전기장비 제조업	200,756	190,859	216,548	251,217	268,348	6.7

### 〈표 계속〉산업별 고용규모(2008~2012)

(단위 : 명, %)

순위	분류 코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14	60	1차 금속 제조업	143,234	143,155	144,802	163,258	179,506	5.4
15	59	사업지원 서비스업	742,203	721,729	802,871	939,434	931,208	5.2
16	5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3,744	390,178	392,031	439,196	472,614	5.0
17	5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125	98,287	110,010	131,996	128,259	4.9
18	7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3,533	115,467	197,785	132,319	158,774	4.8
19	84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3,990	55,347	58,488	66,629	64,604	4.2
20	2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8,310	51,811	45,688	52,468	58,136	4.0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표 2-29〉 서울시 산업별 고용규모(2008~2012)

(단위 : 명, %)

순위	분류 코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1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42,350	72,437	92,693	107,234	112,076	20.3
2	70	연구개발업	21,695	25,198	25,549	35,520	37,522	12,2
3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11,202	12,162	15,080	15,419	18,474	11.5
4	71	전문서비스업	128,382	130,285	143,835	162,376	207,220	11.0
5	58	출판업	108,211	121,610	130,347	145,178	160,444	9.4
6	32	가구 제조업	5,441	7,089	7,569	9,324	8,028	8.1
7	99	국제 및 외국기관	2,354	2,847	3,917	2,676	4,045	8.0
8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178	7,255	8,984	10,658	13,908	8.0
9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159,002	168,103	198,822	212,424	220,025	7.7
10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4,671	4,215	4,548	4,424	6,546	6.5
11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6,567	48,823	72,090	53,298	70,482	6.5
12	86	보건업	155,441	153,146	153,929	177,150	200,105	5.9
13	94	협회 및 단체	57,003	53,310	64,156	69,113	72,040	5.3

#### (표 계속) 서울시 산업별 고용규모(2008~2012)

(단위 : 명, %)

순위	분류 코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14	60	방송업	20,772	24,437	20,233	19,168	27,807	4.9
15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1,913	26,114	22,489	24,770	27,198	4.5
16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5,099	23,429	27,633	30,536	30,509	4.4
17	55	숙박업	27,867	31,144	33,355	38,861	33,610	3.9
18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0,686	28,689	39,599	37,759	37,274	3.6
19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7,111	209,871	189,222	181,883	180,582	3,6
2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762	35,462	38,155	38,911	39,914	3.4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서울시의 산업 구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표 2-30>에서 제시하듯이, 전체 산업 종사자 현황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이후 5년간 평균 증가율이 가 장 높은 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가구제조업, 국제 및 외국기 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폐기물 수집운 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 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다양한 업종 에 걸쳐 분포
- ○서울시 청년층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차별 평균 증감률 상위 10개 산업은 다음의 <표 2-30>과 같음
- ○다음의 <표 2-30>에서 제시하듯이, 서울시 청년층의 지난 5개년간 연차별 평균 증가율 상위 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업, 숙박업,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 물 제작 및 배급업, 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

스업, 및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의 순서인 것으로 파악됨

-산업 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하였고, 이 중 가장 높은 평균증가율을 보인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출판업 및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문화관련 산업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0) 서울시 청년층(15~29세) 산업별 고용규모(2008~2012)

(단위 : 명, %)

순위	분류 코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1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57	14,393	20,305	18,266	21,548	15.8
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16	3,061	2,275	1,960	6,189	11,3
3	55	숙박업	6,600	7,578	8,860	9,798	9,195	7.6
4	71	전문서비스업	37,416	36,910	40,656	45,639	49,475	6.6
5	58	출판업	31,935	39,313	32,393	36,565	42,140	5.5
6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036	19,835	21,863	30,665	30,508	5.3
7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618	7,356	9,597	9,464	10,838	4.4
8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5	775	771	624	1,129	4.2
9	52	창고 및 <del>운송</del> 관련 서비스업	5,469	6,893	7,066	7,273	6,502	3,5
10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444	1,173	1,054	1,573	1,834	3,2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 직업별 종사자 규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직업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08 년에서 2012년까지 수행한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 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차별 평균 증가율 상위 20개 직업은 다음의

- <표 2-31>과 같음(이하, 전체 직업별 종사자는 부록표 참조)
- ○<표 2-31>에서 제시하듯이, 2008년부터 이후 5년간 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임업 숙련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법률 및 감사사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전기 및 전자 관련기계조작직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 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분류 기준으로 전문직과 사무직 에 해당하는 직종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서울시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차별 평균 증가율 상위 20개 산업은 다음의 <표 2-31>과 같음
- ○서울시의 고용규모와 관련하여 다음의 <표 2-31>에서 제시하듯이, 전체 직업 종사자 현황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이후 5년간 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 -법률 및 감사 사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분류 기준으로 전문직과 사무직의 상위 평균 증가율 점유 비율이 50%인 것으로 파악됨

## 〈표 2-31〉 직업별 고용규모(2008~2012)

(단위 : 명, %)

순위	분류 코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1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12,858	22,799	26,134	26,574	22,839	10.4
2	6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3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4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5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6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272,459	328,246	381,592	438,752	377,154	6.9
7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441,996	448,834	471,242	515,600	558,112	5.6
8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161,165	159,378	151,137	189,541	206,380	5.5
9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19,898	331,932	316,472	381,207	403,227	5.3
10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363,898	359,814	415,468	448,443	453,472	5.2
11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126,909	148,905	150,012	166,035	157,604	5.0
12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13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14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781,190	946,198	892,979	978,060	948,269	4.3
15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16	39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17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18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335,515	407,582	380,913	436,235	395,704	3,3
19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194,062	190,081	213,667	224,032	218,055	2,7
20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표 2-32〉 서울시 직업별 고용규모(2008~2012)

(단위 : 명, %)

순위	분류 코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1	88	상/히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1,028	1,435	1,937	1,951	2,143	16.0
2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20,607	22,276	25,356	27,909	30,736	9.5
3	24	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94,548	206,353	233,903	250,353	271,319	7.9
4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32,355	139,362	134,442	163,352	171,630	6.0
5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93,343	88,392	100,578	120,295	121,172	5.9
6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6,506	44,051	44,482	45,588	46,354	5.5
7	39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84,486	81,756	85,780	102,288	105,786	5,2
8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31,631	35,846	43,904	51,771	41,350	5.0
9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149,083	161,262	165,852	180,799	183,260	5.0
10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174,429	197,688	201,865	206,856	212,999	4.8
11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700,652	773,838	837,480	827,959	853,076	4.7
12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53,464	57,559	57,623	65,002	64,323	4.4
13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88,060	180,150	198,027	214,921	223,832	4.1
14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29	10,407	9,323	12,719	10,231	2,2
15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5,105	22,394	21,034	26,022	27,727	1.7
16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04,428	229,581	170,944	215,275	234,697	1.4
17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8,587	25,720	18,298	19,836	21,326	0,5
18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72,114	88,839	77,908	80,810	75,403	0.3
19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106,965	117,099	111,129	116,186	109,143	0.3
20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37,239	37,111	36,686	39,016	37,284	0.0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 ㅇ서울시 청년층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차별 평균 증감률 상위 10개 직업은 다음의 <표 2-33>과 같음
- ○<표 2-33>에서 제시하듯이, 서울시 청년층의 지난 5개년간 연차별 평균 증 가율 상위 직업은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 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 직,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직업 중 서울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능수준과 종사자 규모를 감안했을 때,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 문가 및 관련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을 고려

〈표 2-33〉 서울시 청년층(15~29세) 직업별 고용규모(2008~2012)

(단위 : 명, %)

순위	분류 코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가율
1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6,427	7,757	6,837	7,938	9,689	8.9
2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20,232	18,814	23,138	29,628	28,825	7.6
3	24	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61,539	67,407	72,531	70,662	74,949	4.7
4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73,464	68,372	77,761	77,675	79,992	1.9
5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4,870	7,580	6,053	7,472	6,017	1.3
6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2,764	26,761	18,705	27,335	27,541	1.0
7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7,673	27,737	30,509	27,181	28,487	0.4
8	39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8,988	30,010	33,264	39,156	41,357	0.1
9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3,775	4,147	4,000	3,504	3,841	0.0
10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8,676	39,938	32,446	42,452	40,753	-0.1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 시사점

- ○최근 5년간 산업 및 직업별 고용규모 증감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5개년간 종사자 규모의 연차별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미래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별
-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출판업 및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의 문화관련 산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직능수준과 종사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가능 성이 높은 직업을 선별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청년층 고용여건 분석

### 1) 청년패널조사 분석

- ○청년층의 고용여건 파악을 위해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청년패 널조사(Youth Panel)'를 분석
  -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
  - -청년패널조사(2011년) 결과 총 응답자는 7,552명이고, 지역이 서울인 패널은 1,724명으로 전체의 22.8%에 해당하며 원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함

〈표 2-34〉 청년패널조사의 표본

전체	고등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
1,724명	151명	599명	691명	283명
	(8.7%)	(34.7%)	(40%)	(16 <sub>.</sub> 4%)

- ○중·고등·대학(원)생의 여건 분석을 위해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 항 및 성별 구직시도 및 실패 횟수를 살펴봄
  - -중·고등·대학(원)생이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취업정보의 부족(34.7%), 학력 및 경력 등 요구자격의 부족(17.0%), 본인 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13.0%) 순으로 비중이 높음

〈표 2-35〉 중·고등·대학(원)생이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단위 : %)

취묘	전체	남	여
항목	750명	362명	388명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34.7	36.1	33,3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13.0	5.7	20.5
경력이 부족해서	13.6	10,3	16.9
성차별 때문에	0.4	0.0	0.9
학력, 기능 등 요구자격이 맞지 않아서	17.0	22.4	11.5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4.3	6.1	2.5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4.1	3.4	4.8
서류/면접시험의 지속적 탈락에 의한 심리적 부담감	3.9	4.5	3,3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1.0	2.0	0.0
자격증이 없어서	6.0	6.2	5.8
기타	2.0	3.4	0.5

자료: 청년패널조사, 2011

-또한, 중·고등·대학(원)생의 성별 구직시도 및 실패횟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구직시도 횟수가 3.92회로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구직실패 횟수 는 남성이, 채용거절 횟수는 여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2-36〉 성별 구직시도 및 실패 횟수

(단위 : 회)

항목	전체	남	여
) 성숙 	750명	362명	388명
구직시도 횟수	3,60	3,92	3.17
구직실패 횟수	3,26	3.79	2.54
채용거절 경험 횟수	1,85	1,35	2,48

자료: 청년패널조사, 2011

〈표 2-37〉 중·고등·대학(원)생의 여건 분석 및 시사점

조사내용	조사결과	정책적 시사점
구직과정에서 겪는	· 1순위로 '취업정보의 부족이나 정보를	·구직정보를 얻는 경로 및 홍보에서
애로사항	몰라서'로 나타남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성별 구직시도 및 실패	· 남성의 구직시도 횟수가 3.9회로 여성에	·청년층 중에서도 여성청년층에 대한
횟수	비해 많았으나, 채용거절 횟수는 여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개별정책이 필요해 보임

자료 : 청년패널조사, 2011

- ○미취업자의 여건분석으로 비구직사유, 취업준비 시 겪는 애로사항, 희망직 업, 희망임금, 희망회사유형 및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를 분석
  - -미취업자의 비구직사유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원하는 조건(전공/경력/임금수준/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위해 시험 등을 준비하는 중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38〉 미취업자의 비구직사유

(단위:%)

	취묘	전체	남	여
	항목	283명	129명	154명
지난	·주에 일을 원하지 않았음	8,0 13,0 5,5		5.5
지난	난주에 일을 원하였음	92.0	87.0	94.5
	원하는 조건(전공/경력/임금수준/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일 자리가 없어서	31,8	35.6	27.6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0.7	1,3	0.0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	7.1	10.6	3.1
	여성, 고령,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2.2	4.1	0.0
	취업을 위해 준비 중	27.2	28.3	25.9
	육아	2.2	0.0	4.7
	가사	1.6	0.0	3,5
	건강상의 이유로	2,6	4.9	0.0
	당분간 쉬고 싶어서	18.2	11.9	25.3
	기타	6.4	3,2	10.0

자료 : 청년패널조사, 2011

- -미취업자가 취업준비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취업정보 부족(25.3%), 수 입 또는 보수 부적합(18.2%), 요구자격(학력, 기능 등) 불일치(17.5%) 순 으로 비중이 높음
- -또한, 여성은 근무환경 또는 근무시간 부적합이 15.1%로 남성에 비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39〉 미취업자의 취업준비 시 겪는 애로사항

(단위:%)

항목	전체	남	여
	283명	129명	154명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25.3	26,3	24.3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8.7	8.1	9.4
경력이 부족해서	12,1	9.6	14.8
성차별 때문에	0.4	0.0	0.9
학력, 기능 등 요구자격이 맞지 않아서	17.5	19.2	15.6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1.7	2.4	0.8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18.2	21.8	14.2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9.1	3.8	15.1
서류/면접시험의 지속적 탈락에 의한 심리적 부담감	3.1	3.8	2,3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2,2	3.7	0.4
자격증이 없어서	1.0	1.0	1,1
기타	0.7	0.4	1,1

자료: 청년패널조사, 2011

- -미취업자의 희망직업을 살펴보면, 전체 미취업자 중 50.2%가 희망직업 을 가지고 있고 그 중 28.8%는 경영·금융·무역사무직을 희망하고 16.0%는 교육·법률 관련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의 희망임금은 평균 2,539만 원이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444만 원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희망임금이 많음

#### 〈표 2-40〉 미취업자의 희망직업

(단위:%)

취묘	전체	남	여
항목	283명	129명	154명
희망직업 있음	50.2	60.0	44.3
기술/기능직 종사자	15.2	28.2	4.8
경영/금융/무역/사무직	28.8	31.6	26.5
교육/법률 관련직	16.0	13,2	18.2
의료/사회복지/종교 관련직	14.6	6.2	21.4
문화/예술/스포츠 관련직	8.4	9.0	8.0
서비스 관련직	6.9	3,3	9.9
영업/판매직	7.1	6.7	7.3
단순노무직	2.8	1.6	3.8
기타	0.2	0.2	0.2

자료: 청년패널조사, 2011

### 〈표 2-41〉 미취업자의 희망임금 유형

(단위:%, 만원)

항목	전체	남	여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석사 이상
	283명	129명	154명	98명	50명	121명	14명
1200만원 미만	0.9	0.5	1,1	1.9	0.0	0.1	0.0
1200~1800만원	11,3	6.0	14.4	14.9	12.7	6.0	0.0
1800~2400만원	32,9	28.7	35.4	35.2	32,2	31,5	0.0
2400~3600만원	48.2	56,6	43,3	40.2	51,6	54.9	86.5
3600~4800만원	3,2	3,5	2,9	3.4	1,9	3.4	13.5
4800만원 이상	3,6	4.7	2,9	4.3	1,5	4.0	0.0
평균 희망임금	2,539	2,819	2,375	2,566	2,393	2,587	2,990

자료: 청년패널조사, 2011

- -미취업자의 희망 기업체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3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중소기업을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하는 일반중소기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은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2-42〉 미취업자의 희망회사 유형

(단위:%)

항목	전체	남	여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석사 이상
	283명	129명	154명	98명	50명	121명	14명
대기업	15.5	23.7	10,6	14.6	12.1	18,5	31.8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등)	32,7	30.7	33.9	24.7	28,3	45.1	59.9
외국계기업	2.4	3,1	2.0	3,2	1,6	1,9	2,6
일반 중소기업	26.4	24.0	27.8	30.7	32,8	17.4	0.0
전문 중소기업	6.4	5,6	6.9	5.3	10,3	5.5	0.0
창업	16.6	12.8	18.8	21.5	15.0	11.6	5.7

자료: 청년패널조사, 2011

- -미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2.7%만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석사 이상을 제외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교육훈련을 더 받는 것으로 파악됨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비중이 높음

〈표 2-43〉 미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단위:%)

항목		전체	남	여	고졸 이하	전문 대 <u>졸</u>	대졸	석사 이상
		283명	129명	154명	98명	50명	121명	14명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		2.7	2.2	3,2	1,2	2.9	5.6	1,2
	평균 개수	1.25	1,23	1.26	1.07	1,16	1.36	1.00
직업훈련 경험이 없다		97.3	97.8	96.8	98.8	97.1	94.4	98.8

자료: 청년패널조사, 2011

## 2) 시사점

- -청년층 고용여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취업정보의 부족 및 고용과 수요 간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음
  - 적절한 인력공급 및 직업교육훈련 등의 고용정책 시행으로 구인과 구

## 직 간의 미스매칭(부조화)을 최소화할 방안이 요구됨

#### 〈표 2-44〉 미취업자의 여건 분석 및 시사점

조사내용	조사결과	정책적 시사점	
	· 남녀 모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		
비구직 사유	리가 없어서, 취업을 위해 취업 외의 시험		
	등을 준비하는 중 순으로 높게 나타남		
	·중·고등·대학(원)생과 같이 취업정보 부		
취연조미 제	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구직정보를 얻는 경로 및 홍보에서 정책	
취업준비 시 겪는 애로사항	· 남성의 경우 수입이나 보수를, 여성의 경	의 변화가 요구됨	
112 112 18	우 수입이나 보수보다는 근무환경 또는	의 전화가 요ㅣ됨 	
	근무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통계청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 인	
	· 직종별 선호직업을 보면 경영·금융·무	력부족률과 비교해보면, 경영·금융·무	
희망직업	역사무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역사무직의 인력부족률(1.3)은 전체 평균	
	국사구국에 가장 는 비중을 자시함 	인력부족률(2.6)보다 매우 낮아 구인/구	
		직 간 미스매칭의 해결이 필요함	
	・평균 2,539.4만원으로, 여성보다 남성		
	이, 고학력일수록 희망임금이 높음		
희망임금 및	·희망 회사유형으로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미취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연계노력이	
희망회사 유형	경우가 32.7%로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	필요해 보임	
	로 대기업보다는 일반중소기업을 희망하		
	는 비율이 높음		
직업교육훈련 경험	·전체 응답자 중 2,7%만이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 및 새로운 접근	
여부	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방법이 요구됨	

## 3. 미래 창출 가능 직업 탐색기

## 1) 고용환경과 직업세계 변화 트렌드8)

○신흥국 지역 전문가 수요 증가

<sup>7)</sup> 이 절은 공동연구 위탁원고인 박가열(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sup>8)</sup> 박가열·서용석·김경훈, 2013, 「2030 미래의 직업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내용 일부 발췌 정리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인구감소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내수 수요 창출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상황
- -따라서 해외 수출에 경제성장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향후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신흥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
-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등 이 2030년까지 중산층 인구가 2천만 명 이상 증가하고 구매력 기준 1인 당 GDP가 1만 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들 국기들과 의 교역을 연계할 지역진문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노동환경의 개선

- -최근 고용률 제고의 핵심 고리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설정하였듯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여성 인력의 인적 자원화 촉진책이 적극 추진될 전망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 능하게 될 것이며, 직장 생활을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자녀 돌봄이 가능한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보다 글로벌화되고 있는 인력 및 채용시장
  - -선진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글로벌 인력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 은 글로벌 차원에서 고용전략을 수립
  - -인재확보 전략은 더 이상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전 세계로부 터 유능한 인재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 -향후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가 해외의 기업들과 채용시장(특히, 신흥국 채용시장)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며, 국내에서도 해외의 인재들과 일자 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과 직업
  - —기후변화는 제품, 탄소 거래, 기업 평판과 브랜드 가치에서 새로운 기회 를 창출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및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다

- 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
- -특히,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 및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 예상
-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제품 제작과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자원 절약형으로의 디 자인이 필요
- ○똑똑해진 기계, 소프트웨어와의 일자리 경쟁
  - -기술의 발전, 특히 ICT와 타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해왔던 일들을 급속히 대체
  - -보다 빠르고 저렴해진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기기들'과 똑똑해지는 '소 프트웨어들'이 인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여러 능력을 제공
  - -기계와의 일자리 경쟁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가 손길이 필요했던 진단과 수술, 회계 업무나 법률 서비스의 영역도 자동화된 기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빠르게 잠식
  - -이것은 곧 가까운 미래에 화이트칼라 직업이 상당 부분 도전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

## 2) 국내 신생 및 이색 직업 분석

- ○최근 들어 자동화 기계와 프로그램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심화되면서, 일 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해외 직업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정책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김중진, 2012; 김한준・황기돈・이랑, 2011; 이영대・유홍준, 2010; 최영순・박가열・김동규・이만기・박지연, 2008)
- ○이러한 해외 직업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우리사회 역시 서구 선진사회의 발전 경로를 이행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에 기초 ─즉 선진국에서 현재 발견되는 직업 중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 직업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사회가 성숙하게 되면 서구 발전모델을 따라 미래에 같은 직업이 발생 할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
- -사회 발전모델의 유사성에 한계가 있고, 실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 으나 실무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
- -또한 직업은 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문화적 공감대를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
- ○신생 직업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그들의 직업선택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며, 미래 직업을 탐색 하려는 청소년 및 이 ㆍ 전직을 준비하는 성인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김중진 외, 2004; 이윤선 외, 2006)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의 연구 개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직업정 보시스템(KNOW)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신생 및 이색 직업은 2004년부 터 2012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격년 주기로 5회의 직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2013년 현재 중복된 것을 조정하여 6개 분야 178개 직종으로 정리 -한국직업정보에 수록된 직종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2-45>와 같음 (한국고용정보원, 2013)
- ○앞서 살펴본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관련하여, 보건· 의료/교육 부문과 문화/예술/스포츠 부문에 해당하는 직종에 관련된 분야 의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표 2-45〉 분야별 신생 및 이색 직업

식품/웰빙 /여가(36)	과학/정보통신 (36)	보건의료/교육 (27)	문화/예술 / <u>스포츠(</u> 33)	경영/금융 /보안(26)	방송/이벤트(20)
막걸리 소믈리에	안드로이드 로봇공학자	안내견훈련사	교통심리전문가	아이디어 컨설턴트	불꽃연출가
음악분수 연출자	증강현실 엔지니어	페도티스트	모델러	펀드레이저	버블리스트
동물원 큐레이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음성언어치료사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CSR컨설턴트	퍼핏애니메이터
숲해설가	RFID 시스템개발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건설코디네이터	프로파일러	폴리아티스트
생태세밀화가	사이버범죄 수사관	다문화 언어지도사	스포츠에이전트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메이킹필름 제작자
아트토이 디렉터	국방과학연구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독립큐레이터	온라인광고 기획자	영화예고편 제작자
산업잠수사	모바일커스터머 서포트엔지니어	바이오의약품 연구원	아트토이 디렉터	리더십 스타일리스트	게임프로듀서
매장 배경음악 전문가	모바일게임QA 전문가	한국어강사	창작애니메이션 기획자	입학사정관	게임자키
퍼스널쇼퍼	거짓말탐지 검사관	성문화 교육전문가	카오디오 인스 <b>툴</b> 러	키워드에디터	비디오 저널리스트
애완동물 장의사	도청탐지 전문가	사이처	레이싱 미캐닉	문화마케터	비디오자키
수중재활 운동사	국가사이버 안전요원	원예치료사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	펀드애널리스트	특수분장사
재활승마 치료사	국제범죄 전문가	독서치료사	연극놀이강사	HCI 컨설턴트	웨딩플래너
웃음치료사	대테러 전문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그래피티 아티스트	기상컨설턴트	커플매니저
소믈리에	휴대폰 디자이너	음악치료사	비보이(비걸)	커리어코치	전시기획자
쇼다이버	카테고리 매니저	미술치료사	예술제본가	미스터리샤퍼	게임방송해설가
아쿠아리스트	e-sports맵 제작자	노인전문 간호사	포크아티스트	네이미스트	애견트레이너
호텔컨시어지	산업보안 전문가	놀이치료사	카지노딜러	이미지 컨설턴트	디지털마케터
조향사	화재감식 전문가	학습매니저	마필관리사	프레젠테이션 컨설턴트	디지털음원 마케터
아트컨설턴트	몽타주 제작자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이종격투기선수	개인자산 관리자	방송콘텐츠 마케팅디렉터

## 〈표 계속〉분야별 신생 및 이색 직업

식품/웰빙 /여가(36)	과학/정보통신 (36)	보건의료/교육 (27)	문화/예술 /스포츠(33)	경영/금융 /보안(26)	방송/이벤트(20)
애견옷디자이너	유전자감식 연구원	점역사	자동차경주선수	창업컨설턴트	로봇공연 기획자
브루마스터	ITS연구원	두피모발 관리사	테크니컬 라이터	생태어메니티 전문가	문화PD
푸드 스타일리스트	위폐감식 전문가	재능기부 코디네이터	속옷디자이너	도선사	
파티플래너	도로교통 안전 진단사	인터넷게임 <del>중독</del> 치료전문가	플로리스트	소셜커머스품질 관리자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온라인전기 자동차연구원	자살예방 상담가	테마파크 디자이너	공정무역 전문가	
영화제 프로그래머	친환경 병충해방제 연구원	환경교육강사	컬러리스트	제품환경 컨설턴트	
경주장 아나운서	폐기물에너지 화학연구원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휴대전화벨소리 제작자	바이오물류 전문가	
캘리그라퍼	화석연료 청정화연구원	모유영양 분석가	캐릭터 디자이너	원산지관리사	
풍선아티스트	오염부지 정화 연구원	아기변성 진단가	페인팅 아티스트		
아트워크 매니저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		미술품 스페셜 리스트		
쇼콜라티에	스마트그리드 통합운영원		문화재보존 전문가		
도시농업 활동가	실버로봇 서비스기획자		하우스매니저		
호텔레비뉴 매니저	우주전파 예보관		장제사		
큐그레이더	핵융합로 연구 개발자		소셜큐레이션 서비스기획자		
반려동물 사진작가	빌딩정보모델링 (BIM)전문가		에코제품 디자이너		
공정여행 기획자	음성인식UX디자 이너				
안경디자이너	디지털포렌식수사 관				
신발디자이너	미디어파사드 디자이너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3, "신생 및 이색 직업 정보 제공 직업 개정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내부 자료 발췌

# 제3장 새로운 창업방식으로서 소설 창업의 등장과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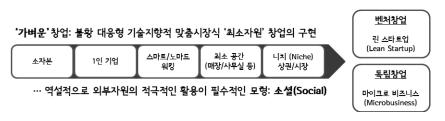
제1절 소설 창업의 배경과 개념 제2절 소설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 새로운 창업방식으로서 소셜 창업의 장 등장과 확산

## 제1절 소셜 창업의 배경과 개념

## 1. 소셜 창업의 배경

- ○최근 청년창업을 포함한 창업 일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추 세는 이른바 '가벼운' 창업(이민화, 2012; 이민화·차두원, 2013)
  - -'가벼운' 창업이란 예전에 연구개발부터 생산, 품질, 유통, 서비스, 관리 까지 전 과정을 모두 창업자가 책임지고 돈과 시간을 투입했었어야 하는 '무거운' 창업에 대조되는 최근의 추세
  - -외부에서 전략적 제휴나 아웃소싱으로 핵심역량 외의 자원 조달이 가능 한 경우에 핵심역량에 집중해 창업하는 '가벼운' 창업이 가능



〈그림 3-1〉 가벼운 창업과 소셜 창업

- -실리콘 밸리 등 첨단 IT 클러스터에서 몇 년 전부터 대세로 자리 잡은 추세로 효과적인 스타트업 성공전략이라는 보편적인 평가 획득
- '가벼운 창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업생태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개념으로 '소셜(Social)'의 필요성이 대두
  - '가벼운' 창업은 정의상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없으면 작동하기 어려운 체계9
  - -같이, 함께하는 창업이라는 측면에서의 '소셜'은 '가벼운' 창업의 조건이 자 결과로서 불가분의 관계로 부상
- ○가벼운 창업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추동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생겨난 창업에서의 새로운 생존 전략<sup>10</sup>)
  -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벼운 창업은 외환위기에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불황에 대처하는 소자본, 1인 기업 전략과 일맥상통
  -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대중화로 대비되는 정보통신영역에서의 혁신은 최소한의 공간에서 스마트/노마드 위킹을 통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도로 개인의 역량을 상향
  -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불황이 가져온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은 지속가능성,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에 따라 구성되는 대안적인 생활양식 과 이에 따른 니치(틈새) 시장의 형성을 추동!!)
  - -결국 가벼운 창업은 이러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불황 대응형 기술지향적 맞춤시장식 '최소자원' 창업의 구현 방식

<sup>9)</sup> 대표적인 생태계 발전의 조짐으로서 소셜 플랫폼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윤상진, 2012; 히라노 아쓰시 칼·안드레이 학주, 2011).

<sup>10)</sup> 이른바 '공유경제'의 발전을 논하는 레이첼 보츠먼·루 로저스(2012), 리사 갠스키(2011)의 논의에서도 공유경제 탄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같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논의에서 공유경제의 발전은 다름 이닌 새로운 창업기업의 확산을 의미하는바, 가벼운 창업의 확산과 동일한 내용의 변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sup>11)</sup> 사회적 경제의 확산과 이를 추동하는 사회적 혁신,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에 대한 논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유병선, 2008; 전병길·김은택, 2013).

- ○때문에 가벼운 창업은 첨단 IT뿐만 아니라 여타 일반산업에서도 벤처창업 은 물론 독립창업 방식에서 통용되는 전략
  - -벤처창업과 기술창업은 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개인의 자금 못지않게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하는 특징이 있는 창업방식
  - -이 방식에서 최근 각광받는 전략은 완제품을 만드는 대신 단기간에 소자 본을 투입하여 최소기능모델을 출시하고 소비자 반응을 수용하여 모델 을 재차 전환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린 스타트업'(에릭 리스, 2012)
  - -반면 독립창업과 생계창업은 매장, 가계의 개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개인 자금과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주요 투자원인 통상적인 창업방식
  - -이 방식에서도 주목할만한 전략은 소자본으로 소셜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내는 '마이크로 비즈니스'(크리스 길아보, 2012)
  - -창업방식과 창업 주요 업종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창업방식보다 '가 벼운' 창업이 주요한 전략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는 합치
- '소셜'은 가벼운 창업의 전제인 창업생태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이에 대한 경향 파악은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제안의 주요한 자원
  - -현재 대표적인 창업 성공 전략인 가벼운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쇼셜 창업의 경향을 발굴하여 청년창업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 모색

## 2. 소설 창업의 개념

- '소셜(Social)' 창업의 개념은 단어 Social이 가진 두 가지 주요 의미에 따라 복합적으로 사용
  - -첫번째는 '사교적'이라는 의미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창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
  - -두번째는 '사회적'이라는 의미로 사회적으로 보다 바른 혹은 의미있는 창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

- -국내에서는 '소셜'은 일반적으로 IT와 관련되어 사교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사회적'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식할 때 주로 사용
- '사교적'의미에서 소셜 창업은 소셜 미디어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나 홀로(Me)'에서 '우리(We)'로의 확장
  - -대표적인 흐름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매개되는 사업 및 실행공동체에 대한 관심
  -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교적' 흐름은 창업에서 새로운 방식과 절차가 등 장하고 있음을 의미
- ○소셜 창업의 사교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실천은 느슨한 인적 네트워크의 조 직과 SNS 플랫폼의 사업적 활용
  - '우연한 행운'의 기회를 높이는 모임 발생 : 창업 협업, 투자의 저변 확대 라는 측면에서 느슨한 인적 네트워킹의 조직화
  - -SNS 플랫폼을 통한 사업의 개발과 수용 : 사업-홍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SNS 플랫폼 활용 증가
- '사회적'의미에서 소셜 창업은 불황에 따른 생활양식의 전환에 기인한 '이 윤'에서 '가치'로의 확장
  - -대표적인 흐름은 이른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관심
  -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흐름은 창업에서 새로운 가치와 대상의 등 장을 의미
- ○소셜 창업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실천은 사회적 가치와의 부합 추 구, 회사 외 조직 형태의 창업 확대, 민간의 창업지원 참여 등
  - '착한' 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 : 창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도 부합하는 창업 정책에 대한 요청
  - -'중소기업 설립'이 아닌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비 필요: 사업모델,지원방식과 정책이 상이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창업지원 추가
  - '정부'가 아닌 공공영역 민간 창업지원 주체의 등장 : 기업의 사회적 책

- 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부서, 민간 창업지원재단 등을 통한 유리적 창업지원사업 확대
- ○이러한 측면에서 소셜 창업이란 사교적, 사회적인 축을 따라 기존 창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창업 방식으로 정의
  - -사교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절차, 사회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 주체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창업을 변화시키는 창업의 첨단 추세

## 제2절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 1. 소설 창업의 10대 경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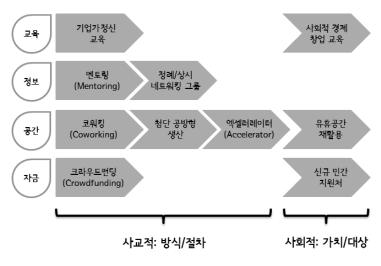
- ○소셜 창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사전 자료나 연구는 부재
  - -소셜 창업의 사례를 인용하는 자료는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이를 청년창 업 혹은 창업이라는 입장에서 부분적이라도 정리한 자료는 소수
  - -특히 국내 혹은 서울이라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소셜 창업의 흐름을 파악한 자료는 현재까지 거의 부재
-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셜 창업의 흐름을 개관하고 정리하기 위해 서울시 내 소셜 창업 지원 기관, 기업 및 소셜 창업 기업 대상 인터뷰 실시
  - -산학연, 민관 부문을 통틀어 총 30여 사례 기관 및 기업을 방문 인터뷰하였으며, 이 외에도 자문회의, 전화인터뷰 등 부가 조사도 실시
  - -자문회의와 기존 사례 및 자료연구를 통해 조사할 사례를 사전 선정
  - -인터뷰를 실시한 사례 기관 및 기업에게 다음 인터뷰 기관 및 기업을 추 천받는 스노우볼 인터뷰 방식으로 인터뷰 수행
- ○초기에는 크라우드펀딩, 코워킹, 엑셀러레이터 등 3개 경향의 조사에서 출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0개의 경향을 도출

- 명확하게 사례나 프로그램으로 성립되는 경향에서 출발하였으나 다수 기관과의 인터뷰를 거치면서 이전 사례나 프로그램의 개선 혹은 갱신과 관련된 경향도 추가
- -관련된 경향을 모두 포괄하였다기보다는 인터뷰 대상 기업 및 기관이 반복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던 경향 중심으로 정리

〈표 3-1〉소셜 창업 10대 경향 개관

부문	경향	정의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자 인성, 창조성, 도전 정신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사회적기업, 현동조합 등 회사 외 기관의 창업 지원
정보	멘토링 (Mentoring)	창업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도제적, 쌍방향 학습 방식
	정례/상시 네트워킹 그룹	투자자, 예비창업자, 지원처 등의 정보교류 및 인력 매칭의 장
	코워킹 (Coworking)	프리랜서, 전문가,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공동 사무 및 협업 공간
77	첨단 공방형 생산	디지털 제작 장비를 써 소규모로 저렴하게 시제품 생산을 구현하는 공방
공간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투자자, 성공 창업자 등과의 만남을 통한 초기 창업자 단기집중 보육 프로그램
	유휴공간 재활용	빈 건물, 공실, 여유 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하는 사업방식
자금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규모 투자를 모으는 십시일반형 투자방식
	신규 민간 지원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서, 민간 창업지원 재단 등 새로운 민간 창업지원 주체

-교육, 정보, 공간, 자금의 4개 청년창업 정책분야와 소셜 창업 방식의 사교적, 사회적 구분에 따라 10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



〈그림 3-2〉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류

## 2.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교육 부문

## 1) 기업가정신 교육

- ○기업가정신 교육은 예비창업자 대상 실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의 주체인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 -기업, 재단, 정부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정부는 대학 위주의 사업시행 이 두드러지는 추세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벤처기업협회, 아산 나눔재단 등이 기업가 정신 교육 경향을 선도하며 활발하게 활동
    - · 중앙정부는 교과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중소기업청의 창업선 도대학 사업 등 청년창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 그램을 포함
  - '직업으로서의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창업에 맞는 인성, 창 의성, 도전정신 함양이 목표이며, 창업실태의 이해를 통한 창업준비, 평 가, 선택의 절차 제공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재단법인)
- 운영원칙
  - 민간 주도하에 기업가정신 확산의 포털(Portal) 및 기존기관을 활용하는 플랫폼 (Platform) 기능을 수행
- 비전 및 목표
  - 열정·도전, 창의·혁신 등 기업가정신 확산의 중추기관
  - "민간 주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기업가정신 확산의 포털 및 기존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
  - 교육, 연구, 인큐베이팅, 인프라 확산 등 4대 중점 분야에 주력

#### 〈주요 사업〉

(1표 시티/				
교육사업	·창의, 혁신역량 강화 -재단이 기업가정신 확산의 거점기관으로서 YES 리더 풀 확충 및 주관기관 확대 등을 추진 -특강을 범사회적 기업가정신 확산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초,중,고 및 대학교, 일반인 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ul> <li>기업가정신 조사 및 정책개발</li> <li>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사업 중심의 직접적인 지원사업과 함께 사회문화적, 제도적 인프라 개선이 중요</li> <li>기업가정신 저해요인 발굴 등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제시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필요</li> </ul>			
인큐베이팅	<ul> <li>엔젤매칭펀드 조성 및 운영</li> <li>-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선투자하면, 매칭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li> <li>- 기술/지식/IT 응용 등 3대 유망분야 청년창업자 3만 명 양성 지원을 통해 취업 중심의 사회진출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의 도전적 성취의 기회 제공</li> </ul>			
인프라조성	· 교류협력 및 홍보대사 -기업가정신 확산의 포털 및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의 역랑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 -기업가정신 모범사례 발굴·포상 등을 통해 청년기업인의 사기 제고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2년~2016년(2년+3년)

1단계: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 / 2년 2단계: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 및 확산 / 3년

-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1단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 정
- 사업 예산: 2013년 2,184억원/대학당 평균 42억원
- 지원 대상: 4년제 국·공·사립 대학 51개교(기술혁신형 14개, 현장밀착형 37개)

#### • 주요 사업

- 현장교육 강화 :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교육을 총괄하고, 창업강 좌·동아리 지원
- 창업교육 강화: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교육을 총괄하고, 창업강 좌·동아리 지원
- 선취업 후진학 체제 마련: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 도록 학과 개설, 교육과정 개선 등 후진학 지원
- 기업 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생 취업과 연계

#### 〈대학별 사업수행〉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 개선
산학협력단 역할 및 위상 강화	산학협력단을 대학 내 산학협력 자원과 네트워크의 허브로 구축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창업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내실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지역 산업(선도·전략)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인력양성 및 취업, 창업지원	지역 산업 및 산학협력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취업ㆍ창업 교육 및 지원
기업연계 강화	지역 및 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업 지원 강화

####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 사업 목적
  - 창업 단계별 정책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선도대학 중심으로 '창업 클러스터' 형성 유도
- 사업 개요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국 346개 대학 및 전문대학,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
  - 지원규모: 2013년 300억 원(15+3개 대학)
- 주요 사업
  - 창업교육패키지(창업강좌, 기술창업아카데미 등),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실전창 업리그 지역예선 개최 등
  - -기업가정신 교육이 확산되면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멘토 풀(pool)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교육과 실무 간 연계성이 약화될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

## 2)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의 창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인지
  - -사회적 경제에서의 창업은 상법상 회사가 아닌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등의 조직 설립이 창업의 주된 내용
  - -즉 사회적 경제에서의 창업은 창업의 기반이 되는 가치는 물론 적용하는 법제가 일반 창업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교육 적용 이 필요
    - · 상법상 회사가 아닌 조직 설립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설립 및 지원 혜택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창업 교육은 무소용

####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SESNET〉

#### •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 사회문제 해결에서 사회적기업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

#### • 설립 목적

- 저소득 소회계층에게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제공
- 저소득 소회계층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 지역사회 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
- 환경문제의 대안을 제시
- 불우한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및 개발

#### 〈주요 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 일자리 신청 상담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예비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교육     사회적기업 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연계     사회적기업 흥보 지원     자원 연계 및 협력네트워크 조직
프로보노 (probono)	· 기업 및 전문단체의 임직원 프로보노 봉사활동 기획 및 설계 · 프로보노 활동 관리 및 평가 · 프로보노와 사회적기업의 매칭 · 프로보노 매뉴얼 제공 · 활동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창업보육	-
지자체연계	-
기업연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설계 ·사회적기업과의 전략적 연계 지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홍보 지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교육
교육/연구/홍보	· 사회적기업과 프로보노 관련 조사 연구, 도서 및 자료집 발간, 세미나, 이벤트 운영 · 사이버 아카데미 교육산업 운영 · 대중매체를 통해 캠페인 및 각종 홍보 · 사회적기업 기금모금 행사

#### 〈사단법인 씨즈〉

- 설립근거
  - 비영리 사단법인
- 사업목표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조성과 모델 개발
  - 섹터 간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주요 사업
  - 사회적기업 및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 시민 기반 조성 및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 섹터 간 자원 중개
  - 지역화 모델개발
  -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델 해외 보급
  - 사회적기업 실천 연구 및 발전 모델 개발





〈서초창의허브와 씨즈〉

• 현행 법규상에서는 설립 후 사업에 보다 적합한 조직형태(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혹은 회사 등)로의 변경이 곤란하여 조직 설립 전에 각 조직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 -정부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중심으로 교육이 수행되는 추세
  -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마을공동 체지원센터 등이 주요 사례
  - •이외에도 서초창의허브에 자리 잡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기관인 씨 즈 등도 해당 경향을 선도
-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단체는 늘어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의 및 입주 공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3.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 정보 부문

## 1) 멘토링(Mentoring)

○멘토링은 멘토-맨티가 소수 그룹을 구성해 신뢰를 구축하고 소통하여 문서 화되고 정리된 지식이 아닌 노하우, 요령 등을 전수하는 도제식, 쌍방향 학 습방식



자료: 학생창업멘토링 디딤돌 페이스북 페이지 〈그림 3-3〉학생창업멘토링 디딤돌

- -최근 사회문화, 조직문화 차원에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가 빠른 창업 교육에 적합하다는 평가
- -전문가가 문서화된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리 창업을 경험한 선배의 입장에서 경험과 현 추세를 공유하는 정보 교류가 멘토링의 주요 한 내용으로 개인적인 만남에서 사교적 모임의 형태로도 발전
-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행하는 식의 창업지원 절차 개선 요소로 도입되는 사례가 다수
- -창업 멘토 풀의 적절한 인적 구성, 운영, 그리고 정기적인 갱신이 멘토링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관건

#### 〈학생창업멘토링 디딤돌(Didimdol)〉

#### 주체

- 교육과학기술부와 벤처기업협회 주관

#### • Y덴토스

-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먼저 겪은, 창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줄 선배창업자, 청년CEO들로 구성된 멘토그룹으로 사업분야별, 전 문영역 및 권역별(7개 영역) 멘토를 분류하여 멘티와 매칭

#### • 참여대상

- 전국 창업동아리 소속 또는 대학생 예비창업자(팀) 50팀

#### • 멘토방식

- 디딤돌 1:1 멘토링: 선배창업자와의 1:1멘토링(월1회 이상, 현재 활발히 사업 중인 청년 CEO로 구성된 Y멘토스가 3개월간 전담멘토로 창업활동 지원), 네트 워킹모임(월1회) \* 산학연EXPO 멘토부스 참여
- 디딤돌 그룹멘토링: SSN소속 동아리 및 지역 LINC대학 학생 대상 그룹멘토, 사업아이디어 및 추진계획 평가 및 지도

#### 〈학생창업문화로드쇼(創業知樂)〉

#### 목적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창업문화와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권역별 창업문화 축제의 장 마련

#### 주관

- 권역별 주관대학 중심(수도권: 연세대학교 중심/중부권: 한밭대학교 중심/호남 권:조선대학교 중심/동남권:울산대학교 중심)
- 참가대상:학생창업 생태계 관계자 300여명
  - 권역별 창업동아리 회원, SSN회원,재학생 등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 250여명
  - 성공 벤처기업가, 엔젤투자자 등 창업 관계자 50여명
- 주요내용:즐겁게 도전하고 행복하게 성공하는 삶을 위한 창업 한마당
  - 창업동아리 및 학생창업 활동의 성과 공유. 창업네트워킹 파티
  - 참가 학교들의 창업지원 우수사례와 성공사례 전시
  - 선배창업자의 멘토링 실행사례 및 성과 소개 등
  - 자료: 학생창업멘토링 디딤돌 페이스북 페이지

## 2) 정례/상시 네트워킹 그룹

- OSNS 플랫폼, 오프라인 정기 포럼 등은 연계하여 운영되는 느슨한 청년창 업 사업 네트워킹의 정례화 혹은 상시화
  - -인터뷰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청년창업 관련 정례/상시 네트워 킹 그룹은 모두 2010년을 전후하여 형성되고 활성화
    - •고벤처포럼, 소셜벤처포럼, 사회적 기업가 포럼 등이 주요 사례이며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청년창업 관련 정례/상시 네트워킹 그룹이 계속 증 가하는 추세

## 광화문 올레스퀘어 매월 운영







강북청년창업센터 격주 운영

〈그림 3-4〉 고벤처포럼, 소셜벤처포럼, 사회적 기업가 포럼

- -투자자, 기업가, 공공기관, 개인 등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킹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
- -2010년 이후 활성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SNS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쉽게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청년창업 관련 행위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상시적, 즉시적으로 정보, 모임,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도입



〈그림 3-5〉 위즈돔(Wisdome) (http://wisdo.me/)



〈그림 3-6〉 온오프믹스(OnOffMix) (http://www.onoffmi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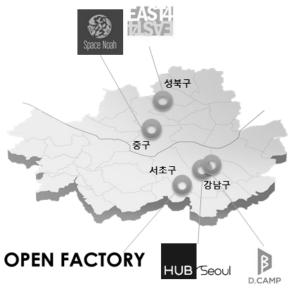
-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평적인 플랫 폼에서 시작
- ·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에 특화된 수직적인 플랫폼인 위즈돔, 온오프라 인 등이 국내 청년창업 관련 네트워킹 그룹 형성에 기여
- 즉각적인 창업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창업이 번성할 수 있는 토대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청년창업 생태계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평가

## 4.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 공간 부문

## 1) 코워킹(Coworking)

- 코워킹은 같이/함께(Co-) 일하기(Working)라는 의미로 전문지식을 가진 개 인들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지식과 노하우 공유를 촉발하는 새로운 업무형태
  - -멤버십, 월 회비, 일일 사용권 등 다양한 사용 방식을 통해 운영
  - -1인 창조 기업, 프리랜서 등이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찾던 중에 고안된 공간으로 협업을 유발하는 공간적 특성 보유
    - 현재 서울시 내에는 스페이스 노아, 허브 서울, D.Camp, EAST4 Parking, 오픈 팩토리 등의 코워킹 공간이 운영 중12)

<sup>12)</sup> 이수경, 2013, "서울시 코워킹(co-working) 공간지도", beSUCCESS 2013.05.20



〈그림 3-7〉 서울시내 코워킹 공간 위치



(그림 3-8) 서울시내 코워킹 공간 사례

### 〈표 3-2〉 서울시 주요 코워킹 공간 개요

명칭	내용		
스페이스 노아	주소	서울시 중구 북창동 11-6	
	공간개요	•위키룸과 위미디어랩(Mac 제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 가능 - 아이맥 컴퓨터 및 OA서비스(복사, 팩스, 스캔)가 무료 제공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5길 17 1층	
허브 서울	공간개요	• Co-working Area —업무나 회원들 간에 협업을 위해 셋팅 —오피스용 의자와 데스크 20석 —6~8인용 미팅룸 1개 —락커 32개 구비 • Lounge —카페 • Loft — 휴식공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3-34 새롬빌딩 4~6층	
D <sub>.</sub> Camp	공간개요	•500평 규모에 협업공간, 보육공간, 다목적홀로 구성 -보육공간은 창업지원기관 추천스타트업, 케이스타트업 및 청년창업사 관학교우수팀이 사용 가능한 사무공간 -협업공간의 경우 창업자면 무료 이용 가능	
EACTA Dorlaina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02-4번지	
EAST4 Parking	공간개요	-	
오픈 팩토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08-21 3층	
	공간개요	• 스낵바 서비스와 공간 제공 -월 120,000원에 가입(평일 10:00 ~ 22:00, 주말 10:00 ~ 18:00) -커피, 음료, 스낵을 자유롭게 이용 -원하는 프로젝트, 수업, 워크숍을 만들거나 참여	

#### 〈스페이스 노아〉

- 스페이스 노아는 Co-working 커뮤니티와 모바일 오피스, 콘텐츠 네트워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시청역 인근에 위치함
  - 강연자와 기획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A Base Camp for Social Innovator'라는 모토를 걸고 운영
  - Co-Working 서비스와 공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허브'와 명동의 '청어 람'을 참고함
  - 서비스는 크게 Co-Working, 세미나실과 강연장 대관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개 발 등으로 이루어짐





〈스페이스 노아 홈페이지〉

- 공간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임 테이블제'를 운영하여 3시간 단위로 공간 을 대관함
  - Spark Room :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발상이 터지는 공간
  - Wiki Room : 작은 지식단위들이 쌓이고 쌓여 집단이 된다는 위키피아에서 따온 공간
  - We-Media-Lab: 좋은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들이 생산되길 바라는 공간
  - Connect Hall: 사업의 본질인 Connect를 만드는 열린 공간



자료: 스페이스 노아 홈페이지

〈스페이스 노아 공간구성〉

#### (D.C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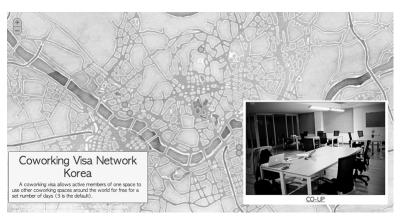
- D.CAMP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DREAMBANK)이 운영하는 복합창업 생태계 허브
  - D.CAMP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기업가정신센터 주관으로 2013년 3월 개관하여,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투자자, 각종 지원 기관이 협업하고 교류하는 '열린 장'의 역할을 수행
  - D.CAMP는 크게 협업공간, 보육공간, 다목적홀로 구성되었으며 4층 협업공간은 멤버십에 가입한 스타트업 관계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며 회원에게는 다음의 혜택이 제공
    - 협업 공간 사용
    - · 각종 회의실 예약 · 사용
    - 회원 간 네트워크 기회 제공
    - •재단 및 센터 주최 각종 행사의 우선 참여권
    -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컨설팅 기회 제공
    - 온라인 플랫폼 사용 권한 및 센터 공간 활용 우선권
    - •활동상에 따른 재단의 투자 및 인큐베이팅 대상 선정 시 가산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REAMBANK)은 2012년 5월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20개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출범한 비영리 재단
  -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투자(돈)', '네트워크(사람)', '허브(공간)'라는 창업 생태계 3대요소를 연결하고, 선순환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
  - 구체적인 활동으로 소액 직접 투자, 전문 운용사와 함께 하는 간접 투자, 창업 생태계 허브인 D.CAMP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파트너 기관들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을 수행
  - -개인 업무뿐만 아니라 창업 예비자가 팀 조직을 위해 구성원을 찾는 공 간, 창업 초기 기업이 사무실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등 청년창업 지 원에 유용한 공간적 활용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
    - 국제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코워킹 기관인 허브 Hub의 서울 지부격인 허브 서울은 최근 유망한 사회적기업으로 부상한 마이 리얼 트립(My Real Trip)이 팀 조직 초기부터 뿌리를 내린 공간
  - 코워킹 공간이 확산되면서 코워킹 공간 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

-해외에서와 같이 코워킹 비자를 통해 여러 곳의 코워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은 아직 시기상조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인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 등은 시행 중

#### 〈코워킹 비자(Coworking VISA)〉

#### 개요

- 여러 코워킹 공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코워킹 공간 한 곳에 소속 된 회원이 코워킹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코워킹 공간을 이용할 때 추가적인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코워킹 공간이 코워킹 비자를 조직할 수도 있으며. Coworking Wiki의 The Coworking Visa 프로젝트처럼 전 세계 200여개의 코 워킹 공간이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존재
- 국내에서는 코워킹 공간 Co-up(현재 운영하지 않음)를 중심으로 한국 코워킹 비 자 네트워크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뚜렷한 결과를 낳는 데는 실패



자료: Co-up 홈페이지

(코워킹 비자 네트워크 코리아 제안)

####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
  - 2011년 제정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이며 관련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중기청이 공시
  -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함께 창업 및 동업하여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족기업, 도제 기업은 대표자 포함 4명까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1인 창조기업으로 회원가입 후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를 발급받으면 전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이용 가능
  - 1인 창조기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수의 비즈니스 센터를 회원 카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2013년부터 '창업넷'에서 정부 창업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으며 1인 창조기업 신청도 '창업넷'에서 가능
  - -1인 창조기업 회원 가입 후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서 '패밀리카드'수령
  - 이후 정부에 등록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원
    - •사무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세무, 회계, 법률, 특허, 컨설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 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 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 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자료 : 르호봇 비즈니스 센터 홈페이지

〈서울시내 최대 1인 창조기업 민간 비즈니스 센터 르호봇〉

# 2) 첨단 공방형 생산

○첨단 공방형 생산 공간은 디지털 시대의 생산 작업장으로서 디지털 제작 장비로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드는 공동작업실을 의미

- -원래 MIT 미디어 랩의 닐 거센펠드가 저서 '팹(Fab)'에서 주창한 퍼스널 패브리케이션(Personal Fabrication)의 아이디어에서 예견되었고, 최근 국제적인 제작자 운동과 맞물려 확산 일로(크리스 앤더슨, 2013)
- -코워킹과 유사하게 멤버십, 월 회비, 일일 사용권 등 다양한 사용 방식을 통해 운영하며 장비 교육과 대여가 주요 업무
- -3D 프린터, 수치제어 밀링머신 등 디지털 제작 장비를 사용하여 대량생산이 아닌 소규모 배치 생산을 공방 수준의 규모에서 실현
- 현재 서울에는 첨단 공방형 생산 운동 네트워크의 한 결절로서 첨단 공 방형 생산 공간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준
  - 아직 독자적인 첨단 공방형 생산 공간은 없고 팹랩, 해커스페이스와 같이 국제적인 브랜드하에서 서울에 지역 공간을 개장한 사례만 존재
  - •이 공간들은 국제 네트워크 운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공간의 활용성이 높다는 장점을 보유

#### 〈팹랩 서울〉

- 팹랩(Fab Lab)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제작기술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명을 촉진하는 랩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로, '제조연구소(Fabrication+Laboratory)' 라고 할 수 있음
  - 팹랩은 1998년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이 장비를 이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 제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시작됨
  -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이런 소규모 '제조업 허브 (hub)'를 만들기 시작해 현재 51개국에서 241개 팹랩이 운영 중

#### 〈팹랩(Fab Lab)에서 사용하는 장비〉

장비	용도	가공재료	가격
레이저 커터	레이저로 재료 절단	• 종이, 목재, 가죽 등	1,000만 원대
CNC 라우터	회전 톱날로 재료 가공	• 목재, 알루미늄 등	2,000만 원대
탁상용 CNC밀링	회로기판 등 정밀 가공	• 회로기판, 왁스 등	500만 원대
비닐 커터	평면재료 가공	· 종이, 스티커 등	100만 원대
3D 프린터	컴퓨터설계제품 입체 출력	· ABS 등 합성수지	100~200만 원

자료: TIDE Institute

- 팹랩 서울(Fab Lab Seoul)은 창업지원재단인 타이드인스티튜트(TIDE Institute) 가 세운상가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세운상가에 설립
  - 세운상가는 과거 '세운상가에 없는 물건은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말이 있었을 만 큼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으나 재개발 계획 무산과 경기 부진 등으로 최근 침체
  - 타이드인스티튜트는 세운상가에 국내 최초로 '팹랩서울'을 설립해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메이커(Maker) 운동'과 연결되어 세운상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 공학자, 예술가, 발명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의 제작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공간
- 팹랩 서울은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대회'에 선정되어 2013년 1월 28일부터 2013년 3월 8일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금
  - 타이드인스티튜트는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희망제작소. 사단법인 씨즈 등 6개 비 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에 참가해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43개 팀 중 하나로 선정
  - '굿펀딩'에서 2013년 1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 금한 결과 61명의 참여로 5,131,000원이 모금되어 목표금액의 102%를 달성
  - 이후에는 멤버십을 통해 회원제로 유영되고 있으며, 비회원들이 무료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픈데이'를 운영
  - 후원자에게는 멤버십. 워크숍 수강권. 기념품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그림 3-9) 서울시내 첨단 공방형 생산 공간 위치



〈그림 3-10〉서울시내 첨단 공방형 생산 공간 사례

- -원래는 도심 제조업의 미래상, DIY(Do-It-Yourself) 문화에서 DIWO (Do-It-With-Others) 문화로의 확장 등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
- -현재 한국에서는 손쉬운 시제품 및 맞춤형 소량 배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실정

# 3)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sup>13)</sup>

○엑셀러레이터는 선별한 예비 혹은 초기 창업자를 3~6개월의 단기간에 집중 보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쟁적인 선별절차, 초기창업 준비금 투자와 보육공간 제공, 기수별로 선별한 모든 팀에게 교육과 멘토링을 집중하는 특징을 보유 -2000년 후반부터 실리콘 밸리 등 해외 IT 클러스터에서 엑셀러레이터 졸업 기업이 대박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행처럼 확산

<sup>13)</sup> 이 절은 공동연구 위탁원고인 맹승은(2013)의 내용을 상당부분 사용

•미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으로 각광

〈표 3-3〉미국 내 주요 엑셀러레이터 기업(2012)

구분	기업명		
2012 Top Fifteen USA Startup Accelerators	Y Combinator     KICKLABS     Excelerate     Techstars New York, NY     LAUNCHPAD LA     Dreamit     NYCSeedStart     Enterpreneurs Roundtable Ac	Techstars Boulder, CO  i/o Ventures  AngelPad  Techstars Boston, MA  500startups  Techstars Seattle, WQ  Brandery	

자료: TECH COCKTAIL (http://tech.co/top-startup-accelerators-ranked-2012-08)

-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로 손꼽히는 Y Combinator 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Airbnb와 개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선도기업 Dropbox 등을 배출
- · 2012년 미국 내 엑셀러레이터 1위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 Y Combinator가 배출한 기업의 시장가치는 총 78억 달러에 육박나)
- ·이외에도 TechStars, 500 Startups, Launchpad 등 다수 활동 중
- -공모로 팀을 모집하며, 선별된 팀은 단기간에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을 거쳐 사업화를 추진
- -투자자, 졸업 팀, 성공벤처기업 등이 예비 혹은 초기 창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논하는 방식이 핵심
- -최종일 팀별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투자유치 IR을 진행하는 데모데 이를 개최하며, 여기서 실제 투자를 유치하여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
- ○엑셀러레이터는 기존의 창업보육센터 시스템과 보육기간, 초기투자 유무, 주요 프로그램, 지원 단위에서 차이가 존재

<sup>14)</sup> Geron, T., 2012, "Top Startup Incubators and Accelerators: Y Combinator Tops with \$7.8 Billion in Value", Forbes 2012.04.30.

#### 〈표 3-4〉 엑셀러레이터와 창업보육센터의 비교

구분	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보육기간	· 단기(3~6개월)	· 장기(3~5년)
초기투자	· 소액 지분투자	· 없
주요 프로그램	·전문적 초기 육성 프로그램	·경영 지원 서비스
지원 단위	·기수별 집단 지원	·개별 지원

#### 〈해외 엑셀러레이터〉

#### Y Combinator

- 벤처 투자의 전설 폴 그레엄 등이 설립한 대표적 엑셀러레이터로, 6년간 316개 기업에 기업당 평균 18,000달러를 투자함
-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네티즌과 즉석 문답을 벌여 화제가 된 소셜뉴스 서비스 레딧(Reddit), 여행객에게 자기 집이나 방을 제공하는 파격적 숙박 시스템 으로 공유 경제 대표 주자로 꼽히는 숙박시설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 등을 키워냄

#### • 500Startups

- 초기기업(Early Stage Companies)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사업 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세계 160여명의 경험 많은 초기기업 멘토의 멘토링 사업 및 실리콘 밸리에 창조적 인 사업공간 및 커뮤니티 제공
- 지금까지 총 213개 회사에 투자했고, 사업 출발 자금(seed money)으로 1만~2만 5,000달러 지급

#### • Techst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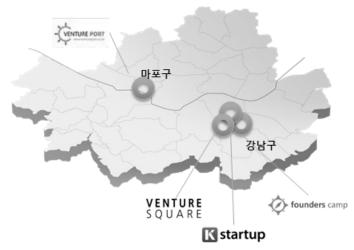
- 테크스타 프로그램은 초기기업 대상 멘토십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0달러와 공짜 사무실 등을 제공
- 프로그램당 10개 내외 초기기업을 선정해 보스턴, 뉴욕, 시애틀 등 미국 곳곳에서 사업 공간과 사업화 교육 과정 제공
- 약 3개월간 멘토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75개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자로부터 조성한 초기투자자금을 제공
- ○국내 엑셀러레이터 또한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와 마찬가지로 민간중 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구조

-2012년 중기청에서 한국형 엑셀러레이터로 벤처스퀘어, 레인디, 닷네임 코리아, 벤처포트의 4곳을 지정해 운영

(표 3-5) 중기청 한국형 엑셀러레이터 지정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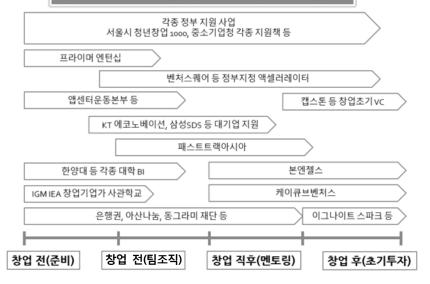
기업명	특징	유형
(주)벤처스퀘어	· 스타트업 및 벤처 전문 온라인 미디어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멘토 연계 방식을 취함	네트워크형 엑셀러레이터
(주)레인디	· 창업기업 멘토링 전도사로, 그간의 기업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교습 방식을 취함	밀착형 엑셀러레이터
(주)닷네임코리아	·도메인 등록기업으로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인터넷 분야 창업기업들의 상품화 개발을 함께 지원함	고유사업 기반형 엑셀러레이터
(주)벤처포트	· 인큐베이팅 전문기업으로, campus CEO 프로그램 운영경험 등을 바탕으로 마젤란 기술투자와 연계함	벤처캐피탈 투자 연계형 엑셀러레이터

- -이외에도 90년대 말 벤처붐을 이끌었던 '벤처 1세대'들의 주도하에 프라 이머 등 자생적 엑셀러레이터 활동이 시작
- -최근의 예로는 글로벌 창업을 목표로 구글, 앱센터운동본부 등이 협력하 여 운영을 시작한 K-Startup 프로그램도 엑셀러레이터의 사례



〈그림 3-11〉서울시내 주요 엑셀러레이터 위치

# 국내 민간 창업지원 생태계 조감도



자료: 명승은(2013)

〈그림 3-12〉 국내 민간 창업지원 생태계 조감도

#### 〈벤처스퀘어〉

- 벤처스퀘어는 벤처 네트워크 허브 형성과 스타트업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국내 1차 중소기업청 엑셀러레이터로 선정
  - 2012년 중소기업청은 한국 청년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벤처스퀘어, 레이디, 닷네임코리아, 벤처포트의 4곳을 한국형 엑셀러레이터로 선정함
  - 벤처스퀘어는 르호봇 비즈니스센터, PAG&파트너스,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와 연계한 네트워크형 엑셀러레이터
  - 벤처스퀘어와 쿨리지코어 인베스트먼트가 보육과 멘토링을, PAG&파트너스가 초기투자를, 르호봇 비즈니스센터가 사업공간을 맡아 수행
- 벤처스퀘어는 벤처기업을 비롯해 1인 창조기업과 청년 기업가를 위한 새로운 개념 의 스타트업 및 벤처전문 온라인 미디어
  - 벤처스퀘어는 소셜 네트워크와 뉴미디어 기반의 사회적 온라인 미디어를 목표로 함
  - 다양한 벤처기업과 벤처인 관련 정보와 소식의 데이터베이스화, 기술 전망과 트

렌드 멘토링 및 컨설팅 시스템, 벤처 창업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벤처와 1인 창조기업의 및 청년 기업가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의 공간 역할 수행

- 또한, 해외 벤처 미디어들과의 데이터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모색



〈벤처스퀘어〉

#### (K-Startup)

- KStartup은 앱센터운동본부의 하위 조직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꾀하는 독특한 엑셀러레이터
  - 구글의 'Google for Entrepreneurs' 프로그램의 첫 아시아 엑셀러레이터 파트너로 선정
- KStartup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
  - 100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개발 공간 지원(D.Camp 공간 제휴 등)
  - 구글 등 국제 네트워킹을 통한 국내외 유명 멘토들의 멘토링
  - 엔젤 및 벤처캐피털들과의 네트워킹
  - 법률. 특허 및 행정 지원
  - 초기 투자금 지원(투자조건은 개별 결정)





(K-Startup)

# 4) 유휴공간 재활용

- ○유휴공간 재활용은 청년창업 관련 공간의 확보를 위해 방치된 건물(공장, 사무실, 시장 등)의 재활용과 현재 공실인 공간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행
  - 독자적인 새로운 청년창업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청년창업 지원 방식을 구현하는 절차상의 새로운 경향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 건축을 기피하는 추세와 지역 상권 쇠락에 따른 유휴공간 출현 추세가 동시에 발현
  - -한편으로는 지역문화를 보존 반영하는 공간 재활용이 가능하며, 지속가 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도 호응하는 방향
  - -민간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도 있지만 공공 부문에서도 예전부터 제한적 인 예산 때문에 종종 선택했던 방식
    -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이 경향을 따른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의 하나는 버려진 전통시장 2층을 청년들이 참여한 공동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활성화하는 데 성공한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또한 모두 기존 청사나 유휴공간에 입

주해 있는 상황

- •최근에도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조성 중인 사회혁신파크에 입주를 완료한 청년일자리허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이모두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
- 또한 도곡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여성창업플라자 역시 지하철 유휴공간을 이용해 창업지원공간을 확보한 최근의 사례

####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은 2012년 5월 시장 2층에 조성된 청년 창업 소셜 플랫폼 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으로 조성됨
  - 전주 남부시장은 재래시장부활프로젝트인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에 2011년 서울 남문시장 및 충남 홍성 전통시장과 함께 선정
  - 청년몰은 사회적기업 '이음'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가 지원한 '청년 장사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
  - 창업 의욕을 지닌 청년 창업가들에게 1년간 점포 임대비와 리모델링비 300만원, 문화마케팅비 250만원,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2012년 5월 12개 점포로 시작하여. 2013년 3월 현재 16개의 점포 성업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간판〉

• '청년장사꾼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장사꾼의 육성으로 전통시장인 남부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년장사꾼, 젊은 고객 및 새로운 문화가 엮어내는 문화생태계 다양성으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 문화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통한 젊은 관광객 유인으로 시장 이미지 개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 청년몰은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
  - 방치되어 있던 시장 2층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생 방 안을 모색
  - -5월부터 10월까지 첫째·셋째 주에는 토요 야시장을, 둘째·넷째 주에는 각종 파티와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청년의 활력이 시장의 전통성과 창조적으로 결합·융합할 수 있는 모델로 전통 시장을 관광문화형 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그림 3-13〉 불광동 사회혁신파크와 도곡역 여성창업플라자

# 5. 소셜 창업의 10대 경향 분석 : 자금 부문

# 1)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크라우드펀딩은 십시일반식 투자로서 소규모 후원,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 터넷 등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법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소셜펀딩(social funding) 이라고도 지칭
  - -투자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 대출, 후원, 기부 등이 가능하나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후원과 기부 측면에서의 크라우드펀딩에 치중
    - · 영국의 인디고고(Indiegogo), 미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의 성공이 크라우드펀딩의 대중화를 촉진
    - ·국내에서는 '제작두레'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후원, 기부 플랫폼이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선도
    - · 굿펀딩, 텀블벅, 업스타트, 오픈트레이드 등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현재 운영 중

#### 〈크라우드펀딩 킥스타터〉

- 킥스타터는 미국에서 2009년 설립된 기부, 후원 방식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크라우드펀딩 기업을 대표함
- 2012년 177개국 220만 명의 참여자로부터 약 3억 2천만 달러의 펀딩 약정금액을 성사시키며 크라우드펀딩 선도기업 위상을 확고히 함
  - 건수로는 음악이 5,067건으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금액별로는 게 임분야가 8천3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펀딩금액을 기록함
  - 17개 프로젝트가 1백만 달러(약 10억워) 이상의 펀딩을 받음

#### 〈킥스타터 2012년 주요 실적〉

구분	실적
참여자수(명)	2,241,475
약정금액(달러)	319,786,629
중개 성공건수(건)	18,109
1분당 약정금액(달러)	607
2건 이상 후원자수(명)	570,672
10건 이상 후원자수(명)	50,047
100건 이상 후원자수(명)	452
후원자 국가수(개)	177

자료: 킥스타터 홈페이지

#### 〈영화 '26년' 제작두레〉

- 제작두레란 대기업의 투자 없이는 영화제작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두레'를 본받아 시민의 힘으로 제작비를 마련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새로운 방식임
- 영화 '26년' 제작두레 프로젝트는 2012년 6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4개월간 진 행됨
  - 이 기간에 총 1만 5천여명이 참여했고 7억 3,599만원이 모금됨
  - 제작비 후원은 2만원권, 5만원권, 29만원권 등으로 할 수 있음
  - 제작두레에 참여한 관객은 전국 6대 도시에서 열릴 영화 시사회권과 특별포스터, 소장용 DVD, 미공개 제작정보, 엔딩크레딧에 이름 올리기 등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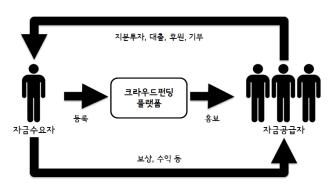
-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 대출, 보상, 후원 등으 로 분류함(KB 경영연구소, 2012)
  - -지분투자(Equity-based): 신생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 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 취득. 수익 창출이 목적
  - -대출(Lending-based):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수취가 목적 이며 온라인 마이크로크레딧, P2P 금융(Peer to peer finance) 등이 해당

〈표 3-6〉 크라우드펀딩의 분류 및 사례

구분	설명
지분투자	·소규모 창업 또는 아이디어에 투자
(Equity-based)	·사례 : 오퍼튠
대출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소액 대출
(Lending-based)	· 사례 : 오퍼튠, 머니옥션, 팝펀딩
후원	· 창조적인 프로젝트에 소규모 후원
(Reward-based)	· 사례 : 텀블벅, 펀듀, 굿펀딩
기부	·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 기부
(Donation-based)	· 사례 : 해피빈

자료: Crowdsourcing.org, KB 경영연구소(2012)

- -후원(Reward-based): 다수 후원자가 모금자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전적 보상 이외의 형태로 일정 부문을 보상받는 유형이며 공연,음악,영화,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
- -기부(Donation-based): 후원 형식의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지만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



자료: KB 경영연구소(2012)

〈그림 3-14〉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조

-대안적인 창업투자법으로 주목 받은 것은 최근의 일로 지분투자형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 중이며 이를 이용한 정책 시행 계획이 수립 •미국의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내에서도 창조경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강조15)

<sup>15)</sup> 장원수, 2013,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 도우미'로 정착하나", 한국일보 2013.06.03.

#### 〈JOBS 법안〉

- JOBS법은 미국의 신생기업육성법으로 신생기업 투자자금 유치 및 상장을 용이하 게 하여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마련된 법
  - 2011년 9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의 JOBS법 국회 승인요청 연설을 통해 소개되어 2012년 4월 제정됨
- 신생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자본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기업공개 및 상장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신생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핵심내용임
  - 새로운 자금조달 트렌드를 제시한 크라우드펀딩을 합법화
  - 금융투자업자인 중개업자 이외 펀딩포털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 가능
  -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
  -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감면 차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국내 크라우드펀딩 산업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조달금액 기준으로는 대출(Lending-based) 방식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수 기준으로는 후원(Donation-based) 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대출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업체들(오퍼튠, 머니옥션, 팝펀딩 등)은 2007년을 전후해서 설립되어 약 1,787억원을 조달해, 2011년 이후 설립된 후원 및 기부 형식의 업체에 비해 월등한 규모임
    - 오퍼튠은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기업대출 및 지분투자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머니옥션과 팝펀딩은 저소 득층,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업무에 집중
  - -후원 및 기부 방식의 업체들(텀블벅, 펀듀, 콘크리트 등)은 짧은 사업기 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400개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 중
    - 이들 업체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공연, 전시 및 음반 등 예술 분야와 출판, 영화 제작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지원이 대부분이며, 소규모 창업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일정 부분을 차지함

〈표 3-7〉국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업체

유형	업체	특징
	텀블벅	·문화 예술 중심 170여건의 프로젝트가 완료 또는 진행 중
흥이	펀듀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IT/벤처 등 다양한 콘텐츠에 펀딩
후원	굿펀딩	·영화 '26년' 제작 후원금 모금으로 유명
	업스타트	·주로 소규모 창작 프로젝트 후원
후원/기부	콘크리트	·주로 예술 및 복지 분야 후원 또는 기부
후원/지분투자/대출	오퍼튠	·기업을 위한 후원, 지분투자, 대출 등의 크라우드펀딩 지원
rllå	머니옥션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액 대출
대출	팝펀딩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액 대출

자료: KB 경영연구소(2012)

### 2) 신규 민간 지원처

- ○정부, 금융권, 신보 등의 전통적인 지원처 외에 대기업, 재단 등이 청년창 업의 새로운 지원처로 부상
  -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는 대기업, 사회적 목적을 표방한 재단 등이 청년창업 지원에서 중량감 있는 행위자로 등장
    - 청년창업에서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아산 나눔 재단 등의 활동이 두 드러지며, 사회적기업 지원에서는 아쇼카 재단의 서울 지부가 최근 본 격적으로 참여
    - 다소 벤처와 IT부문에 국한된 면도 있으나 KT의 이코노베이션, SK의 상생혁신센터, 삼성의 sGen Global, 네오위즈게임즈의 네오플라이, 넥슨의 NPC,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스파크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청년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추세16)

<sup>16)</sup> 김병주, 2012, "IT업계에 부는 '스타트업 지원' 바람', 이투데이 2012.11.27; 명승은, 2013

#### 〈은행권 청년창업 재단〉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REAMBANK)은 2012년 5월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20개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출범한 비영리 재단
  -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투자(돈)', '네트워크(사람)', '허브(공간)'라는 창업 생태계 3대요소를 연결하고, 선순환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
  - 구체적인 활동으로 소액 직접 투자, 전문 운용사와 함께 하는 간접 투자, 창업 생태계 허브인 D.CAMP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파트너 기관들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을 수행

#### 〈아쇼카 재단 한국〉

-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기업자를 양성해온 아쇼카 재단(Ashoka Foundation)이 2012년 한국 진출
  -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조직으로도 유명
  - 1980년 5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연간 3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30여개국에서 400여명의 직원을 운용하는 규모로 성장
  - 주요 사업으로 매년 약 150~200여명의 아쇼카 펠로우를 선발 지원하며 현재까지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약 3,000명의 아쇼카 펠로우를 선발
    -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 기업가적 자질, 아이디어의 사회적 임팩트, 윤리적 소양 등 5대 기준을 따르는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유명
    - 선발된 아쇼카 펠로우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급여와 멘토링, 네트워킹을 지원
  - 이외에도 아이디어 오픈 소싱, 기업 시민 섹터 연계 프로그램, 청년 벤처, 대학에서의 사회적 기업가 교육 등의 사업 수행
  - 기부 모금이 주요 예산 원천으로 국내에서도 현대백화점그룹이 아쇼카 재단 한 국과 사회적 후원 파트너십을 맺고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례 존재
  -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앞서 구분한 교육, 정보, 공간, 자 금을 포괄하는 모든 청년창업 지원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지원 시행
  - -예비창업자 일부는 처음부터 이러한 대기업 프로젝트를 통하면 결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기업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우려를 제기

# 제<sub>4</sub>장 소셜 창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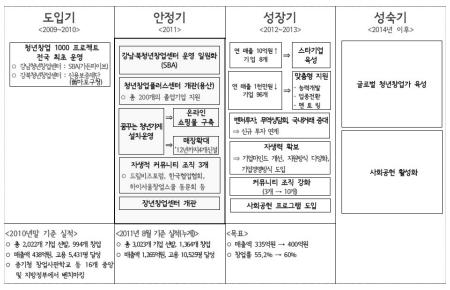
제1절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 개선 방향 제3절 소셜 창업 방식을 통한 청년창업 정책 개선방안

# 소셜 창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바아

# 제1절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 현황과 문제점

- 1.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현황
  - 1)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 연혁
  -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나 최근 새로운 패러다 임의 도입을 통한 변신을 꾀하여야 하는 단계
    - -2009년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가 전국 최초로 운영 시작
      - · 강남청년창업센터는 SBA 관리하에 가든파이브에서 개장
      - 강북청년창업센터는 신용보증재단 관리하에 구 마포구청 자리에 개장
    - -2011년 판매 및 졸업기업 지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
      - · 강남북청년창업센터 운영을 SBA로 일원화
      - 강남북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공판장인 '꿈꾸는 청년가게'를 신촌에 개장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DNI 몰' 구축
      - 졸업기업에게 창업공간과 지원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청년창업플러 스센터 역시 SBA 관리하에 용산에 개관
    - -2012~2013년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기조가 변화하는 시기

- · 꿈꾸는 청년가게 2호점이 2013년 명동에 신설되는 등 기존 사업의 연 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존재
- 자생력 확보, 커뮤니티 조직 강화,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기존 생태계를 안정시키려는 시도와 더불어 스타기업 육성, 맞춤형 지원 등 성장에 대한 가치가 동시에 표출
-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청, 청년창 업지원센터 관리에서 경쟁체계 재도입 등 청년창업 지원의 기조를 재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존재
- ·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설립되어 기존과 다른 방식의 일자리 창출 시도가 제도화된 것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4-1〉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발전과정

# 2) 서울시 청년창업 예산

- ○서울시의 청년층 실업자 비중은 37.8%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할당된 예산 비중은 25.5%로 이에 미치지 못함
- ○서울시의 지원정책은 크게 직접일자리 및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 금, 창업지원으로 분류되는데, 청년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접일자리임
  - -그러나 다른 지원 대상에 비해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에 할당된 예산이 큰 편으로 청년창업 지원 예산은 약 200억원 수준 유지(2013년 198억원)
  - -다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대부분이 직접일자리에 몰려있으나, 청년층은 직접일자리와 직업훈련, 창업지원의 비중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음

〈표 4-1〉 서울시 대상별 일자리 예산(2012)

(단위: 천명, 억원, %)

정책대상	실업자 (비중)	예산(비중)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225 (100%)	3,885 (100%)	2,850 (73.4%)	531 (13.7%)	145 (3.7%)	69 (1.8%)	290 (7.5%)
청년	85 (37 <sub>.</sub> 8%)	991 (25,5)	391	287	56	46	212
여성	40 (17 <u>.</u> 8%)	523 (13.5)	396	89	22	-	16
어르신	20 (8.9%)	523 (13.5)	454	-	33	6	30
저소득층	(160가구)	602 (15.5)	602	-	-	-	-
장애인	15(추정)	56 (1.5)	43	-	13	-	-
일반시민	-	1,190 (30,6)	964	155	21	17	32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일자리 취약 정책 대상인 청년층에 특화된 정책이 시행 중
  - -전체적으로는 직접일자리 비중(73.4%)이 높으나, 청년층 대상은 직업훈 련, 창업지원에 초점
  - -청년층 실업자 비중(37.8%) 대비 예산 비중(25.5%)이 낮다는 인식하에 예산 할당 확대를 논의 중임

# 2.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

# 1)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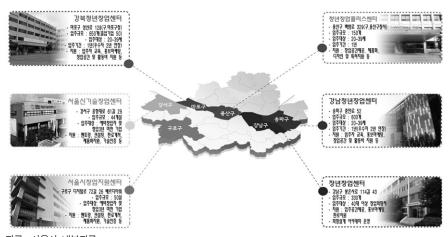
### (1) 지원시설 현황

- ○총 6개의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개가 청년창업 관련 시설
  - -창업지원시설은 강북청년창업센터, 강남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장년창업센터,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등 6개
  - -이 중 강북청년창업센터, 강남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가 청 년창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규모가 매우 큰 시설

〈표 4-2〉 서울시 운영 창업지원센터 현황

(단위 : 천원)

센터명	소재지	개관일	예산
강북청년창업센터	마포구 성산동	2009. 07	
강남청년창업센터	송파구 문정동	2009. 07	18,234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용산구 원효로	2011. 07	
 장년창업센터	강남구 삼성동	2011. 08	2,762
서울시창업지원센터	구로구 구로동	2009. 09	1,206
서울신기술창업센터	강서구 등촌동	1995. 09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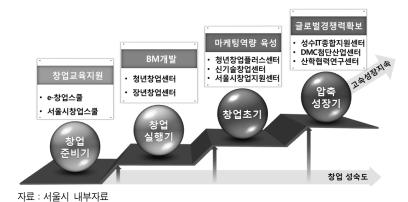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4-2〉 서울시내 창업지원센터 현황

### (2) 지원 업무체계

- ○단계별 지원 과정
  - -창업준비: 정보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
  - -예비창업보육: 창업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는 단계
  - -창업보육: 보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단계
  - -기업성장: 보육과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단계
- ○일반적으로 센터별로 2개 이상의 단계를 지원하고 있음
  - -창업입문에서부터 기업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대학생, 청년, 장년 등 계층별 지원체계 구축
  -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보육, 창업자금, 판로개척 등 입체적인 지원시 스텍 구축
  - -청년창업프로젝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전국 확산(16개 광역시·도 시행)



〈그림 4-3〉서울시 창업지원 업무체계

# 2) 서울시 창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 (1) 주요 프로그램

○대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청년창업프로젝트, 장 년층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서울시 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

- ○대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 -창업실전강좌, 컨설팅, 창업투어 및 특강,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캠프, 우수창업 동아리 지원 등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e-창업스쿨(온라인), 서울시창업스쿨(오프라인)
- ○청년창업프로젝트
  -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식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의 세 분야로 모 집하며 창업공간과 관리비, 사무실집기, 재정 등 지원
- ○장년층 창업지원
  - -40세 이상으로 희망하는 창업분야의 교육 이수자에게 창업공간, 창업실 습공간, 심층컨설팅, 마케팅, 홍보, 기술개발 등 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보육실, 회의실, 교육실, 제품보관실, 제품홍보실, 제품촬영실 등 시설 제공
  - -기술지도 및 경영컨설팅, 교육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서울시 창업자금 지원
  - -보증지원 방식으로 총 1,150억원 규모

# (2) 청년창업프로젝트

- ○서울시 창업스쿨을 통한 체계적인 창업교육
  -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창업기초에서부터 심화과정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표 4-3〉서울시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내용

구분	온라인 (e-창업스쿨)	오프라인 (서울시창업스쿨)
교육과정	· 창업일반과정 · 창업기초교육 · 창업기본과정 · 업종별 기본교육	·창업전문과정 ·업종별 전문교육 및 실습
모집기간	제한없음	연 2회 모집(3월, 8월)
교육기간	상시운영	9~10주(100시간 내외)
신청방법	회원가입 후 수강과목 신청	온라인 신청 및 심사/선발

#### 〈표 4-4〉서울시 창업지원 과정

과정	내용
창업일반과정	창업트렌드, 업종전망, 창업절차 및 인허가 실무, 사업계획서 작성 등 27개 과정
창업기본과정	패션, 인터넷,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스마트앱 등 8개 과정
창업전문과정	창업입문, 카페창업, 외식, 도·소매 유통, 온라인 쇼핑몰, 지식·서비스, 경영 컨설팅, 제품기술벤처 등 총 10개 과정

# ○지원대상 및 모집분야

-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희망자를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지원 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성공창업과 기업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의 자아실현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
- -모집분야 및 업종은 다음 <표 4-5>와 같음

#### 〈표 4-5〉 서울시 청년창업지원 모집분야 및 업종

모집분야	업종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 컨설팅, 번역, 웹디자인, 통신, 오락, 문화, 영상, 운동, 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디자인 등
일반창업	음식, 유통업, 인터넷쇼핑몰, 아이디어창업 등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4-4〉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역별 현황

### ○입주 및 재정지원

- -강북청년창업센터와 강남청년창업센터의 두 곳에 각각 650개 기업씩 총 1,300개의 창업공간 지원
-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정보자료실 등 운영
- -정기평가 성적에 따라 창업아이템 개발비, 활동비 등 재정지원

〈표 4-6〉 서울시 청년창업 활동비 지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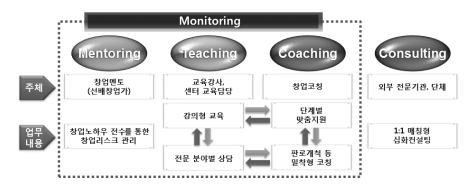
구분	내용			
지급등급	А	В	С	D
지급비율	20%	50%	20%	10%
월지급액	100만원	70만원	50만원	0원

○업종별/성장단계별로 창업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상시상담(Mentoring): 창업위험관리 및 안정적 창업기반 제공

-창업교육(Teching): 창업기초 지식습득, 소그룹 토론형 강의

- -창업코칭(Coaching): 유사 창업아이템별 그룹구성, 전문가 집중관리
- -전문컨설팅(Consulting): 법률, 특허 등 전문분야별 1:1 맞춤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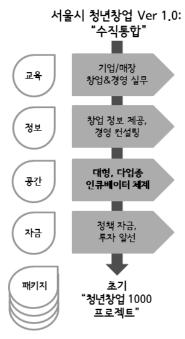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4-5〉서울시 창업모니터링 프로그램 체계

- ○청년창업가 홍보/판로개척 등 마케팅
  - -입주기업 창업사례 방송, 언론사 연계 창년창업사례집 제작 및 배포, 엔 젤투자 사업 설명회를 통한 투자자 연계지원 등 언론노출과 매체 직접 홋보를 지워

# 3.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 ○서울시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은 대형, 다업종 인큐베이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정보, 공간, 자금 정책의 수직통합 패키지가 그 특징
  - -공간 측면에서 대형, 다업종 인큐베이터 체계를 갖추고 기업/매장 창업 과 경영 실무 교육, 창업정보 제공 및 경영컨설팅, 정책자금과 투자 알선 을 프로그램 형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



〈그림 4-6〉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개요

- ○폐쇄적 청년창업 생태계 수립 기조의 변화 요청
  -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던 2009년의 상황과 달리 민간에서의 청년창업 생 대계가 점차 성숙해지는 추세
  - '온실' 생태계 구축을 넘어 서울시의 자원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창업 생태계의 강력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대형 인큐베이터 중심 양적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
  - -올해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가 지원하는 팀은 모두 1,300개로 국내 최대 규모
    - •국가 청년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대규모인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 교'가 지원하는 팀은 총 300개로 서울시 지원 팀의 1/4 수준
    - 반면, 중진공의 1년 사업 예산은 약 250억원 규모로 서울시 사업 예산 인 약 200억원을 상회

- -2011년 당시 강남센터를 운영하던 SBA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던 강북센터도 통합운영하도록 하여 현재는 SBA가 단독으로 전체 프로젝트 관리
  - 운영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사업성과의 극대화라는 전제에서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전제로의 변화(서울특별시의회, 2012)
-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가능한 한 많은 창업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도에 따른 프로젝트였으나 현재는 관리소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다업종 지원으로 인한 업종특화 미비에 대한 우려
  - -현재 업종별 '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다업종 지원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부적인 시도 존재
  -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청년창업'의 기조에 따라 다소 백화점 식으로 생 태창업에 대한 수요를 아우르는 업종 지원 구성
    -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창업 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으로의 집중, 특화가 곤란한 상황

# 제2절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 개선방향

# 1.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변화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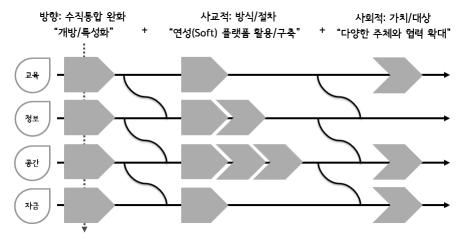
- ○서울시 청년창업에서 민간의 역량은 강화되는 추세이나 다소 산발적
  - -소설 창업의 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중심의 창업 저변은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서울시 창업생태계가 자리 잡아가는 추세
  - -다만 현재 초기 단계로 서울시 청년창업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은 부족하여 다소 산발적으로 사안별 시도에 집중하는 데 그치는 상황
-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은 수직통합 모델에서의 전환 필요

- 현재 다업종 대형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청년창업의 전 범위를 포괄하는 서울시의 자체완결적, 폐쇄적 청년창업 지원 기조는 한계 부각
- -수직통합 모델의 해체 혹은 완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 대한 뚜렷한 정책 기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단계
- ○소셜 창업 방식의 접목을 통한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개선 가능
  - '가벼운 창업'의 확산은 핵심역량을 갖춘 개인이 '소셜 창업'을 통해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능
  - -마찬가지로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수직통합 모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셜 창업 방식과의 접목이 필요
  - -이는 민관협동을 전제로 하는바 궁극적으로는 현재 다소 산발적인 초기 단계의 서울시 민간 청년창업 생태계의 성숙에도 기여하는 방향

# 2. 수직통합에서 혼성조합으로 : 청년창업정책 2.0

- ○서울시 청년창업정책은 수직통합을 목표로 하였던 청년창업정책 1.0에서 혼성조합(Mix-and-Match)을 기치로 하는 '청년창업정책 2.0'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청년창업정책 2.0'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서 벗어나 개방적인 창업지원 구조를 설립하는 데 초점
  - -따라서 서울시는 청년창업 생태계의 건설자라는 책무를 내려놓고 강력한 참여자로서 청년창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
  -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 간의 조합을 가능 하게 도와주는 매개자 역할이 서울시의 새로운 주요 역할로 주목
  - -참여자들이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설립 혹은 구성 또한 전통적인 서울시의 정책적 옵션으로 재검토할 필요

-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수직통합 완화는 방식/절차에서 소셜 창업의 '사 교적' 측면, 가치/대상에서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는 데서 출발
  - -수직통합의 완화에는 단순한 공간의 분화나 관리조직 개편 이전에 개방/ 특성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
  - -사교적 방식/절차의 도입은 건물, 시설 등의 강성(Hard) 플랫폼 외에 SNS와 연동되는 정례 네트워킹 등의 연성(Soft) 플랫폼 운영이 핵심
  - -또한 사회적 가치/대상의 도입은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민관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데에서 시작



〈그림 4-7〉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방향

- ○특성화 측면에서는 벤처뿐만 아니라 독립 창업 생태계의 발전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전망
  - 투자 유지를 전제로 하는 벤처 창업과 기술 창업에서는 민관협력 강화를기조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부문의 선택적인 지원을 제한적으로 고려
    - •창업 생태계 기반은 '소셜' 창업의 흐름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
    - · 첨단생산, IT/SW 등의 업종에서 시장 수요를 유지하는 한편, 정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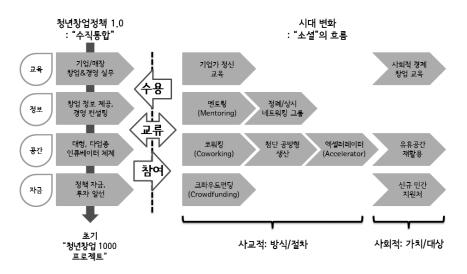
창조경제드라이브를 통해 타 업종 시장으로의 확대도 기대

- ·처음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혹은 글로벌 시장 타깃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다수
- 서울시 지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의 민간 투자 및 정부 지원이 향후 몇 년간 투입될 전망17)
- -상대적으로 민간 창업 생태계의 성숙도가 높은 벤처/기술창업은 직접적 인 지원보다 서울시가 창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방 향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 -반면 개인이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 독립 창업과 생계 창업은 현재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역할이 뚜렷
  - •창업 생태계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
  - 도소매, 음식료업 등 현재도 기존 시장이 포화되어 구조조정의 우려가 있는 생계창업 업종 위주<sup>18</sup>)
  - •보통 지역 혹은 동네 상권이 타깃
  - 민간 투자와 공공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영역
- -정부 지원의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업종 고도화/전환 등의 정책 적 보완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개별 정책 영역은 수용, 교류, 참여의 3가지 방식 으로 새로운 소셜 창업과 접목되어 개선 가능
  - -소셜 창업의 수용 : 현재 서울시의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소셜 창업 방식

<sup>17)</sup> 일례로 정부는 최근 일련의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40조원의 예산을 창조경제사업에 투입할 예정임을 알렸고, 올해에만 그 중 약 7조원의 예산을 벤처, IT 생태계 조성이 주 업무인 창조경 제사업에 배정했다(기획재정부, 2013; 미래창조과학부, 2013).

<sup>18) 2013</sup>년 5월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2.6%로 통계 작성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12년 잠시 회복되었던 때를 제외하면 2009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몇몇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평균적인 OECD 가입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10% 내외이다.

- 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는 개방성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는 소셜 창업의 외연을 확대
- -소셜 창업과의 교류: 서울시 내부 역량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 여의치 않거나 비효율적일 경우, 역량이 있는 외부자원과 공동 혹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 -소셜 창업으로의 참여 : 이미 자리를 잡은 민간 소셜 플랫폼이 있는 경 우, 중복하여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대신 민간의 플랫폼에 서울시가 주 요한 참여자로 참가하여 플랫폼의 영향력을 활용하며 지원하는 방식



〈그림 4-8〉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개선방안 개요

## 제3절 소셜 창업 방식을 통한 청년창업 정책 개선방안

### 1. 교육 부문

-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에서 교육 부문은 주로 기업 창업과 매장 개업에서 창업 및 경영 실무 관련 교육을 제공
  - -교육 부문에서의 소설 창업 경향으로 부각된 기업가정신 교육과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의 접목이 필요
- ○기업가정신 교육은 현재 기업가정신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실무-정신 교육 연계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한 교류가 바람직
  - -서울시 창업정책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청년층, 특히 대학생과의 연 계 수요가 존재
  - -현재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정부, 대학 중심으로 교육의 확대에 따른 멘토 풀의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 가정신 교육과 더불어 실무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
  - -따라서 인력 교환, 학점 인정 등 대학생 대상의 교육에서 학교의 절차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무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쌍방 간의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
  - -새로운 연계 프로그램의 설립은 물론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무난
- 아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교육 경험이 있는기관에게 필요에 따라 강의 및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창업 교육과정을 수용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 현재 사회적기업 등의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는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의 서울시 자체적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강의 및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사회적 경제 특유의 지역밀착형 접근 방식 때문에 보다 지역에서 가까운

강의 및 입주 공간에 대한 수요가 상존

- -때문에 사회적 기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강의 및 입주 공간을 청년창업 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관련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은 기존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제공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창업 교육 도입이 가능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기관의 입주나 자체 프로그램 인력 양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의 내부화 추진 고려

## 2. 정보 부문

-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에서 정보 부문은 주로 창업 정보 제공 및 경영 컨설팅 등 공식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
  - -정보 부문에서의 소셜 창업 경향으로 선별된 멘토링과 정례/상시 네트워 킹 그룹의 적용을 통한 노하우의 전달, 정보교류 및 인력매칭 기회 확대 가 필요한 단계
- ○멘토링은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내부적으로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의 신설보다 외부 멘토 풀을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으로의 발전이 보다 적절
  - -현재 실시중인 멘토링 과정에 맞춰 외부 멘토 풀을 활용한 일련의 테마 멘토링 이벤트를 운영하며, 이 이벤트에 한해서는 입주 팀 외에도 창업 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도 개방
- ○정례/상시 네크워킹 그룹은 창업 관련자의 정보교류와 인력매칭이 일어나는 장이나 선도자의 이점이 뚜렷한 영역이어서 관 주도로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기는 곤란
  - -네트워크 신설은 다시 과다한 시간과 자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과제로 이미 임계질량을 돌파한 모임을 찾아내고 해당 모임의 정부기관 참여수요를 찾아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

- -따라서 서울시는 이미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청년창업 관련 네크워 킹 그룹을 발굴하여 정례/상시 모임에 참석하는 한편, 공공 대표로서 운 영진에 참석하는 등의 방식을 모색
- -다만 서울시 측에서는 우수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매칭 요청이 있고, 민간 투자 측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찾아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으니 이를 위한 창업자-투자자 정례 매칭모임의 신설, 운영은 고려 대상
- -또 하나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청년창업 정책과 관련 창업 정보의 교류와 현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전 통적인 교류나 홍보의 효과는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창업 정책의 운영에서 민관 창업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민간 창업 생태계와의 접촉면을 확대하여자연스러운 사업 협력과 정보 교류, 홍보 활성화를 통한 발전 도모
- ○정례/상시 네크워킹 그룹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또한 중점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는 사항
  - -청년창업 관련 모임을 나누는 데 있어 서울시나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청년창업 관련 투자자, 멘토, 예비 창업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보를 교류
  - -위즈돔이나 온오프믹스 같은 플랫폼의 사용과 더불어 최근에는 창업 전문 위키나 포털의 형태로 창업기업의 위치나 채용정보까지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데모데이'나 '로켓펀치' 같은 사례도 존재
  -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스타트업 혹은 창업 플랫폼 활용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사용담을 공유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상시적인 창업지원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

### 〈로켓펀치〉

- 한국형 '스타트업 위키피디아'라고 할 수 있는 '로켓펀치'는 스타트업에 특화된 서 비스로 2013년 1월에 오픈
  - 로켓펀치는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인 'Rocket DB'와 스타트업 채용 플랫폼인 'GetROCKET'으로 구성
  - 국내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신들의 회사 정보 혹은 채용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정보는 큐레이터의 검토와 보강을 거쳐 24시간 내 공개
  - 프라이스톤스는 스타트업DB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API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미 로켓펀치에 등록된 스타트업 정보는 스타트업 미 디어에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어 서비스
  - 로켓펀치 데이터베이스에는 국내 스타트업 3대 미디어인 벤처스퀘어(대표 명승 은), 플래텀(대표 조상래), 비석세스(대표 정현욱)가 모두 참여



〈로켓펀치 홈페이지〉

### 〈데모데이〉

- 스타트업 포털 서비스인 '데모데이'는 창업초기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위한 홍보 및 DB 무료제공 플랫폼
  - 2012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해 두 달여 만에 등록 스타트업 1,200여 곳을 확보
  -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 연결로 상생 문화를 만들과 채용과 프로모션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허브'로서 기능
  - 매주 화요일에 네티즌들의 지지도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집계한 '스타트업 주간랭킹'과 '투자자 주간랭킹'을 발표
  - 또한 최근 대기업과 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프로젝트를 시행
    - · 상생 프로젝트는 대기업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데모데이에 등록해 스타트업 과 함께 해법을 모색



〈데모데이 홈페이지〉

## 3. 공간 부문

-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에서 공간 부문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 심으로 하는 대형, 다업종 인큐베이터 체계로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핵심 적인 부분을 담당
  - -공간 부문에서의 소셜 창업 경향으로 선별된 코워킹, 첨단 공방형 생산, 엑셀러레이터, 유휴공간 재활용의 도입을 통해 다소간 이러한 대형 인큐 베이터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 도출
- ○코워킹은 현재 활력이 적은 공간배치로 구획되어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에 코워킹 공간과 코워킹 공유-정산 카드 시스텍 도입 고려
  - -코워킹 공간은 창업 전 상시 매칭활동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존 창업공간의 일부를 코워킹 공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첫 번째 대안
  - -창업예비자의 동네에 보다 가까운 분산형 창업공간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현재 교류가 더딘 코워킹 공간 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서 울시가 서울시 내 코워킹 공간 공유-정산 카드 시스템 구축
  - -코워킹 비자와 유사하게 창업예비자가 서울시와 협력하는 코워킹 공간 의 사용과 비용 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 시 스템을 은행 등과 공동으로 도입
  - -카드 내역을 공간 사용 여부 관리와 비용 정산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청 년창업가의 서류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적인 정책적 효과 획득

### 〈파운더스카드〉

- '파운더스카드(FoundersCard)'는 창업가, 최고 경영자(CEO), 사업가 및 지역 사회 주요 일원을 위한 글로벌 멤버십 커뮤니티로, 회원들에게 네트워킹 기회와 프리미 어 혜택을 제공
  - 2000년 1월 기업가 Eric Kuhn에 의해 설립되어 2013년 1월 현재 10,000명 이상 의 회원 모집
  - 개인 네트워킹 이벤트, 온라인 네트워킹 커뮤니티 및 복리 후생 프로그램(여행,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호텔 등)의 멤버십 혜택
  - 가입은 기존 회원의 초대로 가능하며, 595달러의 연회비 및 입회금
  - '파운더스카드'에 가입되면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 제공



TE TechCrunch

Gives entrepreneurs elite programs and networking traditionally reserved for execs of Fortune 500 companies

자료: FOUNDERSCARD 홈페이지

### 〈FOUNDERSCARD 홈페이지〉

- 파운더스카드(FoundersCard) 본사는 뉴욕 맨해튼에 있으며, 뉴욕, 실리콘 밸리,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벤처 캐피탈에 특화한 도시에 지점 위치
- 주목할 만한 회원에는 크레이그 리스트(Craigslist)의 설립자 Craig Newmark, 디그(Digg)의 설립자 Kevin Rose, 테크스타즈(TechStars)의 공동창업자 David Tisch 및 투자자 Tim Ferriss 등이 포함



자료 : FOUNDERSCARD 홈페이지

〈FOUNDERSCARD의 회원카드〉

#### 〈벤처기업협회 '벤처카드'〉

- '벤처카드'는 2009년 3월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및 벤처인증기업의 금융서비스 혜택을 위해 기업은행과 제휴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기업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 제휴카드에 특별 멤버십서비스 혜택을 추가하여 벤처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사의 사업활동과 경영관리, 기타 기업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멤버십서비스 혜택으로는 법률, 세무/회계, 노무/인사, 특허, 의료, 출장 등 다양 한 비즈니스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각종 할인혜택 및 부가서비스 제공
- ○첨단 공방형 생산 공간은 시제품 생산, 업종 고도화 특화 수요가 있는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시설로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
  -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팹랩 서울 간 첨단 공방형 생산 관련 교육은 준비 중이며 향후 실제 디지털 제작 공간의 설치 및 사용교육 제휴를 통해 프로그램의 일부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가능하다면 시설뿐만 아니라 첨단 공방형 생산의 브랜드와 국제 네트워 크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엑셀러레이터는 서울시에서는 졸업 기업의 향후 진로를 확보해야 하는 요 청이 있고 엑셀러레이터에서는 유망 아이템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려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매칭하는 방식의 정책이 유망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졸업기업이 개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느슨한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를 공식화하여 서울시-엑셀러레이터 공동 협력 프로그램으로 육성
- -단기적으로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참여를 장려하거나, 특정 엑셀 러레이터에 단기 집중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방식도 고려
- ○유휴공간 재활용은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나 청년창업 프로그램 진행 시 중간탈락, 졸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공간의 단기적인 재활용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님
  - -기획, 행사 등의 단기 오피스 수요가 있을 경우 단기적으로 발생한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유휴공간을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예약 플랫폼을 통 해 외부에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 -이 외에 새로운 청년창업 지원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신규 건축보다 기존 건물이나 유휴공간의 재활용에 우선순위를 두 는 프로토콜을 운영

## 4. 자금 부문

-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정책에서 자금 부문은 정책 자금 지원과 투자 알선이 핵심
  - -자금 부문에서의 소셜 창업 경향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대중 투자 유 치와 대기업, 재단 등의 민간 청년창업 투자 프로그램의 활용이 선별된 바 서울시 프로그램과 이러한 경향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
- 크라우드 펀딩은 정례/상시 네트워킹 그룹과 마찬가지로 관 주도의 새로운 플 랫폼을 만들기보다 현재 성업 중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방식이 올바른 대응
  - -청년창업 지원에서 시제품 제작이나 장비 구매 등의 지원은 다소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기 경향이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은 기부나 후원을 통해 소

규모 펀딩이 다소 용이한 플랫폼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장비를 조달한 팹랩 서울, 시제품 및 소량배치 생 산 판매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킥스타터의 사례를 환기하여 교육, 정 보 제공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
- -이외에도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편딩이 법제화를 거쳐 조만간 활성화될 예정으로 소규모 펀딩 외에 본격적인 투자 유치도 점차 현실화되는 단계
- —따라서 현 입주기업과 졸업기업의 투자유치 시 크라우드펀딩의 활용을 위해 준비에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의 등록까지를 완성하는 크라우 드펀딩 데이 혹은 위크앤드 등의 단기 워크숍 시행 고려
- ㅇ마지막으로 민간 청년창업 지원처로 부상한 대기업, 재단 등의 청년창업 프로그램과는 상생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접근 방식이 유효
  -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팀은 공간 등의 서비스 중복수혜를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입주기업 대상 민간 청년창업 프로그램 알선은 다소 곤란
  - -다만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알선이나 이후 민간 인큐베이 팅 프로그램으로의 연결을 통한 보다 느슨한 선순환적 청년창업 지원-협 력 체계를 구성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 -민간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다 음 단계 입주의 옵션으로 민간 프로그램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기업 및 단체와의 MOU(업무협약) 등을 통한 공동협력체계 구성 고려
  -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최종 단기집중 프 로그램을 민간 엑셀러레이터에게 외주 혹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 식으로 민간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확대
  - -민간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기존의 인큐베이터 공간을 제공하거나. 자금 면에서 운영자금을 민간과 공동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적극적 인 민관협력 사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

참 고 문 헌

## 함고문헌

- 경제진흥본부, 2011,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서울시 경제진 흥본부.
- 고가영·이근태, 2012, "저부가가치에 몰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2.07.11.
- 고산·고준호, 2007, "청년 창업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타이드 인스티튜트
- 기획재정부, 2013,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최근경제동향」, 기획재정부, 2013.03.
- 기획재정부, 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 김안국 외, 2010,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영수, 2012, "우리나라 클러스터정책의 특징과 지역산업생태계론으로의 진화 필요성", 「지역연구」, 제28권 4호, pp.23-43.
- 김을식 외, 2012, "한국의 고용 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 「이슈 & 진단」, 경기개발 연구원, 제49호 2012.05.30.
- 김정래·전민진, 2012,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 통영: 남해의봄날.
- 김진영·임하늬·김소연, 2012, 「버티컬 플랫폼 혁명」, 서울: 클라우드북스..
- 김창욱 외, 2012, "기업생태계와 플랫폼 전략", 「SERI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12.02.
- 노동부, 2009, 「청년 비취업자의 눈높이 조정과정에 대한 연구」
- 레이첼 보츠먼・루 로저스, 2011, 「위 제너레이션」, 파주: 모멘텀.
- 리사 갠스키, 2011, '메시」, 파주: 21세기북스..
- 명승은, 2013, "한국의 민간 창업 지원 생태계 : 엑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내부 원고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창조경제 실현계획』
- 박가열, 2013, "서울시 청년층 고용구조 현황 및 미래 창출 가능 직업 탐색", 내부 원고
- 박가열·서용석·김경훈, 2013, 「2030 미래의 직업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박동 외, 2013,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기만·장재현, 2012, "플랫폼 생태계에 부는 수직 통합 바람",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2.06.20.
- 서울특별시의회, 2012, "서울특별시 강남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자료.
- 송위진, 2012, "Living Lab :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Issue & Policy」,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59호, 2012.07.12.
- 양현봉·박종복, 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에릭 리스, 2012,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서울: 인사이트.
- 오호영, 2012, "청년층 취업난과 미스매치",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12.03.
- 윌리엄 바이그레이브·앤드류 자카라키스, 2013, 「기업가정신」, 서울 : 동서미디어. 유병선, 2007, 「보노보 혁명」, 서울 : 부키.
- 유정완, 2012, "국내 사업체 현황 및 업종별 특징", 「KB daily, 지식 비타민」, KB금 융지주 경영연구소, 제12-140호, 2012.10.24.
- 윤상진, 2012,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빛비즈
- 이갑수·김선빈·김상범, 2013, "전통시장 강소상인에게 배우는 지혜",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제889호, 2013.03.27.

- 이민화, 2012, 「호모 모빌리언스」, 서울: 북콘서트.
- 이민화·차두원, 2013, 「창조경제」, 서울: 북콘서트.
- 이병하 · 박세정 · 조현국, 2007, 「스마트 오피스」, 서울 : 민음인.
- 이신모, 2011, 「청년창업학」, 서울: 두양사.
- 일자리정책과, 2013, "2013년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서울시 경제진흥실.
- 전병길 · 김은택, 2013, 「사회혁신 비즈니스」, 서울: 생각비행.
- 정우진, 2012, "지역의 신규 및 경력 취업자 고용 현황분석", 「BEPA Issue Report」, 부산경제진흥원, 제9호.
- 정은영, 2012, '내 작은 회사 시작하기, 서울: 디자인하우스.
- 정재호, 2012, "청년층 자영업의 실태와 과제", 「The HRD Review」, 2012.03.
- 조호정, 2013, "창조형 창업이 없다! 국내 창업의 7대 문제점", 「경제주평」, 현대경 제연구원, 제534호, 2013.04.12.
- 최병삼, 2010, "성장의 화두, 플랫폼", 「SERI 경영 노트」, 삼성경제연구소, 제80호, 2010.11.11.
- 최봉 외, 2012, 「성북역 종합창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연구원.
- 최봉 외, 2012, 「성북역 종합창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 크리스 길아보, 2012,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서울: 명진출판사.
- 크리스 앤더슨, 2013, 「메이커스」,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통계청, 2012a, "기업생멸 행정통계」개발결과"
- 통계청, 2012b,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3, 「신생 및 이색 직업 정보 제공 직업 개정 방안」, 한국고용정 보원 내부자료

히라노 아쓰시 칼 · 안드레이 학주, 2011, 「플랫폼 전략」, 서울 : 더숲.

KB 경영연구소, 2012, "크라우드펀딩 현황 및 파급 효과", KB daily 지식 비타민 12-108호, 2012.08.28.

Dee, N. J. et. al., 2011, Incubation for Growth, Nesta.

Baeck, P. and L., Collins, 2013, Working the Crowd, Nesta.

Shanmugalingam, C. et al., 2011, Growing Social Ventures, Nesta.

Choi, W. et. al., 2013,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McKinsey Global Institute...

ILO, 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ECD, 2012, Policy Brief on Youth Entrepreneurship, Paris: OECD.

The National Center for O\*NET Development, 2006, New and Emerging(N&E)

Occupations Methodology Development Report, Technical Report.

Toronto Region Board of Trade, 2013, Toronto as a Global City.

http://www.keis.or.kr (한국고용정보원)

http://co-up.com/ (Co-up)

http://crowdsourcing.org (crowdsourcing.org)

http://dreamcamp.co (D.Camp)

http://ec.europa.eu/eurostat/ (EuroStat)

http://founderscard.com/ (Founders Card)

http://hackerspaceseoul.com (해커스페이스 서울)

http://hubseoul.net (허브 서울)

http://korea.ashoka.org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 (통계청)

http://sharehub.kr (공유허브)

http://stats.oecd.org (OECD Statistics)

http://theseeds.asia (사단법인 씨즈)

http://www.2030dreambank.or.kr (은행권청년창업재단)

http://www.asan-nanum.org (아산나눔재단)

http://www.cafecube.biz (디큐브 카페큐브)

http://www.dnimall.com (DNI 몰)

http://www.dnistore.co.kr (꿈꾸는 청년 가게)

http://www.east4.org (EAST4 Parking)

http://www.fablab-seoul.org (팹랩 서울)

http://www.facebook.com/2Fchungnyunmall (전주 남부시장 2층 청년몰)

http://www.ibusiness.co.kr (르호봇)

http://www.koef.or.kr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http://www.kova.or.kr (벤처기업협회)

http://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http://www.opencoworking.org/coworkingwiki/ (Coworking Wiki)

http://www.openfactory.kr (오픈 팩토리)

http://www.sba.kr (서울산업통상진흥원; SBA)

http://www.sehub.net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seoul.go.kr (서울시)

http://www.sesnet.or.kr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http://www.spacenoah.net (스페이스 노아)

http://www.tideinstitute.org (타이드 인스티튜트)

http://www.venturesquare.net (벤처스퀘어)

http://youthhub.kr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부 록

〈부록 표 1〉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단위 : 명, %)

					(= 11	ㆍ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농업	1,832,750	1,800,908	1,966,663	2,112,798	1,947,722	1,3
임업	9,814	15,740	17,830	22,935	18,312	11.6
어업	77,065	78,536	82,284	104,574	83,264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7,123	6,582	5,546	5,610	3,733	-19.0
금속 광업	667	177	340	241	895	-49.1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2,683	13,494	15,029	13,712	11,366	-3.5
광업 지원 서비스업	515	1,390	517	744	905	-14.4
식료품 제조업	364,160	344,017	327,049	379,114	332,462	-2.8
음료 제조업	25,046	26,484	30,289	26,458	22,967	-2.9
담배 제조업	3,527	3,281	2,268	2,769	3,383	-4.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71,495	165,990	163,058	178,109	174,974	0.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83,934	267,797	277,381	283,046	271,089	-1.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4,381	62,770	63,953	64,979	68,100	1.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4,054	43,559	38,133	36,849	44,063	-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3,584	71,177	77,004	81,620	75,419	0.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7,519	98,384	89,425	96,855	88,629	-2.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6,273	14,239	15,052	15,619	16,413	-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1,025	147,621	155,165	148,010	156,263	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2,789	59,723	59,034	54,352	48,067	-7.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0,508	199,600	203,984	229,512	279,766	7.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0,301	121,971	113,019	126,158	134,582	0.5
1차 금속 제조업	143,234	143,155	144,802	163,258	179,506	5.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38,612	336,186	345,231	342,695	388,653	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57,364	520,094	562,145	539,850	546,843	-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4,440	97,844	98,538	118,403	121,943	8.5

〈부록 표 계속〉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전기장비 제조업	200,756	190,859	216,548	251,217	268,348	6.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3,744	390,178	392,031	439,196	472,614	5.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13,997	389,396	407,849	438,966	426,598	0.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1,276	224,420	211,968	221,651	224,682	-1.9
가구 제조업	87,572	95,437	93,596	95,296	96,390	2.3
기타 제품 제조업	122,184	109,360	120,175	130,831	110,637	-3.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8,202	93,597	89,533	80,108	61,247	-13.0
수도사업	16,029	20,420	18,596	14,889	18,416	1.5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1,122	16,497	13,925	16,781	19,061	10.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3,990	55,347	58,488	66,629	64,604	4.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599	1,314	3,574	1,300	1,805	-64.4
종합 건설업	789,752	833,486	771,334	811,932	821,748	0.8
전문직별 공사업	1,139,074	1,042,165	1,106,382	1,143,144	1,092,516	-1.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43,949	147,163	155,495	157,167	156,729	2.1
도매 및 상품중개업	1,200,738	1,157,614	1,163,158	1,343,809	1,334,188	2.4
소매업; 자동차 제외	2,432,830	2,356,956	2,293,161	2,488,320	2,338,698	-1.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980,659	996,847	999,728	1,066,734	999,591	0.4
수상 운송업	28,083	30,202	35,005	32,319	29,712	0.9
항공 운송업	33,924	27,647	31,665	31,512	31,553	-2.6
창고 및 <del>운송</del> 관련 서비스업	165,727	174,738	191,819	228,640	230,640	7.8
숙박업	128,345	130,614	135,124	156,209	142,596	2.3
음식점 및 주점업	2,004,404	1,939,706	1,883,461	2,137,401	2,110,775	1,1
출판업	231,492	242,170	263,654	295,661	313,073	7.2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8,310	51,811	45,688	52,468	58,136	4.0
방송업	54,515	56,842	50,093	54,579	63,426	3,2
통신업	164,631	179,111	169,669	169,171	151,172	-2.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3,003	100,452	114,236	111,211	116,056	0.3

〈부록 표 계속〉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정보서비스업	30,820	40,598	44,269	37,220	33,824	0.8
금융업	372,704	366,231	357,648	356,724	358,365	-1.0
보험 및 연금업	316,993	311,095	235,631	326,628	322,744	-1.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3,533	115,467	197,785	132,319	158,774	4.8
부동산업	488,788	480,391	467,773	515,260	500,506	0.5
임대업;부동산 제외	53,984	62,280	69,684	72,411	80,080	9,3
연구개발업	100,719	120,957	125,451	152,749	166,179	11,6
전문서비스업	302,379	301,629	354,794	379,946	442,777	8.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52,615	265,250	281,209	280,136	291,729	3.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6,647	113,452	129,796	138,434	133,366	0.9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23,040	143,835	176,607	169,789	184,209	9.2
사업지원 서비스업	742,203	721,729	802,871	939,434	931,208	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34,202	1,106,293	1,005,644	977,515	960,030	2.5
교육 서비스업	1,889,865	1,886,482	1,854,656	1,899,227	1,986,893	1.2
보건업	661,198	692,535	741,562	802,105	874,405	6.7
사회복지 서비스업	305,996	454,110	559,571	684,618	711,129	18.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125	98,287	110,010	131,996	128,259	4.9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26,730	299,361	298,847	338,310	342,781	0.9
협회 및 단체	229,611	230,515	243,685	258,755	270,111	4.0
수리업	361,837	355,366	370,847	399,463	369,708	0.4
기타 개인 서비스업	592,097	559,166	505,956	615,588	606,609	0.0
가구내 고용활동	124,903	126,161	176,364	182,586	127,230	-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177	0	349	0	0	-
국제 및 외국기관	9,735	10,251	12,313	11,704	13,434	7.4
전체	24,488,668	24,556,510	25,013,019	26,988,326	26,768,682	_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록 표 2〉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농업	4,522	3,881	8,290	7,897	6,332	1.7
임업	0	304	0	233	716	-
어업	0	0	0	0	623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578	318	282	0	0	-
금속 광업	247	0	241	0	391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38	327	758	115	0	-
광업 지원 서비스업	221	0	0	327	294	-
식료품 제조업	43,911	33,524	30,671	32,681	25,772	-15.2
음료 제조업	2,821	3,738	4,745	2,483	1,772	-21.4
담배 제조업	0	609	98	0	740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6,068	25,114	22,153	24,506	20,122	-7.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6,886	149,126	158,131	166,275	150,337	-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2,673	16,863	20,889	18,278	21,204	-3.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956	3,932	2,022	2,843	2,038	-32.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178	7,255	8,984	10,658	13,908	8.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740	35,039	33,102	35,741	31,437	-5.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58	3,474	2,049	1,872	2,090	-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924	15,783	12,596	13,159	14,266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562	16,243	16,071	12,625	10,257	-18.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212	16,638	18,802	20,842	15,758	0.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903	6,691	6,628	7,953	9,266	-0.8
1차 금속 제조업	10,505	11,422	8,142	6,706	6,614	-13.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420	26,872	24,394	24,633	22,484	-4.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1,716	57,051	66,698	63,627	56,840	-7.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8,333	17,337	17,471	20,330	19,721	1,5

〈부록 표 계속〉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전기장비 제조업	21,802	18,731	20,160	20,832	21,297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762	35,462	38,155	38,911	39,914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450	18,556	15,785	16,120	16,656	1,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59	2,025	3,889	2,747	1,254	-42.2
가구 제조업	5,441	7,089	7,569	9,324	8,028	8.1
기타 제품 제조업	40,626	33,211	32,415	35,931	28,031	-10.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76	11,808	13,319	14,192	12,913	-7.6
수도사업	2,636	4,384	2,289	2,595	2,007	-17.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96	2,091	250	1,083	999	-146.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4,671	4,215	4,548	4,424	6,546	6.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382	0	919	512	295	-
종합 건설업	167,469	163,833	163,424	155,590	165,811	-0.3
전문직별 공사업	250,651	212,911	234,735	227,995	211,983	-4.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8,301	30,508	33,767	34,680	32,399	3.1
도매 및 상품중개업	334,563	314,663	303,765	353,693	373,622	2.4
소매업; 자동차 제외	602,224	563,438	554,910	577,800	536,173	-3.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99,198	208,737	195,572	220,431	190,736	-1.6
수상 운송업	6,722	7,188	7,646	6,873	6,825	0.1
항공 운송업	13,059	12,017	13,770	14,651	14,286	1.9
창고 및 <del>운송</del> 관련 서비스업	25,099	23,429	27,633	30,536	30,509	4.4
숙박업	27,867	31,144	33,355	38,861	33,610	3.9
음식점 및 주점업	488,213	468,101	429,930	469,406	466,068	-1.4
출판업	108,211	121,610	130,347	145,178	160,444	9.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1,913	26,114	22,489	24,770	27,198	4.5
방송업	20,772	24,437	20,233	19,168	27,807	4.9
통신업	35,924	45,133	47,301	45,038	38,417	0.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6,403	44,627	41,630	42,623	50,046	1,5

〈부록 표 계속〉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정보서비스업	13,321	16,297	19,182	15,753	12,459	-3.7
금융업	106,271	123,631	119,443	117,365	113,495	1.3
보험 및 연금업	87,797	82,704	72,782	90,977	75,011	-5.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6,567	48,823	72,090	53,298	70,482	6.5
부동산업	153,276	146,158	138,528	158,839	141,394	-2.5
임대업;부동산 제외	11,202	12,162	15,080	15,419	18,474	11.5
연구개발업	21,695	25,198	25,549	35,520	37,522	12,2
전문서비스업	128,382	130,285	143,835	162,376	207,220	11.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68,822	74,976	77,138	71,561	71,517	0.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9,935	43,911	59,340	57,168	53,314	0.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0,686	28,689	39,599	37,759	37,274	3,6
사업지원 서비스업	159,002	168,103	198,822	212,424	220,025	7.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7,111	209,871	189,222	181,883	180,582	3,6
교육 서비스업	440,269	433,389	399,816	420,744	447,696	0.3
보건업	155,441	153,146	153,929	177,150	200,105	5.9
사회복지 서비스업	42,350	72,437	92,693	107,234	112,076	20.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557	30,744	35,627	42,637	38,280	0.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65,787	59,054	57,375	65,505	66,765	0.0
협회 및 단체	57,003	53,310	64,156	69,113	72,040	5.3
수리업	71,375	56,695	59,363	67,642	52,753	-9.3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1,532	123,377	106,019	138,776	135,711	-0.4
가구내 고용활동	43,064	44,041	64,782	53,722	50,142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	0	0	0	0	-
국제 및 외국기관	2,354	2,847	3,917	2,676	4,045	8.0
전체	5,088,663	5,026,851	5,071,310	5,383,290	5,355,237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록 표 3〉 서울시 청년층(15~29세)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단위 : 명, %)

					(12.11	ㆍ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농업	0	275	0	514	0	-
임업	0	0	0	0	0	-
어업	0	0	0	0	0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	0	0	0	0	-
금속 광업	0	0	0	0	0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	0	0	0	0	-
광업 지원 서비스업	0	0	0	0	0	-
식료품 제조업	9,166	6,599	5,286	7,225	3,828	-31.4
음료 제조업	263	736	1,293	1,018	342	-29.4
담배 제조업			98		391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288	2,107	2,272	1,887	2,545	1.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907	11,384	13,354	15,363	15,077	-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481	604	608	1,115	1,703	-57.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63	816	0	449	38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5	775	771	624	1,129	4.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434	3,859	4,250	5,610	4,065	-4.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07	375	0	0	67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16	3,061	2,275	1,960	6,189	1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274	4,498	5,282	4,063	2,105	-53.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98	2,905	3,493	4,213	2,465	-3.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55	419	1,069	287	724	-63.7
1차 금속 제조업	617	1,492	1,740	1,105	340	-5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124	3,430	3,144	2,627	2,639	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619	10,332	17,076	18,027	17,077	-15.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091	3,463	3,953	5,669	4,024	-4.1

〈부록 표 계속〉서울시 청년층(15~29세)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전기장비 제조업	4,224	3,501	3,265	2,858	4,400	-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388	4,992	5,947	7,394	5,069	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82	3,654	3,009	2,337	2,775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	0	972	521	0	-
가구 제조업	1,046	1,125	520	1,136	340	-72.3
기타 제품 제조업	5,089	7,347	3,420	3,182	1,128	-68.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444	1,173	1,054	1,573	1,834	3.2
수도사업	0	370	362	369	0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	306		404	0	_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63	920	311	0	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3	0	0	0	0	-
종합 건설업	17,471	18,237	18,187	17,201	11,915	-11.5
전문직별 공사업	23,294	19,665	20,960	13,328	16,837	-12.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027	3,636	7,019	6,864	5,544	-4.0
도매 및 상품중개업	63,305	59,098	51,922	54,069	61,687	-1.2
소매업; 자동차 제외	149,430	136,776	130,989	149,450	127,398	-4.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9,674	13,341	11,156	9,544	5,940	-17.4
수상 운송업	2,935	2,191	2,483	2,887	1,804	-17.1
항공 운송업	4,834	4,965	4,564	5,488	3,895	-7.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469	6,893	7,066	7,273	6,502	3.5
숙박업	6,600	7,578	8,860	9,798	9,195	7.6
음식점 및 주점업	127,075	119,646	109,142	137,278	126,478	-1.0
출판업	31,935	39,313	32,393	36,565	42,140	5.5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618	7,356	9,597	9,464	10,838	4.4
방송업	7,198	7,135	6,253	7,166	5,963	-5.6
통신업	9,807	10,540	11,605	10,552	6,148	-16.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620	11,898	10,665	15,895	14,413	-0.9

〈부록 표 계속〉서울시 청년층(15~29세)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정보서비스업	4,856	3,861	6,178	5,132	4,331	-6.8
금융업	30,306	29,960	33,458	30,075	25,634	-4.8
보험 및 연금업	15,583	12,108	11,758	12,262	12,286	-6.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1,116	11,827	13,911	10,071	10,906	-2.4
부동산업	7,888	7,437	3,972	8,552	4,648	-30.9
임대업;부동산 제외	3,231	2,113	2,551	3,645	3,388	-3.3
연구개발업	6,645	4,966	9,037	10,876	7,732	-3.1
전문서비스업	37,416	36,910	40,656	45,639	49,475	6.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5,802	22,856	21,013	13,937	14,022	-7.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704	19,955	21,299	24,746	22,030	2.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913	1,284	3,298	2,451	2,555	-24.1
사업지원 서비스업	31,158	27,101	34,568	31,723	30,461	-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308	24,557	18,197	17,099	14,674	-10.1
교육 서비스업	151,312	138,247	119,599	107,305	115,302	-7.4
보건업	57,335	56,620	56,243	59,243	62,114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57	14,393	20,305	18,266	21,548	15.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011	11,865	14,980	18,027	14,060	2.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6,955	23,667	24,125	26,591	24,331	-3.0
협회 및 단체	7,558	8,680	8,463	6,453	7,551	-1.6
수리업	18,568	9,249	8,539	13,849	6,440	-46.4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036	19,835	21,863	30,665	30,508	5.3
가구내 고용활동	1,379	0	1,446	0	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	0	0	0	0	-
국제 및 외국기관	0	0	159	0	0	-
합계	1,097,824	1,036,280	1,023,302	1,080,953	1,021,936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부록 표 4〉 직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단위 : 명,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1,328 6,810 7,356 10,838 13,520 -1.7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34,697 18,898 19,587 42,081 44,763 -5,2  전문서비스 관리직 132,003 120,906 101,367 116,185 112,804 -4,7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33,994 79,459 98,225 110,335 95,688 -13,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11,600 85,692 42,489 81,581 68,812 -25,6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342 82,591 66,253 62,685 73,316 0,4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749,586 740,193 698,487 765,551 805,078 1,6  보건/시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자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근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80,726 72,177 76,381 81,763 73,34  장임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1,420 371,092 38,3  경철/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74,3  대왕 관비직 원무조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대왕 관비직 음식원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대왕 관비직 원무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대왕 관비직 유무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당삼수산 숙원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6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어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어업 숙련직 64,077 64,121 65,503 79,583 66,379 0,0						(11	. 0, /0)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34,697 18,898 19,587 42,081 44,763 -5,2 전문서비스 관리직 132,003 120,906 101,367 116,185 112,804 -4,7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33,994 79,459 98,225 110,335 95,688 -13,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11,600 85,692 42,489 81,581 68,812 -25,6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342 82,591 66,253 62,685 73,316 0,4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19,898 331,932 316,472 381,207 403,227 5,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49,586 740,193 698,487 765,551 805,078 1,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시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삼답/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의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오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3,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보순/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동/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문서비스 관리직 132,003 120,906 101,367 116,185 112,804 4.7 간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33,994 79,459 98,225 110,335 95,688 -13,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11,600 85,692 42,489 81,581 68,812 -25,6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342 82,591 66,253 62,685 73,316 0.4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19,898 331,932 316,472 381,207 403,227 5.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49,586 740,193 698,487 765,551 805,078 1,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6,537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오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반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동/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1,328	6,810	7,356	10,838	13,520	-1.7
전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33,994 79,459 98,225 110,335 95,688 -13,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11,600 85,692 42,489 81,581 68,812 -25,6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342 82,591 66,253 62,685 73,316 0.4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19,898 331,932 316,472 381,207 403,227 5.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49,586 740,193 698,487 765,551 805,078 1.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6,537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요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반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동/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34,697	18,898	19,587	42,081	44,763	-5.2
판애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11,600 85,692 42,489 81,581 68,812 -25,6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342 82,591 66,253 62,685 73,316 0,4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19,898 331,932 316,472 381,207 403,227 5,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49,586 740,193 698,487 765,551 805,078 1.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9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3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어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남숙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전문서비스 관리직	132,003	120,906	101,367	116,185	112,804	-4.7
파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342 82,591 66,263 62,685 73,316 0.4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19,898 331,932 316,472 381,207 403,227 5.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49,586 740,193 698,487 765,551 805,078 1.6 보건/시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삼단/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스망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동/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33,994	79,459	98,225	110,335	95,688	-13.5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749,586 740,193 698,487 765,551 805,078 1.6 보건/시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988 8,9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11,600	85,692	42,489	81,581	68,812	-25.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49,586 740,193 698,487 765,551 805,078 1.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342	82,591	66,253	62,685	73,316	0.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압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19,898	331,932	316,472	381,207	403,227	5.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49,586	740,193	698,487	765,551	805,078	1,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남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28,820	1,006,631	1,116,277	1,214,935	1,311,168	8.3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남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445,704	1,423,198	1,382,841	1,390,931	1,453,170	0.1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법률 및 행정 전문직	57,541	52,814	57,108	77,534	72,349	4.4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538,439	627,814	486,458	613,520	636,801	2.4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5,215	440,667	481,947	546,477	553,306	4.6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090,382	3,257,891	3,433,667	3,492,941	3,632,896	4.0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6,993	348,100	337,295	343,289	349,289	0.9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9,938	60,726	72,177	76,381	81,785	7.3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06,537	281,391	291,398	381,420	371,092	3.8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03,360	209,906	202,062	229,680	234,786	3.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17,846	460,918	505,419	592,758	576,088	7.5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72,092	267,284	264,895	296,801	292,756	1.7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19,241	1,575,798	1,486,471	1,682,346	1,638,124	0.0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영업직	648,805	587,733	696,537	678,124	705,035	1,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매장 판매직	2,228,144	2,019,723	2,022,065	2,080,407	2,081,698	-1.8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73,808	442,807	401,067	464,933	428,831	2,6
	농/축산 숙련직	1,764,237	1,715,917	1,899,766	2,004,856	1,865,651	1,2
어업 숙련직 64,077 64,121 65,503 79,583 66,379 0.0	임업 숙련직	7,158	10,354	11,112	10,648	10,898	8.9
	어업 숙련직	64,077	64,121	65,503	79,583	66,379	0.0

〈부록 표 계속〉 직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160,370	155,855	140,161	170,967	149,603	-2.6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286,305	277,266	284,302	308,644	279,182	-0.9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84,846	82,905	82,073	84,289	76,728	-2.6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250,646	247,432	240,306	247,993	239,871	-1.1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400,188	375,446	414,265	421,679	410,489	0.5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312,350	316,035	337,809	318,813	320,737	0.6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678,490	614,749	628,931	669,625	677,826	-0.2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72,847	70,940	86,933	77,120	79,174	1.4
기타 기능 관련직	141,086	138,643	142,900	155,129	152,717	1.9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67,783	61,884	67,356	70,285	59,623	-3.8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138,466	151,508	138,175	138,990	126,438	-2.6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161,165	159,378	151,137	189,541	206,380	5.5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194,062	190,081	213,667	224,032	218,055	2.7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441,996	448,834	471,242	515,600	558,112	5.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363,898	359,814	415,468	448,443	453,472	5.2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224,898	1,211,669	1,212,218	1,309,477	1,257,552	0.6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12,858	22,799	26,134	26,574	22,839	10.4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126,909	148,905	150,012	166,035	157,604	5.0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452,550	439,673	415,585	470,688	427,984	-1.7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335,515	407,582	380,913	436,235	395,704	3,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463,228	408,476	474,474	460,833	428,998	-2.5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781,190	946,198	892,979	978,060	948,269	4.3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684,780	671,268	699,765	832,497	764,862	2,3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272,459	328,246	381,592	438,752	377,154	6.9
전체	24,488,668	24,555,857	25,012,698	26,988,326	26,768,682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록 표 5〉 서울시 직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단위 : 명, %)

					(	. 6, 70)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공공 및 기업 고위직	4,256	2,295	2,644	3,558	5,471	-2.9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982	5,276	5,177	15,829	20,645	-19.1
전문서비스 관리직	33,129	32,898	23,141	30,014	33,344	-2.5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26,450	24,227	25,392	22,134	22,022	-5.0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35,704	22,847	14,206	35,395	26,425	-22.8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8,587	25,720	18,298	19,836	21,326	0.5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32,355	139,362	134,442	163,352	171,630	6.0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54,275	139,298	152,234	155,172	150,620	-0.8
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94,548	206,353	233,903	250,353	271,319	7.9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357,924	338,514	299,915	307,480	337,033	-1.8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5,105	22,394	21,034	26,022	27,727	1.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04,428	229,581	170,944	215,275	234,697	1.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88,060	180,150	198,027	214,921	223,832	4.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700,652	773,838	837,480	827,959	853,076	4.7
금융 및 보험 사무직	106,965	117,099	111,129	116,186	109,143	0,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20,607	22,276	25,356	27,909	30,736	9.5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84,486	81,756	85,780	102,288	105,786	5.2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6,506	44,051	44,482	45,588	46,354	5.5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93,343	88,392	100,578	120,295	121,172	5.9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53,464	57,559	57,623	65,002	64,323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393,486	368,847	335,517	365,715	346,052	-3.5
영업직	157,230	137,471	167,859	150,521	159,829	-0.5
매장 판매직	568,852	486,717	491,549	480,290	481,556	-4.5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88,276	102,927	92,636	112,286	87,786	-1.8
농/축산 숙련직	8,120	4,144	13,527	11,730	8,898	-18.4
임업 숙련직	0	0	0	0	967	-
어업 숙련직	0	0	0	0	289	-

〈부록 표 계속〉 서울시 직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26,903	23,153	19,657	27,636	20,845	-9.4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131,860	127,353	129,747	146,591	124,227	-2.1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13,072	9,771	10,824	12,251	8,587	-13.8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18,157	18,176	16,748	19,937	13,270	-10.7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56,864	49,711	57,680	59,857	47,840	-5.5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61,428	55,091	59,269	65,046	59,740	-1,1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54,182	124,047	130,426	133,193	144,114	-2.4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15,222	13,282	21,165	15,349	17,031	-1.3
기타 기능 관련직	30,585	27,238	35,560	27,934	30,166	-2.2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5,582	2,048	4,619	5,381	2,745	-49.7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21,704	30,525	20,684	20,935	19,207	-6.6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9,692	9,048	9,714	11,078	9,210	-2.1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29	10,407	9,323	12,719	10,231	2,2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27,788	25,942	21,366	25,891	23,772	-5.0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37,239	37,111	36,686	39,016	37,284	0.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88,748	183,915	171,609	202,944	172,787	-3.0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1,028	1,435	1,937	1,951	2,143	16.0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34,657	24,051	30,806	32,440	27,737	-8.5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71,011	72,986	84,352	80,469	71,517	-0.3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72,114	88,839	77,908	80,810	75,403	0.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46,363	43,935	46,479	37,322	37,716	-5.9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174,429	197,688	201,865	206,856	212,999	4.8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149,083	161,262	165,852	180,799	183,260	5.0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31,631	35,846	43,904	51,771	41,350	5.0
전체	5,088,663	5,026,851	5,071,056	5,383,290	5,355,237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록 표 6〉 서울시 청년층(15~29세) 직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공공 및 기업 고위직	0	0	0	0	384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0	0	0	0	0	-
전문서비스 관리직	222	336	0	198	679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0	543	0	0	0	-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006	2,219	346	1,371	1,605	-99.2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9,107	9,334	6,205	8,177	5,340	-19.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8,676	39,938	32,446	42,452	40,753	-0.1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7,673	27,737	30,509	27,181	28,487	0.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61,539	67,407	72,531	70,662	74,949	4.7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27,945	108,584	90,564	78,281	88,460	-10.5
법률 및 행정 전문직	691	998	1,103	130	2,292	-152.9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2,764	26,761	18,705	27,335	27,541	1.0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73,464	68,372	77,761	77,675	79,992	1.9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11,814	217,662	222,990	217,304	204,065	-1.0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4,777	29,496	30,526	29,707	28,143	-5.7
법률 및 감사 사무직	4,870	7,580	6,053	7,472	6,017	1.3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38,988	30,010	33,264	39,156	41,357	0.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9,761	10,224	7,658	10,683	10,368	-0.9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20,232	18,814	23,138	29,628	28,825	7.6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0,666	21,563	21,829	25,534	21,167	-0.2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99,993	91,741	82,444	108,165	97,421	-1.9
영업직	23,304	19,719	19,949	13,616	12,359	-18.4
매장 판매직	121,102	102,364	106,539	114,860	109,193	-3.1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25,809	26,585	22,589	28,053	18,955	-10.8
농/축산 숙련직	638	0	2,397	436	0	-
임업 숙련직	0	0	0	0	0	-
어업 숙련직	0	0	0	0	0	-

〈부록 표 계속〉서울시 청년층(15~29세) 직업별 종사자수 현황(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증감률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4,967	3,992	4,857	6,312	4,794	-3.8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3,144	3,655	1,671	3,247	3,995	-9.4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1,219	584	1,181	719	727	-30.3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287	879	1,054	2,951	1,075	-6.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12,512	7,888	6,775	7,323	6,223	-21.3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10,490	5,878	13,309	15,664	8,802	-21.4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6,618	4,743	7,105	4,401	2,771	-31.6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4,857	3,576	5,688	2,298	2,859	-31.7
기타 기능 관련직	2,876	2,962	2,047	1,005	1,399	-29.3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1,288	0	639	365	0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1,045	511	0	0	775	-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1,119	1,687	1,525	2,618	664	-57.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482	415	722	1,004	280	-50.9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2,773	4,111	1,615	4,129	2,422	-32.9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6,427	7,757	6,837	7,938	9,689	8.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6,912	6,815	6,201	5,182	3,855	-16.4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244	0	362	0	0	-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3,775	4,147	4,000	3,504	3,841	0.0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3,111	3,726	2,285	4,017	2,545	-15.3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17,816	14,708	13,199	13,278	8,641	-21.4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3,891	5,788	3,392	4,352	4,387	-3.8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4,985	3,090	7,440	2,422	3,785	-43.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17,677	15,708	17,381	23,845	15,331	-7.8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4,270	5,676	4,471	6,303	4,726	-1.6
합계	1,097,824	1,036,280	1,023,302	1,080,953	1,021,936	

자료: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영문 요약 (Abstract)

## Policy Suggestions for Invigorating the Youth Entrepreneurship in Seoul

Mook-Han Kim · Bum-Sik Kim · Hyunkyu Lim · Yoon Hyi Jang

Youth unemployment problem has become a worldwide crisis in the last decade, and youth entrepreneurship has been one of many feasible solutions of the problem. Seoul is not an exception to this harsh reality. As a major metropolis in Korea,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even higher than that of South Korea as a whole. Seoul has been building its own publicly-subsidized entrepreneurship ecosystem to the youth. However, as private entrepreneurship ecosystem in Seoul manifests, the old entrepreneurship ecosystem based on the vertical integration of policy packages in a few large startup incubators is losing its validity and showing its limitations. To find out the new paradigm for the existing model, this study searches for the new 'social' trends in the youth entrepreneurship scene, which prove their values in startup ecosystems around the world nowadays.

10 inter-related trends in social entrepreneurship processes have been identified in 4 different policy areas. In education, the education of entrepreneurship in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and that of entrepreneurship in social economy are distinct features. Mentoring and regular group networking become popular in information exchange. Coworking space, digital production workshop, accelerator, and the recycling of underused spaces are major innovations in providing spaces for entrepreneurs. Crowdfunding and new investments from private sectors for societal purposes have been changing how start-ups raise the funds in entrepreneurship financing.

To invigorate the youth entrepreneurship in Seoul, current vertical integration model of the youth entrepreneurship policy 1.0 has to be changed to the youth entrepreneurship policy 2.0 of a mix-and-match model, which allows a more open startup ecosystem through the utilization of soft social platforms and the collaboration of diverse private stakeholders. In each of 4 policy areas of youth entrepreneurship - education, information, space, funding, identified trends of social entrepreneurship process should be grafted onto the existing policy regime of youth entrepreneurship.

###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Study Overview

- 1. Backgrounds and Purposes
- 2. Methods and Scopes

# Chapter 2 Current State of Youth Entrepreneurship and its Problems in Seoul

- 1. Definitions and Policy Areas of the Youth Entrepreneurship
- 2. Youth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in Seoul
- 3. Searching for Promising Future Industries and Occupations

# Chapter 3 Emergence and Diffus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as a New Entrepreneurship Process

- 1. Backgrounds and Concep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 2. An Analysis of 10 New Trends in Social Entrepreneurship

### Chapter 4 Policies for Invigorating Youth Entrepreneurship with Social Entrepreneurship

- 1. Problems of Current Youth Entrepreneurship Policies in Seoul
- 2.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Youth Entrepreneurship Policies in Seoul
- 3. Enhancing Youth Entrepreneurship Policies with Social Entrepreneurship Processes

#### References

### **Appendices**

### 서울연 2012-PR-76

## 서울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발행인 이창현

발 행 일 2013년 6월 30일

발 행 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986-5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